

SDU

디지털문학

2008 / 제2호

| 교수문단

[시] 이재무/오봉옥/배용제

[소설] 정도상/임영태/이명랑

[평론] 임현영

| 학생문단

[시] 강정숙/곽미영/김경훈/김상경/김점복/김정숙/류제희/민수입
/박경/박성희/박훈/백영호/서성호/안민숙/안장수/이은미/이주영
/임도순/정건우/정재환/조양비/최명희/최무선/한필애/홍순정

[수필] 노정숙/박은숙/안장수

[동화] 문부일

[시나리오] 문현영

[평론] 이순지

[사이버문학상] 최란주/정상조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부

【서울디지털대학교 사이버문학상 공모】

주최 : 서울디지털대학교(SDU)

주관 : SDU 문예창작학부

문학 계간 『시작』

후원 : 디지털문화예술아카데미

서울디지털대학교는 21세기 한국문학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신인작가를 발굴하기 위해 <제2회 서울디지털대학교 사이버문학상>을 공모합니다.

한국문학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참신한 상상력을 기다리며,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응모요령

▶ 접수기간 : 2008년 월 일 ~ 2009년 월 일

▶ 보낼 곳 ① : 서울 강남구 신사동 634-10 윤당빌딩 2층 문예창작학부
사이버문학상 담당자(우편번호 135-895)

보낼 곳 ② : suki1998@sdu.ac.kr

▶ 입상작 발표 : 2009년 월 일 서울디지털대학교 홈페이지

▶ 유의사항 : 이미 발표된 작품이나 표절로 밝혀진 작품은 입상 결정 후에도 취소됩니다. 원고 첫 장에 주소, 성명(필명일 때는 본명을 필히 기입), 연락처(전화번호) 등을 반드시 써야합니다. 원고가 든 봉투에도 ‘사이버문학상 응모작’ 이라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역시 마찬가지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원고는 보낼 곳 ①과 보낼 곳 ② 중에서 한 곳을 선택하여 보내주시시오. 응모작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2. 공모부문

시 : 5편 이상

3. 공모대상

문단에 등단하지 않은 전 국민

4. 당선 상금 및 특전

당선작 - 5백만원, 계간 『시작』에 작품 게재, 등단시인으로 인정

가 작 - 2백만원, 계간 『시작』에 작품 게재, 등단시인 인정 여부 작품 심사 후 결정

SDU

•

디지털 문학

•

제2호

•

2008



SDU
SEOUL DIGITAL UNIVERSITY
서울디지털대학교



|| 차례 ||

|| 발간사 학부장 오봉옥 · 8

|| 교수문단

| 시

- 이재무 저녁 6시 · 13
 젊은 꽃 · 15
오봉옥 오래된 바위 · 16
 경계가 없다 · 17
배용제 꽃들은 상처 자국에서 핀다 · 18
 물끄러미 · 20

| 소설

- 정도상 늪지 · 22
임영태 전생으로 가는 길에 대한 안내 · 44
이명량 어느 휴양지에서 · 56

| 평론

- 임헌영 문학과 서정성 · 77

|| 학생문단

| 시

- 강정숙 시간의 물결 · 89
곽미영 풍경이 있는 풍경 · 90 / 간고등어 · 91
김경훈 만선 · 92 / 거울 속의 거울 · 93
김상경 외론 섬 · 94

김점복	왜 사냐 당신은 묻습니다 • 95
김정숙	챔프의 일기 • 96
류제희	폭설 • 97 / 깃단을 털며 • 98 / 산벚꽃 • 99
민수임	그리움 • 100
박 경	태양과 나 • 101 / 그 안에는 • 102
박성희	천리향 꽃향기에 • 103
박 훈	절벽 위의 길 • 104 / 바닷가 고목 두 그루 • 105
백영호	회전출입문 • 106 / 이사오던 날 • 107 / 상생의 • 108
서성호	슬픈 내 공원 • 109
안민숙	나팔꽃 • 112 / 박하사탕 • 113
안장수	역새 • 114 / 햇발뽕치다 • 116
이은미	바다오리 • 117
이주영	노아의 변명 • 118 / 시립도서관에서 • 120
임도순	거울 • 121 / 주유소 • 123 / 천국의 문 • 124
정건우	이대역 2번 출구 • 125 / 비탈에서 • 127 / 두호시장에서 • 128
정재환	거울 속의 가면 • 130 / 시간은행 가는 길 • 131
조양비	떼잔디 • 132 / 아내가 화장을 한다 • 133
최명희	검은 빨 • 134 / 태안바다 • 135
최무선	땡벌 • 136 / 연날리기 • 137
한필애	방죽의 샘 • 138 / 해찰 • 139
홍순정	시대의 저주와 축복 • 140

| 수필

노정숙	귀에게 바칩 • 145
	사막에서는 바람이 보인다 • 149
박은숙	아이 • 153
	삼겹살 집 총각 • 158
안장수	개도 사람처럼, 사람도 개처럼 • 161

| **동화** : 2008 문화일보 신춘문에 당선작

문부일 나는 행복과출소에 간다! • 167

| **시나리오**

문현영 공감 • 181

| **평론**

이순지 목월의 상상세계와 현실세계 • 203

| **사이버문학상**

제1회 사이버문학상 • 235

최란주 즐장미 붉은 손바닥 • 236

카페 라 캄파넬라 • 237

늦겨울 • 238

땡벌법정 • 239

네모난 겨울 • 240

정상조 등푸른 추억 • 241

마녀 • 242

단단한 붕어빵 • 244

최후의 만찬 • 246

면도 • 248

숨바꼭질 • 250

예심 심사평 • 252

본심 심사평 • 254

당 선 소 감 • 256

발간사

한 해가 설핏 기울면 우리는 또 문집을 내기 위해 분주해집니다. 지난 해는 어떤 일들이 있었지? 누가 또 등단을 했고, 누가 또 책을 출간했지? 글 욕심 많은 우리들은 한 가지 한 가지를 짚어가며 시샘을 하기도 하고 거기에 자신을 비추어가면서 반성을 하기도 합니다. 지난 한 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예술제와 사이버문학상입니다. 우리는 제1회 서울디지털 예술제를 개최하여 목이 터지라고 시낭송을 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시극이며 동화극, 심지어 소설극까지 만들어 선을 보였습니다. 역시 제1회 서울디지털대학교 사이버문학상도 잇을 수가 없습니다. 응모자가 850여명, 응모작이 6000여 편에 이르렀는데 이는 서울권 일간지 신문의 신춘문예를 상회한 수치였습니다. 그 뜨거운 관심 속에서 당선작으론 최란주의 ‘즐장미 붉은 손바닥’ 외 4편이, 가작으론 정상조의 ‘등 푸른 추억’ 외 5편이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문예창작학부는 지난 3년 동안 사이버대학 최고의 문예창작학부라는 자부심 속에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학부생의 20% 정도가 현역 작가로 활동하고 있고, 불과 4년의 전통을 지닌 학부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문단데뷔 자가 많기도 합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5명의 학우가 등단을 했고, 올 초 두 명의 학우가 또 신춘문예로 등단을 하여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문화일보 신춘문예 동화 부문 당선자인 문부일 학우, 캐나다 한국일보 신춘문예 시 부문 당선자인 홍순정 학우가 그들입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재학생 여

러분들의 의지와 노력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학부 강의를 맡아 헌신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여러 교수님들의 열정의 소산이기도 할 것입니다. 당선된 학우 여러분께 거듭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경야독을 통해 일궈낸 성과이기에 더욱 더 소중한 것 같습니다.

공자님 말씀 중에 ‘아는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문학을 독자로서 즐길 때에는 고통이 따르지 않지만 창작자로서 즐길 때에는 고통이 수반됩니다. 창작 과정상의 고통이야 더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하지만 창작의 결과물이 나올 때에는 또 말로 다할 수없는 희열이 따르기도 한다는 점에서 그 ‘고통’을 사서 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찬찬히 생각해보면 거기에는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나 우리네 생활을 보면 ‘아는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볼 수가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나아가 ‘좋아하는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을 ‘즐기는 사람’은 보게 되는 지점이 또한 있습니다. 그러니 난 우리들이 문학을 즐기면서 할 수 있게 되기를, 창작 과정상의 고통까지를 즐길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깊어지면서 우리들이 추구하고 있는 문학이라는 또 하나의 세계가 완성되기를 소망합니다. 참고로 이번 문집 역시 1부를 교수들의 작품 및 논문으로, 2부부터는 학생들의 시, 소설, 아동문학, 수필, 비평 등으로 장르별 분류하였다는 사실, 덧붙여 서울디지털대학교 사이버문학상 당선작도 여기에 수록하였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고통이 크면 희열도 큼니다. 디지털문학 제2집을 뿌듯한 마음으로 세상에 내보내오니 많이들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2월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부
학부장 오봉옥

교수문단

이재무 (시)

오봉옥 (시)

배용제 (시)

이명랑 (소설)

정도상 (소설)

임영태 (소설)

임헌영 (평론)

教授 文壇

저녁 6시 外 1편

이재무

저녁이 오면 도시는 냄새의 감옥이 된다
인사동이나 청진동, 충무로, 신림동,
청량리, 영등포 역전 골목이나 신촌 사거리
저녁의 통로를 걸어가 보라
떼지어 몰려오고 떼지어 몰려가는
냄새의 폭주족
그들은 성정 몹시 사나워서
날 선 입과 손톱으로 행인의
얼굴 핥고 공복을 차고
목덜미 물었다 빨는다
냄새는 홀로 있을 때 은근하여 향기가 높고
맛도 그윽해지는 것을, 냄새가 냄새를 만나
집단으로 몰려다니다 보면 그것들은 때로
흥기가 되고 치명적 독이 되기도 한다
저녁 6시, 나는 범죄의 충동 가까스로 견디며
울긋불긋 냄새의 숲 비틀비틀 걸어간다

젊은 꽃

그의 피부는 검다 그도 한때 남부럽지 않은
푸른 몸의 빛나는 광휘를 지닌 적이 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찾아오는 가혹한
시간의 시련을 그 또한 벗어날 재간은 없었다
검은 피부는 지나온 생의 무늬일 뿐
의지와는 상관없는 것이다
하루의 팔 할을 사색으로 보내는 그는
긴 항해 마치고 돌아온 목선처럼 낡고 지쳐 있지만
바깥으로 드리운 그늘까지 늙은 것은 아니다
주름 많은 몸이라 해서 왜 욕망이 없겠는가

봄이면 마대자루 같은 그의 몸에도 연초록
희망이 돋고 가을이면 붉게 물드는 그리움으로
깡마른 몸 더욱 마르는 것을
사랑에 노소가 없다
늙은 나무가 피우는 저 둥글고 환한 젊은 꽃
찾아와 봄비는 나비와 별들을 보라

이재무 : 시인, 1983년<실천문학>통해 작품활동시작

시집<<위대한 심사>>외 다수, 계간 시작 편집주간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창학부 교수

오래된 바위 外 1편

오봉옥

나가 바위여. 딱 한 번은 굴러야 할 천길 벼랑 위 바위랑께.
뒤집어서 속을 볼 생각은 아예 하덜 말아라잉.
내 황홀한 눈물의 세계는 죽어도 보여주고 싶지 않으니께.
발바닥 지문을 따라 질게질게 집을 지어놓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개미들이야 내 살을 파먹고 사는 피붙이들이제.
따뜻한 아궁이라도 깔고 앉았는지 어쨌는지 지렁이란 놈은
움직이지도 않아야.
내 안에서 귀뿔귀뿔 우는 소리 들리거든 지도 한 번 물어보고
싶었졌제, 허고 생각해주소.
핏기 한 점 읊이 내 발목아지나 붙들고 있는 허어연 실뿌리는
두 눈 멀건히 뜨고는 차마 볼 수가 없시야.
그라도 지금껏 버틴 건 습기 속에 감추어진 그놈들의 뜨거운
숨결이 내 온몸으로 밀고 올라오니께 그란 것이제.
나가 바위여. 딱 한 번만 굴러볼 요량으로 이 악물고 견디는
바위랑께.

경계가 없다

낙원이 따로 있다. 황사 날리는 들판이 따뜻한 낙원이다. 들꽃이 따로 있다. 나어린 쿠르테1)가 들꽃이 되어 돌아온다. 바람에 서걱이는 갈대처럼 휘파람 불며 돌아온다. 산 자와 죽은 자가 따로 있다. 널리고 널린 뺨조각 하나 태연하게 들고서는 등이 가려웠는지 제 마른 등짝을 긁어달라고 한다. 쿠르테의 부친은 내 손을 잡아끌더니 피리 하나를 보여준다. 18세 소녀의 허벅지 뼈로 만든 피리란다. 나보고 한번 불어볼 거냐고 손시늬를 하더니 이내 곧 먼 데를 바라보며 구슬픈 가락 한 대목을 능숙하게 뽑아준다. 먹구름이 밀려와도 천하태평이다. 오늘도 쿠르테의 모친은 저만치서 평퍼짐한 엉덩이를 천연덕스럽게 까고 거름을 주고 계신다. 길이 따로 있다. 바로 지금 그 어머니와 풀한 포기 사이에 물길이 트이고 있거늘.

오봉옥 : 시인, 1985년 창비 신작시집으로 등단,

시집 《나 같은 것도 사랑을 한다》외 다수,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창학부 교수

꽃들은 상처 자국에서 핀다 外 1편

배용제

뿌리 잘린 것들의 밑바닥엔 모두 상처가 있지
조팝나무 가지가 꽃힌 그릇의 물을 갈아주며 그가 중얼거린다
봄빛을 따라간 산책길에서
주워 온 꺾인 가지 몇,
시퍼런 눈조차 뜨지 못했던 것들 어느새
새하얀 연고 같은 꽃들을 매달고 있다
무슨 보물인 양 여기는 그의 우스꽝스런 몸짓을 보면서
고아원 양지바른 곳에서
여린 가지를 뺏고 자라온 그가
남매를 주고서도 또 다른 아이를 원하는 집착에 대해
생각해본다, 여지껏 삼켰을 눈물에 대해
어쩐지 그의 웃음에서도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눈물이 싱싱해질수록 더욱 더 선명한
조팝나무 저 꽃들,
바람에 날려 온 봄빛의 부스러기일지도 몰라
상처를 딛고 악착같이 반짝이는 딱지 같은 꽃들을

무슨 별인 양 바라보는
그의 양팔에 아이들이 매달린다
어떻게 이것들이 내게서 생겨났는지
햇살과 공기와 구름과 모든 계절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그러나 꽃들이 제 몸을 벗어나기 전까지
그것들이 단단한 씨앗을 품을 때까지
아직은 잘린 상처로 눈물을 삼키며 허공을 움켜쥔
조팝나무 가지의 아슬아슬한 터전, 그의 봄날.

물끄러미

바라본다

병실 침대 위에서 헐떡이는 한줌의 허공,

사내는 애써 뺄어내려 몸부림친다

미리 빠져나온 것들은 나뭇가지를 흔들거나

새의 깃털에 매달려 떠나버리고

부스러기 허공 한줌이 사내를 움켜쥔 채 일그러진다

한때 힘찬 고향소리였던 허공이

환한 웃음이었던 허공이

갑자기 눈물과 한숨 같은 종류로 변질되었다

이제 그만 거친 흔적들을 지워달라고

본래의 터전으로 돌려보내달라고

한껏 입을 벌리고 손을 내젓는다

사용할 여백이 없어진 얼굴,

허공은 천천히 사내를 내려놓는

그러자 어둠을 기록하던 손발이 움직임을 멈춘다

모든 표정이 지워지고 경험과 생각들이 사라진 사내는

가장 편하고 고요한 무게가 된다
수많은 사람들 속을 들락거린 눈 시린 허공이
한꺼번에 아득하게 휘몰아친다
시간이 흐르자 사내의 몸에서
풀잎이 돋아나고 꽃이 피고 벌레들이 집을 짓는다
밤마다 상기된 달이 하나씩 부화된다
그 싱싱한 얼굴을 디밀고 어둠의 바탕을 물끄러미 들여다본다.

배용제 : 시인, 1997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당선, 계간 시작 편집주간
시집《이 달콤한 감각》외 다수,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창학부 교수

늪지

정도상

1.

“웨이. 여보시오! 늪기? 외서 소리가 알네? …… 니 개새끼, 다리 밑에서 전화치는 게지? 무시기? …… 그제는 으째 사기쳤음두? 전화 치면 받지 아이 하고. …… 무시기? 보위부 핑계 대지 마라! 돼지 반채 보내준다 아이 했음두? …… 우와 개새끼! 으째 밀지 안씀두? …… 우와 개새끼, 얼음덩어리는 싫다. 우와 간나 개새끼, 얼음장사하다가 걸리면 니가 대신 총 맞을 꺼임두? …… 아가리 닥치라우! 건네준다는 에미나이는 으째 됐음두? …… 개새끼 아가리만 열리면 쏟아내는 기똥팡 먹는 거야 타령이네? 니 처먹는 거 소화시켜 모조리 거짓말로 아이 내보냄두? …… 아이라고? 개새끼, 아가리만 열리면 술술 거짓말이. …… 언제? 알았습메. 먼저 건네주면 인차 돼지 반채 아이라 온채 보낸다. …… 우와 개새끼. 내가 언제 거짓말하는 거 봤음두? 개새끼, 거짓말에다 약속 지키지 않는 기야 니들이 전문가지 난 아니다. …… 무시기? 쌀까지? 우와 개새끼! 에미나이 하나가 무시기 금땡어린 줄 암메? 돼지 반채에 쌀까지 니들한테 떼주면 나는 손가락만 뺏두? …… 우와 개새끼, 에미나이가 급하니끼니 먼저 보내 알간?”

연길에서 도문까지 달려오는 내내 갑봉이는 휴대폰과 씨름했다. 상대방도 징그럽게 전화를 쳐냈고, 갑봉은 왼손 오른손으로 전화기를 옮겨가며 오로지 욕으로 대꾸했다. 입만 열면 욕설이 샘물처럼 솟았다. 일부러 엇들은 것은 아니지만 사람장사에 나서기 전에는 얼음장사에도 손을 댄 모양이었다. 사람을 팔다가 걸리면 중간에 뇌물을 써서 나오기도 하지만 얼음을 팔다가 걸리면 감옥에서 몽창 썩거나 죄질이 나쁘면 총살형을 당했다. 도문에 도착한 것은 오후 다섯 시 무렵이었다. 연길이 사람으로 바글거리는 장마당 같다면 도문은 파리 날리는 국밥집 같았다. 한가해서 보기엔 좋았지만 심심하고 나른하게 느껴졌다. 갑봉은 시내를 가로질러 곧장 북조선과 연결된 철교 쪽으로 고물 승합차를 몰았다. 두만강 철교 근처의 철길을 가로질러 넘다가 승합차가 덜커덩 엉덩방아를 찧자 ‘에이 썩어질.’ 하면서 갑봉이가 욕설을 퍼부었다.

높지로 가는 길은 두만강을 따라 곧게 뻗어있었다. 운전석 쪽으로 두만강이 낮고 푸르게 흘렀고, 건너편에는 북조선의 남양(南陽)시가 나무 한 그루 없는 민둥산 아래 엮드려 깊은 적막에 빠져 있었는데 지금은 망해버린, 아주 오래된 마을처럼 보였다. 너무 낡아 칙칙하면 서도 녹녹한 느낌의 북조선 국경도시는 춘구가 텃줄을 묻고 자라난 태양촌과 쌍둥이처럼 닮아 있었다.

무너져 내린 헛간처럼 변해버린 고향, 해림(海林)시에서 경박호 쪽으로 한 시간쯤 달리다 산길로 접어들어 구불구불한 길을 하염없이 들어가면 불쑥 나타나는, 어떤 꿈도 꿀 수 없었던 태양촌을 떠올리니 목구멍이 간지러우면서 욕지기가 치밀어 올랐다. 춘구는 태양촌을 향해 가래침을 뱉 뱉었다. 순간 뒷좌석에서 혁, 하는 소리가 들렸다.

“야, 개새끼야! 침 좀 빨지 말란대두! 아, 씨바 얼굴에 또 가래침이…… 에이 썩어질.”

뒷좌석의 삼식이가 개지랄을 하면서 조수석 의자의 등받이를 발로 차냈다. 달리는 승합차에서 침을 빨으면, 바람 때문에 뒷사람의 얼굴에 찰싹 붙곤 했다. 이번에도 가래침이 삼식이의 뺨에 씹다만 껌처럼 달라붙은 모양이었다. 고개를 돌려 그 모습을 힐끗 본 갑봉이가 낄낄대며 웃었다. 삼식이가 손바닥으로 침을 닦아 바지에 문지르고 나서

주먹을 쳐들었다가 내려놓고는 계속 툭툭거렸다.

“미안해서 어쩔두?” 라고 연길말로 말하면서 속으로는 너무 고소했다. 삼식은 식식거리다가 담배를 물었다. 팔월의 한낮은 손목을 지지던 담뱃불처럼 뜨거웠다. 차창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뜨거운 바람에 숨이 킁킁 막혔다. 심지어 고물 승합차의 엔진에서는 파란 실오라기처럼 연기가 올라왔다. 이러다가 높지로 가지도 못하고 서버릴 것만 같아 걱정스러웠다. 그런데 운전을 하는 갑봉이나 뒤에 앉은 삼식이나 태연하기 짝이 없었다. 갑봉의 목에 걸린 굵은 사슬의 금목걸이가 부담스럽고 갑갑하게 느껴져 친구는 티셔츠를 걸어 올려 겨드랑이에 끼었다. 그러자 배꼽 주변에 굵고 붉은 지렁이 몇 마리가 서로 엉켜 있는 듯한 흉터가 불쑥 나타났다. 몸에 열이 나니까 흉터가 부풀어 올랐고, 그 탓에 간지러워 미칠 지경이었다. 피가 나도록 박박 긁고 싶었다.

“그 썩어질 놈으 배때지. 제각 내리라 야.”

옆눈으로 흘끔 친구의 배를 본 갑봉이가 인상을 팍 구기며 소리를 버럭 질렀다.

‘귀 안 묵었다 아이가? 문디이 새끼, 에어컨도 없는 고물 퐁차를, 연길 문디 씨발놈들, 장사를 할라치몬 에어킨은 최소로 달아야 하는 건데? 영업에 대한 기본적인 예절도 없는 흑심(黑心)쟁이 새끼들. 손구락 발꾸락 가리지 안코 썩어질 문디 새끼들, 본시 마음이 검은 놈들이라 카더만…….’

친구는 갑봉의 말을 무시하고 속으로 갑봉의 머리 위에다 욕바가지를 퍼부었다. 이렇게 날씨가 푹푹 찌는 날에는 송아지 친구들끼리 웃통을 벗고 그늘에 모여앉아 술내기 주패를 하든지 마작을 하면서 웃고 떠드는 게 딱 제격이었다. 밤이 되면 술집에 모여앉아 영국의 초급 축구경기를 보는 재미도 꽤 쏠쏠했었다. 좁다란 해림 시내를 주름잡겠다고 패거리를 지어 싸우러 다니던 그 시절이, 아무 생각없이 놀던 그 시간이 그리웠다. 하지만 모든 그리움이 그리하듯이 기억 속으로 아득하게 가라앉아 다시는 만날 수 없는 풍경으로 변해버렸다.

“저게 두만강에, 문화혁명 때 북조선으로 건네가려던 조선족으 시체가 똥똥 떠다녔지비. 흥위병 놈들이 조선족을 말이야. 고향이 북조

선이면 북조선 간첩, 고향이 남조선이면 남조선 간첩으로 몰아 족치는 데 용빨 재주가 어데 있습두? 북조선으로 건너가면, 직장 주고 대학에도 보내준다 소문이 들었지비. 그래, 흥위병에 쫓기우느니 찌리¹⁾ 두만강으로 뛰어들자, 이래 되었지비. 그 때는 김일성이가 모택동보다 인민을 더 잘 맥였는데…… 오죽하면 너 이름이가 삼식이입둥? 니 아바이가 하루 세 끼니는 꼭꼭 챙겨먹으라고 그렇게 왕청스럽게 지었지비. 거기 메이가? 근사하게 태룡이나 해룡이도 있는데. 니기미 씨발, 예어권이 없으니 아주 죽값구만. 저기 북조선쪽 산을 좀 봐. 문화혁명 때는 중국쪽 산이 지금으 북조선 산처럼 완전히 발가벗었지비.”

운전을 하던 갑봉이가 잘난 척을 해댔다.

‘씨바 새끼, 문디 양아치질이나 하는 주제에 해설질이 머꼬, 해설질이? 저 씹새는 잘난 척을 지 혼자 역수로 쟈게 한다 아이가? 문화혁명? 소핵교만 땡겼어도 흥위병으로 설치고 지랄 문디 발광을 찻겼제. 니가 행여 안 기랬을 끼고? 아나 흥위병!’

춘구는 갑봉의 말을 속으로 잘근잘근 씹었다. 장사꾼이면 장사꾼답게, 건달이면 건달답게 굴어야지, 아닌 척 눈깔에 힘주는 것은 정말 싫었다. 춘구는 어서 일을 끝내고 연길을 뜨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손바닥으로 목덜미의 땀을 훔쳤다.

“무스그 새가이들이 올라나? 안까이²⁾들은 바쁘기만 하고 남는게 없는데……”

갑봉이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 말에 춘구도 고개를 끄덕였다. 한쪽이든 조선쪽이든 좃달린 놈이라면 죄다 새가이만 찾으니……。 새가이는 인민폐 삼만 위안³⁾ 정도에 팔리지만 안까이는 일만 위안 받기도 힘들었다. 안까이를 팔아넘기면, 일만 위안을 나누는데, 형님인 갑봉이는 삼천 위안, 삼식이와 춘구는 천오백 위안씩, 북조선에서 넘겨주는 사람에게 천 위안씩을 배당했고 나머지는 경비로 사용했다. 당연히 이십 대의 싱싱한 새가이를 받아 팔아넘기면 손에 쥐는 돈도 그만큼 두둑했다.

‘아 씨바, 칠만 위안은 모아야 하는데.’

1) ‘골장, 일직선으로’ 등의 뜻을 가진 연길 지역어.

2) ‘새가이’는 처녀나 아가씨를, ‘안까이’는 결혼했거나 나이가 서른을 넘긴 여자를 가리키는 연길 지역어.

3) 인민폐 1만 위안이면 한국 원화로 약 130만원임.

최소 오만 원 정도는 있어야 한국에 갈 비자를 살 수 있었다. 나머지는 비자 나오길 기다리면서 소비할 돈과 한국행 비행기 표값이었다. 한국에 도착하기만 하면, 먹을 따버릴 놈을 반드시 찾아내서……, 라고 생각하는데 승합차가 작은 오솔길을 향해 급속하게 좌회전을 하며 멈췄다. 그 바람에 몸이 쏠리면서 유리창에 이마를 박았다.

‘운전질이라고는, 강아지만도 못한 주제에 숨씨 있다고 뽀뽀 우기 더만, 씹새.’

춘구는 화가 나서 벌컥 문을 열고 승합차에서 내렸다.

“아, 이런 썩어질! 유리창이 깨져버렸네. 우와 개새끼, 대가리가 무스그 돌덩이임메?”

승합차에서 내린 갑봉이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돌아보니 조수석 유리창이 깨져 있는데 마치 거미줄처럼 보였다. 차라리 잘 됐다 싶었다.

“이거 똥차 내비리고 새 거로 하나 사이소마.”

춘구는 주먹으로 금이 간 유리창을 툭툭 건드렸다. 갑봉이가 화들짝 놀라며 춘구를 밀었다.

“국경법규를 준수하면 영광스럽다. 밀매, 독품 판매행위를 견결히 타격하자. 썩어질, 이거이 무스그 왕칭갔다운 말임메? 흐흐흐.”

삼식이 큰 소리로 구호판의 공지문을 읽었다. 이어 깨진 이빨 사이로 침을 짙 갈기더니 실실 쪼갰다. 국경법규를 어기고, 밀매나 독품⁴⁾ 판매행위를 견결히 해야 뽀다구나게 살지 씨발, 하면서 춘구는 구호판 쇠기둥에다 오줌 줄기를 갈졌다. 그러자 삼식에도 바지춤을 내리며 다가왔다. 춘구는 삼식이랑 함께 나란히 서서 서로의 좃을 흘끔 흘끔 보며 오줌을 싣다는 게 쪽팔려서 잔뜩 힘을 쥐 오줌을 뽀아내고는 얼른 돌아섰다.

갑봉이는 그 사이에 주머니에서 ‘웅묘(熊貓)’ 담배갑을 꺼내고 있었다. 등소평이 애용했다는 웅묘는 한 갑에 팔십 위안이나 하는 최고급 담배였다. 연길 시내 다방에서 웅묘를 꺼내놓고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 안까이들은 물론이고 새가이들까지 다시 한 번 쳐다보았다. 갑봉이는 그것을 즐기고 있었는데 사실 웅묘 담배갑 속에 진짜 웅묘는 몇

4) 마약을 뜻하는데, 약담배라고 부르는 아편이나 얼음이라고 부르는 히로뽀도 포함되어 있음.

개비 들어있지 않았다. 삼분의 일은 웅묘였고, 나머지는 생김새가 비슷한 싸구려 담배였다. 갑봉이는 관가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는 진짜 웅묘를 피웠고, 보통 자리에는 가짜 웅묘를 피웠다.

담배를 다 피운 갑봉이가 공초를 아스팔트 위로 튕겨버린 뒤, 승합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끼릭끼릭거리다가 간신히 시동이 걸린 승합차를 몰고 갑봉이는 구호관 바로 옆의 오솔길로 들어섰다. 늪지로 내려가는 길이였다. 오솔길을 따라 구불구불 내려가니 강변의 풍경이 시원하게 펼쳐졌고 곧이어 자그마한 해바라기 밭이 나타났다. 갑봉이는 해바라기밭 옆의 미루나무 그늘에 승합차를 세웠다. 밭은 몇 이랑 되지 않은 채로 좁고 길었고, 듬성듬성 자라고 있는 해바라기가 고개를 쳐들고 이글이글 타오르는 태양을 쫓고 있었다.

해바라기 밭을 가로질러 세 사람은 강변으로 나갔다. 강 건너, 북조선 땅이 손에 잡힐 듯 가까웠다. 무산으로 가는 길 위에 사람들이 걸어 다닌다면, 숨소리가 들릴 지경이었다. 강물은 깊어 보였다. 친구는 갑봉의 뒤를 따라 하류 쪽으로 걸었다. 잠시 뒤 여울목이 나타났다.

“여계가 늪지임두. 예전에 이 행님이가 여계를 통해 북조선과 밀매를 했지비. 일본에서 중고차를 사서 청진으로 들어오면, 청진에서 남양까지 차를 끌고 와서, 저게 보임두? 무산가는 길에서 강으로 내려오는 비탈길? 차를 저 길에서 찌리 여울목으로 운전해 들어오면, 트럭을 대기해놓고 있다가 밧줄로 끌어당겼지비. 여계는 모래밭이고 늪지라 끌어당기지 아이 하면 바쿠가 모래밭에 콕 박혀스리……. 니싼이나 도요타 중고 그거 몰고 연길로 나가면, 한쪽 놈들 침을 짹짹 흘렸지비. 좋은 시절이었는데, 씩이질……. 에미나이들이 온다면 여계로 올 기야. 찌 길을 잘 보라우. 자세히 보면 무슨 구멍 같은 거이 보이지 않습두? 그계 북조선 인민군 초소임메. 월경자들 잡는 초소니끼니 조심들하라우. 자, 올라가서 기다리자우.”

친구는 늪지 주변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여울목에 이어진 자갈밭과 모래밭이 전부였다. 모래밭에 이어진 풀밭에는 황소 한 마리가 느긋하게 풀을 뜯고 있었고, 여울목으로 길게 자동차 바퀴며 사람의 발자국이 여슴프레 남아 있었다. 늪지라고 이름을 붙일 만큼 늪다운 곳은 보이지 않아 고개를 몇 번 가웃거렸지만 갑봉이한테 묻지는 않았다. 늪

이 아닌데도 늙지라는 지명까지 번듯하게 붙인 이유가 분명히 있을 터였다.

“도문으로 가서 기다렸다가 밤에 오자우. 곱창은 채워야 하지 않겠습두?”

갑봉이가 빠른 걸음으로 승합차 쪽으로 걸어갔다. 그 뒤를 삼식이 가 출싹거리며 따라갔다. 어차피 북조선 여자들은 밤이 되어야 두만강을 건너올 터였다.

2.

저녁을 대충 때우고 다방으로 자리를 옮겨 맥주를 마셨다. 삼식기와 친구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갑봉이는 늙은 마담과 시시한 농담 따먹기를 하며 응모 담배값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채널을 이리저리 돌려봐도 축구 방송은 없었다. 결국 탁구시합을 보며 하품을 해대고 있는데, 탁자 위의 휴대폰이 부르르 몸을 떨었다. 갑봉이가 얼른 집어 들었다.

“웨이? 뉘기? …… 이런 썩이질, 개새끼! 외서 전화 치고 지랄이네? …… 지금? 알겠다. 썩리 간다.”

갑봉이가 전화를 끊더니 벌떡 일어섰다. 그러자 삼식이라도 용수철처럼 튕겼고, 친구는 주윤발처럼 성냥꽂을 이빨 사이에 끼우고 느긋하게 몸을 일으켰다.

“메야 이거?”

먼저 밖으로 나간 갑봉이의 불만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고 다방에서 나오니 짙은 안개가 도문 시내를 가득 채우며 어둠과 몸을 섞고 있었다. 친구는 다방 앞에 잠시 서 있었다. 안개 속으로 쉽게 발이 나가질 않았다. 안개는 길이며 아파트를 꾸역꾸역 집어 삼키고 있었다.

“무시기, 썩어질 안개임두? 이게야 운전이나 제대로 하겠습두? 바쁘구만 이거? 제깍 올라 타라우!”

5) 연길 사람들이나 북한 사람들이 '바쁘다' 라고 말하는 것은 '긴장되다, 빠듯하다' 라는 뜻이 대부분임.

춘구는 안개 속에 손을 뻗어 한 번 휘저어 보았다. 손가락 사이로 바람이 빠져나갔고, 바람이 빠져나간 흔적으로 축축한 물기가 손가락에 남았다. 갑봉이가 시동을 거는데 퍼덕거리기만 할 뿐 엔진이 말을 듣지 않았다. 춘구는 조수석에 앉아 시동이 걸리기를 기다렸다. 성질 급한 갑봉이가 있는 대로 욕설을 퍼부으며 운전대를 두어 번 내리치자 그제야 시동이 걸렸다.

갑봉이는 헤드라이트를 켜고 안개 속으로 승합차를 몰았다. 헤드라이트 불빛을 안개가 강렬하게 튕겨냈다. 눈이 따끔따끔 아팠다. 차라리 헤드라이트를 끄는 게 나을 정도로 안개는 첩첩했고 두터웠다. 승합차는 안개 속을 엉금엉금 기어 늪지로 갔다. 늪지에 도착하자마자 갑봉이는 두만강 건너편을 향해 전조등을 두어 번 깜빡거렸다. 그러자마자 갑봉의 휴대폰에 신호가 왔다. 춘구는 이빨 사이에 낀 성냥꽂이를 뱉어버리고 귀를 쫑긋 세웠다.

“여보시오. 밤안개가 아주 좋다. 지금 물건 개구 간다. 준비하라우.” 라는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가서 개구 오라우!”

갑봉이가 말했다. 춘구와 삼식이는 승합차에서 내려 해바라기 밭을 지나 강가로 나갔다. 안개 때문에 자주 밭을 헛디뎠다. 강가에 도착하자 건너편이 소란스러웠다. 뭔가 일이 잘못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춘구는 입술을 살짝 깨물며 건너편 상황을 정확히 알기 위해 귀를 기울였다. 안개는 두만강의 잔잔한 물결 위에서 흘연 몸을 일으켜 끊임없이 퍼지며 밤하늘로 올라가고 있었다. 풍덩, 누군가가 물에 뛰어드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안개가 잠시 흔들렸다. 춘구는 심호흡을 했다.

“충심아, 충심아!”

밤안개 속에서 남자 목소리가 찌렁하게 울렸다. 크기와 울림으로 보아 젊은 남자가 틀림없는 것 같았다.

“오빠!”

그 남자를 부르는 여자 목소리가 두만강과 안개를 사납게 찢었다.

“충심아, 안 돼!”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울렸다. 그 순간, 건너편 북조선 국경경비초소의 탐조등에 불이 들어왔다. 탐조등의 길고 강렬한 불빛은

안개 때문에 별 소용이 없었다. 마치 소경이 지팡이를 허공에 휘젓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몇인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악을 쓰며 강을 건너오는 가쁜 숨소리가 가깝게 다가왔다.

탕탕탕!

적막을 찢는 굉음과 함께 가느다란 불빛이 강물 위로 쏟아졌다. 총탄이었다. 친구는 자신도 모르게 자갈 바닥에 몸을 납작 엎드렸다.

“오빠!”

젊은 여자가 비명을 질렀다. 안개 속에서 두만강은 내질러대는 악다구니와 처박처박 물길을 헤치는 소리로 소란스러웠다. 친구는 안개 속의 두만강에 신경을 집중시켰다.

안개 속에서 두어 사람이 서로 엉긴 듯한 거뭇한 물체가 서서히 나타났다. 가까이 다가오기를 기다려 자세히 보니 양쪽에서 축 늘어진 사람의 겨드랑이를 어깨에 서로 낀 남자와 아낙네였다. 간신히 강을 건너온 남자와 아낙네가 친구 앞에 축 늘어진 여자를 내려놓았다. 곧 이어 또 다른 아낙네가 젊은 여자의 손목을 움켜쥐고 강을 건너 왔다. 뒤에 온 아낙네와 여자를 데리고 삼식이이 먼저 승합차 쪽으로 서둘러 떠났다. 친구는 자갈바닥에 널부러져 있는 여자의 몸을 발로 툭툭 건드렸다. 그러자 여자가 꿈틀거리다 상체를 일으키더니 주변을 둘러보았다. 작은 몸매의 여자였다. 여자는 두리번거리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두만강으로 뛰어 들었다. 여자를 부축해서 강을 건너왔던 남자와 아낙네가 후다닥 강으로 달려가 여자의 옷을 잡아챘다.

“오빠! 놔, 놔! 조선으로 갈 거야! 함흥으로 간다니끼!”

여자는 몸부림을 치며 악을 썼다. 그러나 남자는 말없이 머리채를 휘어잡아 끌어당겼고 아낙네는 뒤에서 밀었다. 친구는 말없이 서 있다가 느닷없이 여자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다. 여자가 뒤로 벌렁 넘어졌다. 친구는 여자의 배를 발로 지그시 밟았다.

“씨부랄 년, 죽겠습두?!”

친구의 목소리는 낮고 비정했다. 여자는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친구는 여자의 머리채를 휘어잡아 일으켰다. 여자가 비명을 지르며 버텼다. 남자와 아낙네가 여자의 등을 떠밀었다. 승합차에 도착하자 아낙네를 조수석에 태우고 친구와 남자는 여자를 번쩍 들어 뒷좌석에다

집어던졌다. 여자는 작은 새처럼 가벼웠다. 그 가벼움에 친구는 약간 당황했다. 남자가 맨 뒷좌석으로 들어가자 친구는 문을 닫으며 ‘갑세!’ 를 외쳤다. 갑봉은 차를 출발시켰다.

“오빠, 재춘 오빠!”

달리는 승합차 안에서 물에 흠뻑 젖은 여자가 몸부림을 쳐댔다. 친구는 여자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다 처박아버렸다. 여자가 무릎 사이에서 몸부림을 쳤다. 친구는 여자의 목덜미를 지그시 눌렀다. 잠시 후 여자는 스프르 맥을 풀었다. 친구는 무릎에서 힘을 빼버렸다. 갑봉이는 콧노래를 부르며 안개 속으로 천천히 승합차를 몰았다. 두만강에서 스멀스멀 올라온 국경지대의 밤안개 속으로 승합차는 서서히 스며들었다.

3.

흥정이 새롭게 시작되었다.

북조선에서 데리고 온 여자 둘 모두 새가이였고 게다가 숫처녀로 보였다. 새가이라면 삼만 위안에 넘기기로 했던 애초의 계획을 갑봉이가 일방적으로 깨버렸다. 남자 손길이 타지 않은 완벽한 숫처녀이기 때문에 적어도 오만 위안은 받아야 한다는 게 갑봉의 주장이었다. 친구는 손해볼 것이 없었기에 적당한 임자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충심이라는 이름의 몸집이 작은 새가이는 방에 처박혀 단식하고 있었고, 약간 통통한 미향이는 밥도 잘 먹었고 심지어는 설거지까지 도맡아 했다. 친구는 까탈스럽게 구는 충심이 마음에 들었다. 싸가지 없이 굴다가 끝내 입술도 주지 않고 해림을 떠나버린 설매를 속 빼다박아서 괜히 가슴이 설레곤 했다. 쥐새끼처럼 눈치가 빠른 갑봉이가 몸값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된다고 못을 광 박았다. ‘새끼 낳기 전엔 금(金)유방, 새끼 낳고 나면 개(狗)유방.’⁶⁾이라는 갑봉의 말에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삼식은 입술을 속 내밀었다. 전에는 북조선에서 새가이든 안가이든 데리고 오면 기를

6) 리오웨이(老威) 지음, 이향중 옮김, 『저 낮은 중국』, 29쪽, 이가서 출판사, 2004년 7월

겪기 위해서라도 따먹었다며 투덜거렸다. 갑봉이는 삼식이한테 좃몽둥이를 잘못 놀렸다면 속 뽑아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야시장(夜市場)이 열리는 북시장 근처의 허름한 아파트로 새가이들을 데리고 들어온 지 이틀째 되는 저녁 무렵 갑봉이가 헐레벌떡 뛰어 들었다.

“일루 와보라우. 봉춘이 새끼 때문에 미티갔다. 연길 시내에 공안놈들이 짝 깔렸어. 백락궁식당에서 들었는데, 그 집 로반의 아들놈이 공안이라 귀동냥질으 했는데.”

“그 로반의 아들? 누기요?”

삼식이 갑봉의 말을 툭 자르고 끼어들었다.

“이런 썩어질 개새끼 같으니라고, 왕청 땡겨 왔습두? 그 로반의 첫째 아들놈이를 큰 험담한테 말해 공안에 넣지 아이 했습두?”

갑봉이가 눈알을 부라리며 소리를 버럭 질렀다. 삼식이 꼬리를 사타구니 사이로 말아 넣는 표정을 지었다.

“웁소.”

“왕청 것들도 너보단 낫겠습두.”

왕청 것들이란 갑봉의 말에 삼식이 고개를 푹 숙였다. 말을 빨리 못 알아들으면 왕청 갔다왔냐며 놀렸다. 왕청은 촌놈의 대명사였다. 그래서 연길 사람들은 ‘왕청 촌놈’이라는 욕을 제일 싫어했다. 반면에 왕청 사람들은 자기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해서 또 질색팔색이었다.

“봉춘이 그 개새끼가 에미나이 양십 명을 모아 북조선에서 넘어온 것처럼 꾸미고 거지질을 시켰재비. 어드메서 나달나달하고 더러운 거지웃을 구해왔겠는지? 재주가 참기름 바른 미꾸라지 같은 새끼야. 에미나인들이 한국 관광객들한테 탈북한 북조선 여자라며 손을 내밀면, 고저 딸라를 평평 앵기지 않겠습두? 기리니끼네 하루에 최소 이천 원, 한 달이면 육만 원, 모이면 엄청나지비. 그 개새끼가 기러케 앵벌이질을 시켜 일 년 만에 아파트 한 채를 장만했지비. 기카니까 길림 안전청 귀에까지 아이 들어가겠습? 한국에서 온 선교사 새끼들, 미국놈들 돈 받고 탈북자 후리는 놈들까지 연길 시내가 완전 개판인데 봉춘이 그 개새끼까지 끼어드니, 기카다간 우리까지 왕청가게 생겼네, 썩어

7) 작은 가게의 사장

질.”

“제가 하겠습다, 행님.”

갑봉의 말이 끝나자마자 삼식이가 나섰다. 삼식의 엄숙한 얼굴을 보던 갑봉이가 그만 피식 웃고 말았다.

“짜개바지에서 좇 튀어나오듯이 나서기는? 썩어질, 콧구멍에 붙은 코딱지나 떼라우?”

갑봉의 말에 삼식은 얼른 콧구멍에다 손가락을 쑤셔 코딱지를 파내 바지에다 닦았다.

“너는 연길 사람이 아니라 얼굴이가 아이 알려졌으니, 친구 니 손을 빌렸으면 어떡했습두? 그 썩어질 새끼, 뜨거운 맛을 봐야 정신을 피딱 차리지.”

“알겠습다.”

춘구는 시원하게 대답했다. 두 시간 후, 봉춘이가 신화서점 근처의 서울다방에 앉아 있다는 삼식이 톨마니의 전화를 받고 춘구는 충심이를 데리고 아파트를 나왔다. 그 뒤를 삼식이가 따랐다. 아파트를 나오자 충심이는 행여라도 공간에게 잡힐까 싶어 춘구의 곁에 찰싹 달라 붙었다. 춘구는 삼식이한테 아파트로 돌아가라고 말했다. 언제나 혼자 일을 하는 게 편했다. 거추장스러운 것은 딱 질색이었다. 충심이를 데리고 나온 것은 일부러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충심이는 끊임없이 불안하게 눈동자를 굴리며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뒤에서 택시가 ‘뽕뽕’ 하며 경적을 울리기만 해도 깜짝깜짝 놀랐다.

택시를 타고 밤의 연길 거리를 달렸다. 어두침침한 골목마다 어김없이 들어선 안마소, 양고기 썬집, 온갖 노래방, 다방의 간판이 밤의 거리에서 불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 불빛 아래를 사람들이 걸거나 자전거를 타고 밀려가고 있었다. 충심은 차창에 얼굴을 딱 붙이고 야경을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연길은 썬집과 노래방과 안마소와 다방의 도시였다. 택시가 신화서적 앞에 멈추자 춘구는 충심이가 따라오든 말든 신경쓰지 않고 성큼성큼 걸어 서울다방으로 들어갔다.

칸막이가 촘촘한 다방에는 곰팡이 냄새가 큼큼하게 배어 있었다. 춘구가 맥주 한 잔을 천천히 들이키는 동안 충심이는 비에 젖은 작은 새처럼 앉아 있었다. 춘구가 빈잔을 내밀자 충심은 도리질을 쳤다.

“기다리라우.”

이 말을 남기고 춘구는 마침내 맥주병을 손에 들고 일어섰다. 어떤 망설임도 없이 연길 놈들한테 흑룡강성 사람의 깡다구를 보여줘야만 한다고 춘구는 생각했다. 사나이답게 해치워야 했다. 상대방은 모두 셋이었다. 머리를 뻑뻑 밀어버린 이십 대 중반의 깡두기처럼 생긴 젊은 녀석, 양복을 깔끔하게 입었으나 어딘지 모르게 싸구려 티가 나는 중년의 사내, 그 옆에 앉아 아양을 떠는 화장을 촌스럽게도 진하게 한 늙은 마담이 속닥거리고 있었다. 춘구가 그들 앞에 스윽 나타나자 셋의 눈동자가 일제히 집중되었다.

“메야, 씨발?!”

젊은 깡두기가 눈알을 부라리며 일어나려고 했다. 순간, 춘구는 맥주병을 쳐들어 주저없이 머리통을 내리찍었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맥주병이 춘구의 머리통 위에서 깨졌다. 허연 거품이 춘구의 머리카락을 적시며 흘러내렸다. 춘구는 씨익, 웃었다. 그 바람에 젊은 깡두기가 놀라 의자에 처박혔다. 춘구는 조용히 티셔츠를 걷어 올렸다.

“니가 봉춘이냐?” 라고 말하며 춘구는 깨진 맥주병을 자신의 배에다 그었다. 맥주병이 지나간 자국마다 선혈이 투둑투둑 터지며 흘렀다. 춘구는 조용히 그러나 눈에 힘을 모아 봉춘이를 쳐다보았다. 봉춘이는 얼른 고개를 숙였다. 춘구는 봉춘이의 턱을 검지 하나로 들어올렸다.

“오늘부로 에미나이들 모아 거지질 시키는 거 인차 중단시키라! 앞으로 걸리면, 먹을 따겠다. 알간!?”

춘구는 낮은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했다. 이어서 깊게 배를 찌르진 않았으나 피는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천천히 배를 그었다. 투툭, 살이 갈라지는 느낌이 손목으로 전해졌다. 늙은 마담이 다방이 떠나가도록 비명을 질렀다. 춘구는 손바닥에 피를 묻혀 마담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순간 마담이 끄옥, 하며 비명을 삼켰다. 그것을 보고 있던 충심은 손바닥으로 입을 틀어막고 부들부들 떨었다.

“일없어. 주둥아리 닥쳐.”

늙은 마담이 막힌 숨을 내쉬다말고 흠, 하며 입을 다물었다. 깡두기가 눈치를 보며 재떨이를 손으로 움켜쥐었다. 순간, 깨진 맥주병으로

깍두기의 손등을 푹 찍었다. 깍두기가 비명을 지르며 팔짝팔짝 뛰었다. 출씩거리는 게 마치 삼식이를 보는 느낌이었다.

“사내가 엄살이 머꼬? 아파도 뒤져도 참는 게 사내 아이가? 알았제?”

춘구의 말에 깍두기가 움찔 하더니 모든 동작을 멈췄다.

“봉추이? 두고 볼끼구마!”

춘구는 피문은 손바닥으로 파랗게 질린 봉춘의 얼굴을 탁탁 쳤다. 봉춘이가 고개를 푹 숙였다. 춘구는 조용히 돌아섰다. 얼굴은 평온했다. 춘구는 서두르지 않고 출입구를 향해 천천히 걸었다. 뒤를 충심이가 허둥지둥 따랐다. 택시가 아파트에 도착하자 충심이를 먼저 올려보냈다. 그제야 춘구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깊게 빨았다. 야시장에서 날아온 양고기 썸 냄새가 코를 자극했다. 춘구는 옷자락을 여미고 야시장을 향해 천천히 걸었다. 뱃가죽이 저릿저릿 아팠지만 춘구는 눈썹 하나 찡그리지 않았다.

야시장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했다. 양고기 썸을 굽는 연기와 냄새가 시장 전체를 뒤덮고 있었다. 춘구는 사람들 사이를 홀로 걸었다. 중국말과 조선말이 뒤섞여 온갖 잡음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통증이 썰물처럼 밀려왔고, 옷자락을 여민 손으로 핏물이 내려왔다. 육신육신 쑤시며 통증이 올 때마다 양고기 썸을 사먹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양고기 썸을 사진 않았다.

“이젠 들어가자요!”

귀에 익은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니 충심이가 서 있었다. 춘구는 말없이 충심이를 바라보았다. 충심이가 얼른 고개를 숙여 눈길을 피했다. 다른 사람이었다면 불같이 화를 냈겠지만 충심이라서 참기로 하고 또 걸었다.

“피가 많이 나요. 이젠 돌아가자요!”

뒤에서 충심이가 말했다. 저 새가이, 당돌하기는……이라고, 춘구는 생각했다. 춘구는 돌아섰다. 문득 한국에 있는 어머니가 떠올랐다. 지난 두 해 동안 뼈빠지게 일한 돈을 사기꾼한테 모두 털렸다는 소식을 듣고도 비자를 받지 못해 비행기를 타지 못했다. 북조선에서 넘어온 새가이와 남조선으로 간 어머니, 가슴이 짝 막히는 기분이었다.

“니가 당했습두?”

아파트에 도착하니 갑봉이가 놀란 눈으로 쳐다봤다. 머리며 배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춘구를 보며 삼식이가 호들갑을 떨며 물었다. 춘구는 얼른 대답하지 않고 냉장고에서 흰술(白酒)을 꺼내 배에 들이부었다.

“확실히 제졌소.”

연기와 함께 말을 내뿜었다. 충심이가 화장실에서 수건을 가져와 배와 머리에 흥건하게 배어있는 피를 훔쳐냈다. 춘구는 충심이를 밀어내고 수건으로 배를 감쌌다. 갑봉이가 정말 손을 제대로 봤는데 왜 피를 흘리냐고 물었다.

“일없소. 그 새끼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고 끝냈으니 걱정 말지요.”

갑봉이의 표정이 살짝 밝아졌다.

“우와 개새끼. 또 지 머리 치고 배 그었구만. 우와 개새끼, 독한놈. 치료하고 며칠 푹 쉽두. 봉춘이 간나아 새끼, 불맛을 봤으니 정신이 피딱 돌아오것지.”

춘구는 갑봉의 말을 들으며 소독하고 남은 흰술을 별걱별걱 마신 뒤, 손바닥으로 입술을 숙 닦고 낡은 소파에 반듯하게 누웠다. 피로가 파도처럼 몰려들었다. 피 묻은 손바닥으로 눈을 가리고 잠을 청했다.

이들이 속절없이 흘렀고 그 사이에 배의 상처가 꾸덕꾸덕 굳어갔다. 아무래도 갑봉이가 새가이들 값을 너무 올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다. 게다가 충심이도 틈만 나면 눈물을 질질 흘리며 북조선으로 보내달라며 신경을 긁었다. 그러나 충심이가 징징거리는 것보다도 갑봉이의 수다가 더 짜증났고 싫었다.

춘구는 소파에 누워 영국의 축구시합을 보며 시간을 소비했다. 특히 영국 현지에서 직파해주는 축구시합에 몰입하고 있으면 날마다 시내를 쏘다니며 부잡스럽게 놀던 송아지 친구들도 잇을 지경이었다. 하기야, 그 송아지 친구들도 이제는 빨빨이 흩어져 어떤 놈은 한국으로, 몇 놈은 청도나 연태로 가서 가요주점 뽀이로, 또 몇몇은 북경이나 상해의 식당이나 안마소에서 허드렛일이나 하고 있었다. 춘구는 안마소나 식당에서 청춘을 썩히고 싶진 않았다. 그러기엔 몸 속의 피가 너무

뜨거웠다.

“공안질 하는 큰 행님이가 처니 하나를 데리고 놀았는데…….”

삼식이의 말에 의하면, 갑봉이의 뒤를 봐주는 공안국(경찰청) 간부가 새가이를 데리고 놀다 버렸는데, 그 새가이가 임신을 했다며 돈을 주든지 아파트 한 채를 사주든지 하라며 협박을 하고 있다는 거였다. 춘구는 삼식이와 함께 그 새가이를 잡으러 나갔다. 연길서시장을 돌다가 신흥소학교 앞 전주설령탕집 앞에서 그 새가이를 만났다. 한 눈에 척 보기에 얼굴에 색기가 줄줄 흐르는 새가이였다. 삼식이가 앞에 나서서 앞을 막고 몇 마디를 하는데 그 새가이가 그만 삼식의 얼굴을 핥켜 버렸다. 삼식이가 비명을 지르며 팔짝 뛰었다. 춘구는 조용히 다가가 새가이의 머리채를 확 나꿔채고 고물 승합차에 처박았다. 삼식이가 투덜거리며 승합차를 몰고 병원으로 갔다.

“애가 들어 있는지 아이 들어 있는지 좀 봅새!”

삼식이가 말하고 춘구는 의사 앞에 그 새가이를 집어던졌다. 의사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당신들 뉘기요?”

대머리가 벗겨진 중년의 의사가 소리를 버럭 질렀다. 춘구는 의사를 뻘뻘 쳐다보다가 다짜고짜 따귀를 올려붙였다. 짹, 하는 소리와 함께 안경이 떨어졌다. 춘구는 말없이 안경을 발로 지그시 밟아버렸다. 그러자 새가이가 털썩 무릎을 꿇었다. 공포에 질린 새가이의 눈에서 눈물이 두만강처럼 흘러 내렸다. 새가이는 거짓말이라며 두 손을 싹싹 빌었다. 춘구는 무표정하게 새가이를 내려 보았다.

춘구는 새가이를 데리고 아파트로 갔다. 아파트 거실에 새가이를 내팽개치자 충심이와 미향이 비명을 질렀다. 춘구는 주방으로 가서 칼을 가지고 와서 바지춤에 쓱쓱 닦았다.

“너이, 씨발년! 애를 배지도 아이 해놓고 사기를 침두? 하야, 뭐 이런 년이 있음두? 얼굴은 반반하다 이거지비? 얼굴값을 톡톡히 받아 보겠다 이거지비? 그래 얼굴값을 주겠습두.”

삼식이가 으시딱딱 소리쳤고, 춘구는 말없이 무표정하게 칼로 새가이의 얼굴에 대고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그었다. 새가이는 몸부림을 쳤지만 삼식이가 위에서 짹 누르고 있어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칼이

지나간 자리에 가느다란 선이 생겼고, 그 선 사이로 붉은 피가 몽글몽글 배어 올랐다. 새가이한테 아무런 감정도 없었다. 하지만 춘구는 눈 하나 깜짝 앓고 침착하게 일을 해치웠다. 삼식이가 새가이를 끌고 아파트에서 나갔다. 춘구는 주방 개숫대에다 피 묻은 칼을 집어던졌다. 충심이와 미향이가 손을 잡고 서서 떨고 있었다. 일이란 본래 그런 것이었다.

4.

마침내 해림의 신흥촌에서 칠만 위안, 그 옆의 광명촌에서는 오만 위안에 사겠다는 임자가 나타났다. 위협을 무릅쓰고 기다린 보람이 있었다.

“시집을 가야 하겠습두!”

갑봉이가 말했다.

“식당에서 복무원으로 일한다고 해스리 왔는데 시집을 어찌 가겠는지? 조국으로 보내 주라우요.”

충심이가 딱 부러지게 말했다. 그 옆에서 미향이는 고개를 푹 떨고 있었고, 삼식이는 부러진 앞니를 드러내며 바람 빠지는 풍선처럼 피시식 웃고 있었다. 보름 남짓 함께 지내며 지켜봤지만, 통통한 미향이는 체념했고 키도 몸도 대추알만한 충심이는 포기하지 않고 북조선으로 가겠다며 손톱을 세우고 달려들곤 했었다. 춘구는 그러거나 말거나 아무 관심도 없었다. 빨리 팔아넘기고 돈이나 손에 넣고 연길에서 뜨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시집이 메야? 시집이? 죽으면 죽었지, 시집은 아이 가겠소.”

충심이가 소리를 지르며 뺨뺨했지만 삼식이와 춘구는 고물 승합차에 충심이를 구겨 넣었다. 미향이는 다소곳하게 뒷좌석에 앉아 펄펄 뛰는 충심이를 보며 소리없이 눈물을 흘렸다. 충심이의 울부짖는 소리를 담고 갑봉이가 모는 승합차는 목단강을 향해 새벽의 연길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연길에서 흑룡강성 목단강시로 가는 길은 좁고 구불구불하고 울퉁불퉁했다. 서서히 날이 밝아오는데 뒷좌석에서 충심이가 북조

선으로 보내달라며 아예 날뛰기 시작했다. 충심이 때문에 중간에서 허기진 배를 채울 수도 없었다. 왕청에서 영안으로 넘어가는 고갯길을 가다가 참다못한 갑봉이가 승합차를 갖길에다 세웠다.

“북조선으로 보내달라고? 장군님한테로 돌아가고 싶습두? 그럼 차 돌리지 머? 돌리자고, 돌려. 연길으 가면 공안에다 넘겨 주겠습. 공안이 니들 친절하게 호텔로 모실 거 같습두? 도문으 탈북자 감옥에다 처넣지비. 감옥으 처박혀 있으면 북조선 보위부에서 나와 니들을 끌고 가는데……, 그거이 어드메 있습두?”

말을 끊고 갑봉이는 늘 옆구리에 끼고 다니던 손가방을 열고 뒤적거리다가 뭔가를 꺼냈다. 눈알만 옆으로 돌려 슬쩍 보니 몇 장의 사진이었다.

“이거이 보라우!”

갑봉이가 내민 사진을 미향이가 먼저 보았다. 미향의 큰 눈이 점점 커지더니 손에서 사진을 떨어트렸다. 하나, 둘, 셋, 친구는 속으로 숫자를 션다. 셋과 동시에 미향이가 크게 울음을 터트렸다. 충심도 사진에 눈길을 주고 있었다. 입을 꼭 다물고 물끄러미 사진을 보는 충심의 눈도 조금씩 커지고 있었다. 잠시 뒤, 충심은 조용히 사진을 내려놓았다. 슬쩍 충심의 눈치를 본 뒤에 사진을 집었다. 숨이 탁 막혔다. 사진 속에는 콧구멍 사이의 콧날에 철사가 꿰어진 사람들이 담겨 있었다. 철사가 꿰어진 부분에서 피가 흘러 입술을 적시고 있는 여자도 보였다. 도문 변경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에도 철사코를 꿰인 사람들과 그 철사를 끌어당기고 있는 사람들이 찍혀 있었다. 마치 코뚜레를 한 소를 잡아당기는 꼬락서니였다.

“머저리 같은 것들, 니들도 이렇게 되고 싶습두? 니들이 북조선으로 돌아가면 환영대회라도 크게 열어주겠는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야. 인민들이 고난의 행군을 하는 동안에 내 배만 채우겠다고 두만강을 건너는 순간, 니년들은 모조리 창녀로 전변되는 거야. 창녀가 멘지는 알고 있습두? 다리 가랑이 벌려 구멍 팔아 먹고 사는 거이 창녀 아임두? 말해 보라우? 꿀 먹은 병어리가? 머저리 같은 것들! 니년들도 창녀가 되고 싶습두? 지금이라도 되고프면 말하라우? 찌리 몸파는 곳으로 보내주겠습. 나를 만나 다행인줄 알라우? 다른 놈들은

북조선 여자라면 무조건 창녀로 팔아치우지만 그래도 나는 시집이라도 어엿하게 보내겠다 아이 함두? 시집가는 게 메가 싫습두? 여자라면 뉘기나 어차피 시집가지 않습두? 니들 구멍도 없는 계집임두? 남자들은 좇만 있으면 장가를 가고 여자들은 구멍만 있으면 시집을 가는 거야 세상인데. 더럽고 냄새나고 말도 안 통하는 꽤놈 한쪽 남자한테 시집가는 것도 아이고 말이야. 여자 팔자란 자고로, 씹방아를 잘 찼으면 사랑받고 고와지는 법임두. 고와지면 남편한테 사랑받고…… 니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거야는 완전히 자선사업이라고. 니들 북조선에서 배때지 쫄쫄 굶다 뉘지는 거 데려다가 시집으 보내주고, 배 터지게 맥이는 건데 으째 자선사업으 아니겠습두? 자선사업은 메 손가락 빨고 하는 줄 암두? 그리고 니들 가는 데는 말이야, 새가이든 안가이든 여자들이 금덩어리처럼 귀한 곳이야. 더구나 젊은 새가이들은 아주 귀한 곳이니끼니 왕비처럼 모시고 떠받들지. 여자가 귀하니끼니, 몇년을 굶은 머저리 남자들이 열병난 것처럼 밤마다 좇 잡고 문지르다 모두 자지껍질이 벗겨질 지경이니 얼마나 잘 모시겠습두? 잔말 말고 찌리 가자우.”

갑봉이의 일장연설이 끝났다. 그 사이에 춘구는 구절초의 일을 따서 차로 올라와 씹었다. 입안 가득 쓴물이 감돌았다. 갑봉이가 다시 운전을 시작했다. 승합차 속에는 조금 전과 달리 깊은 정적이 흘렀다.

아침 열시가 넘어서자 승합차 안은 찼통으로 변해갔다. 목단강을 거쳐 해림에 도착했다. 심심하고 나른하고 재미라곤 하나도 없었던, 나이 많은 노인네처럼 속절없이 늙어가고 있으며, 당나귀와 말이 끄는 수레와 자그마한 택시가 한가롭게 떠다니고 있었고 건물들도 낡고 삭아가던 풍경 속으로 춘구는 돌아온 것이었다. 춘구의 안내에 따라 일행은 장마당으로 가서 돼지고기 볶음과 미판(米飯) 한 그릇씩을 사먹었다. 미향이 북조선 남양처럼 생겨먹은 도시라며 실망의 기색을 드러냈다. 총심은 아무 말도 없었다. 춘구는 막상 해림에 도착하자 마음이 이상하게도 착잡해지며 쓸쓸해졌다. 소를 잃어버린 외양간의 분위기가 도시 전체에서 감돌고 있었다. 그 익숙한 풍경과 분위기가 춘구는 싫었다.

해림에서 경박호 쪽으로 승합차는 달리기 시작했다. 먼저 광명촌으

로 가서 미향이를 내려놓기로 했다. 백양나무 가로수 길을 한 시간쯤 달리자 광명촌으로 들어가는 좁은 길이 나타났다. 문득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들었다. 설매(雪梅)…… 웃을 때 보조개가 깊게 패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슴을 설레게 만들었던 광명촌 출신의 여학생이 가뭇없이 떠올랐다. 광명촌의 혁명열사탑에 기대어 얼떨결에 첫 키스를 했는데 감미롭기 보다는 숨이 막혔던 기억이 지금도 입술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사랑은 그러나 중학생답게 일찍 끝났다. 학교를 졸업한 설매는 북경의 식당에 취직했다가 청도의 노래방으로 옮기더니 지금은 서울에 있다는 소식만 가끔 바람결에 실려 왔다.

멀리 광명촌의 지붕들이 거뭇거뭇 보이기 시작했다. 오래지 않아 투명한 햇살 아래 폭 삭아버린, 이제는 광명을 잃고 음지만 남은 광명촌이 불쑥 나타났다. 모든 가족이 한국으로 들어갔거나 적어도 한 집에 한 사람씩은 한국으로 들어가 불법체류자의 마을이 되어버린 광명촌이었다. 승합차가 골목길로 들어서자 마을 남자들이 피죄죄한 모습으로 슬금슬금 모여들었다. 그 사이에 합죽이가 된 할머니 몇 사람이 지팡이에 의지해 멍한 눈길로 남자들의 모습을 쳐다보고 있었다. 갑봉의 말마따나 젊은 여자는 눈을 씻고 봐도 보이지 않았다.

“내리라우.”

갑봉이가 미향이를 가리켰다. 미향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충심의 손을 꼭 잡고 놓질 않았다. 몸집이 작은 충심이 큰 몸매의 미향이를 품에 안고 마을 사람들을 표독스럽게 노려보고 있었다. 충심의 눈동자 속에는 살의가 담겨 있었다. 갑봉이가 춘구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충심은 미향이를 더욱 세게 끌어안았다. 결코 보낼 수 없다는 몸부림이었다.

“아, 씨바!”

춘구는 충심의 머리채를 우악스럽게 휘어잡고 따귀를 올려붙이려 손을 들어올렸다.

“아야, 얼굴에 자국 내지 마라우.”

갑봉의 말에 춘구는 손을 내리고 미향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충심의 품에서 떼어냈다. 울음소리와 비명이 승합차 안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삼식이가 즉시 미향이를 데리고 승합차에서 내렸다. 갑봉이는 그

사이에 마을 남자한테서 돈뭉치를 받아 손가방에 넣었고, 삼식은 머리에 개기름이 줄줄 흐르고 구멍난 셔츠를 입은 남자한테 미향이를 넘겨주었다. 남자가 미향의 손목을 잡았다. 미향의 얼굴은 마치 벌레를 씹은 것처럼 흑색으로 변했다. 갑봉이가 운전대를 잡고, 삼식이 승합차의 문을 닫았다. 그 때 미향이 남자의 손길을 뿌리치고 승합차로 달려왔다.

“머저리 같은, 미친 년!”

싸늘하게 말한 뒤에 갑봉은 승합차를 급하게 출발시켰다. 미향이 승합차를 향해 뛰어오고 마을 남자가 미향을 향해 뛰었다. 춘구는 슬쩍 그 모습을 본 뒤에 눈을 감았다.

광명촌에서 나와 다시 한 시간쯤 달렸을까, 눈을 떠보니 좁다란 산길이었다. 신흥촌으로 들어가는 도로였다. 농부 하나가 소달구지를 끌고 천천히 가고 있었다. 한 눈에 보아도 지독한 가난뱅이처럼 보였다.

“아우, 춘구석. 으째 왕청보다 더 왕청 같으네? 북조선도 이보다 낫겠다.”

갑봉이가 중얼거렸다.

“헿님이 말이 옳소. 북조선이 여계보다 낫소.”

삼식이 맛장구를 쳤다. 춘구가 보기에 한심하기 짝이 없는 마을이었다. 농사짓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논이며 밭은 텅 비어 있었고, 도로에는 온갖 짐승의 똥들이 가득했다. 열린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퀴퀴한 냄새에 자신도 모르게 구역질이 솟았다. 승합차가 마을 회관 앞에 도착하자 여기저기서 남자들이 꾸역꾸역 기어 나왔다. 세수를 하고 옷에 묻은 한 오라기 김불을 털어내는 등의 최소한의 치장에도 관심이 없는 무리들로 보였다.

“내리라우!”

춘구는 충심을 데리고 승합차에서 내렸다. 갑봉은 그 사이에 충심과 결혼하겠다고 나선 마흔 줄의 남자한테 돈을 받고 있었다. 남자의 앞니는 부러져 보이지 않았고, 부러진 이 사이로 깊고 검은 동굴이 보이는 느낌이 들었다. 가까이 가니 얼마나 오래 씻지 않았는지 돼지냄새가 확 풍겼다. 그 남자가 충심을 보더니 씨익 웃었다. 코밑에서 엉겨있는 염소 수염 아래로 누런 이가 보였다.

“잘 살라우!”

갑봉이가 충심의 손을 잡아 그 남자한테 넘겨주며 말했다. 돌아서서 친구는 담배에 불을 붙였다.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충심을 구경하고 있었다. 충심이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모르며 울상을 지었다. 갑봉이가 승합차로 돌아가 방향을 돌리고 있었다. 친구는 마을회관 옆으로 흘러가는 농수로와 축축 늘어져 있는 버드나무를 보며 연기를 뿜어냈다. 갑봉이가 어서 오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 소리를 듣고 두어 번 깊게 담배를 빨아댄 다음에 콩초를 농수로에다 튕겨버렸다. 충심을 슬쩍 본 뒤에 친구는 승합차를 향해 걸어갔다.

“야, 개새끼야! 이런 데다 팔면 으찌 함두? 차라리 니가 데리고 가!”

충심의 악을 쓰는 소리에 친구는 걸음을 멈칫거렸다. 충심의 말이 깨진 맥주병처럼 등을 찔렀다. 문득 배꼽 아래의 흉터가 발악하듯이 가렵기 시작했다. 친구는 아랫입술을 지그시 깨물고 다시 승합차를 향해 걸었다.

“야, 야! 개새끼야! 니가 데리고 가란 말이야! 니가 데리고 가야!”

친구는 승합차 문을 열었다. 돌아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발, 제발! 날 여게 두고 가지 마! 제발알!”

승합차 문을 닫았다. 승합차가 서서히 움직이자 친구는 자신도 모르게 옆 거울을 보았다. 충심이가 남자의 손을 뿌리치고 승합차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 것이 거울 속에 담겨 있었다. 거울 속에서 충심이는 점점 커지고 있었다. 하지만 승합차가 속도를 올리자 가뭇없이 작아지고 있었다. 친구는 옆거울에서 눈을 떴다. 그러자 신흥촌의 모든 풍경이 순식간에 지워졌다. 가슴이 서늘해졌다.

정도상 : 소설가, 1987년 <15방 이야기>로 등단, 소설집 <친구는 멀리 갔어도>외 다수,
2003년 장편소설 <누망>으로 단재문학상 수상,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창학부 교수

전생으로 가는 길에 대한 안내

임영태

시작은 이렇다.

어느 날 이상한 기운 하나가 새벽녘에 들이쾅 찬물처럼 서늘하게 스며들 것이다.

무엇이었지? 처음엔 이런 되새김을 할 사이도 없이 순식간에 파장이 사라지겠지만, 차츰 비슷한 느낌이 거듭되면서 길거리 한복판에서 우뚝 걸음을 멈추게 되곤 할 것이다. 그리하여 자기도 모르게 한순간 골똥해진다. 바람이었는지, 소리였는지, 빛이었는지, 자기를 건드리고 지나간 것이 무엇인지 몰라, 아니, 외부의 자극이었는지 자기 몸 안에서 올라온 것인지조차 알 수 없어 기분만 잠시 아뻏해진다. 우두커니 서 있게 된다.

그리하여 무심코 주변을 한번 둘러보게 되면, 그때 아마 기시감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자신을 둘러싼 공간 구도가, 사물의 배치가, 저마다 바쁜 행인들의 발걸음이 매우 낮익다는, 전에도 언젠가 이런 식으로 몽롱하게 서 있어본 듯하다는 느낌이 다가올 것이다. 기시감이란 게 대개 그렇지만, 그 순간 그대 가슴에 내려앉는 건 아련한 그리움이거나 속절없이 무기력해지는 슬픔 그런 것이리라.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그런 현상이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간헐적

으로 반복된다. 아직 예감은 없다. 여전히 그대는 이런 현상을 몸이 피곤하거나 잠이 부족한 탓으로 돌릴 뿐 모종의 예고라고는 짐작조차 하지 못한다. 그러나 차츰 심리적 과장의 농도가 강해진다. 더불어 감정의 변화도 일순간에 그치지 않고 제법 긴 후유증을 남기며 일상의 정서를 교란시킨다. 몸이 아니라 정신상의 문제라는 생각은 적어도 분명해지고, 크게 불안하진 않겠지만 가능한 한 빨리 문제의 본질을 찾아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리라는 생각도 수시로 하게 될 것이다.

내 경우를 예로 들면 이렇다.

그것은 어느 날의 느슨한 오후에 시작되었다. 어떤 대수롭지 않은 모임에 참석했다가 목지근한 피로감을 안고 귀가하던 길이었는데, 버스를 타고 원효로인가 용산 어름을 지날 때였다고 기억한다.

잠시 정차했던 버스가 막 출발하려 할 때 무심하게 흘끗 건네 본 차창 밖의 어느 점포가, 무슨 점포였던가.....격자 유리창을 끼운 미닫이틀의 나무문짝과 그 안에 유리 진열대 하나만 얼핏 보았을 뿐 정작 파는 물건이나 간판 따위는 눈에 담을 틈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본 건 격자 유리창이나 나무문짝이라기보다 차라리 그 부연 유리창 안쪽의 어떤 그늘 혹은 어떤 빛살이었을 터인데, 무엇이었거나 짧은 순간 맞부딪친 특이할 것 하나 없는 그 단조로운 구도가 내 마음을 한순간 저릿하게 흔들어 버렸다.

어떤 표정, 어떤 소리, 어떤 손짓을 본 듯하다는 막연한 느낌이 가슴에 남았다. 몸은 그저 무기력해져서 떠있는 듯 가라앉는 듯 무슨 깊은 구멍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기만 했으며, 흐득흐득! 얽은 한숨 이거나 신음 같은 것이 사르르 끓어올라서는 목울대 근처에서 자박거렸다.

그 날 이후 나는 빈번히 그런 식의 느닷없는 상면을 하게 되는 것으로, 포획이랄지 포착이랄지 무심한 시선에 무엇 하나가 툭 걸려서는 우뚝 걸음을 세우게 만들고, 그것에 푹푹이 젖어 잠시 불규칙한 호흡을 고르고 나면 우선 당장엔 그것뿐이긴 했으나 그런 날의 나머지 시간은 아! 아득하고 아득하여서 허청하니 멀건 눈이나 습벅거릴 뿐 내 내 아무 일도 손에 잡을 수 없고는 하였다.

하기야 흔한 일이다. 어느 대문, 어느 골목, 혹은 주변의 어떤 정황

이나 어떤 구도가 매우 낮익다는 느낌에 사로잡히는 경우란 누구에게도 종종 있는 법이어서 일컬어 경험의 순환이라거나 더 심오한 표현으로는 몽중일여라고도 하는 것이지만, 삶은 그렇듯 시시각각 되풀이 되는 것이지만, 어쨌거나 나는 좀 더 심각했다고 할 만한 것이 그 몇 달 시도 때도 없이 거리 곳곳에서 부지불식 야릇한 낮익음에 취했던 것으로, 까닭을 알 수 없는 조바심만 휘리릭 차오르곤 했던 것으로, 그러면 그 깊은 서늘함, 마침내 정서적 공황이 시작되면서 한순간 나는 희읍스레한 주황색 기운에 둘러싸이기도 했던 것이니, 그런 날의 주황색이란 어찌나 슬프고 기이하던지 차츰 나는 무엇을 보거나 안 보거나 온통 사무치게 쓸쓸하여 갔다.

결국 그대 또한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예감의 현현이었음을, 자기 생에 스며든 어떤 다른 생이었음을, 돌아가 만나야 할, 끝내지 못하고 온 전생의 호출이었음을.

대개 그것은 그대 입에서 불쑥 내질러지는 어떤 말 하나로 시작된다. 그 말이 어디로부터 날아왔는지는 아직 불분명하겠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심장한 상징성, 그 말이 전해주는 절박한 호소만큼은 가슴 전체로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이윽고 그대는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어떻게 떠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조만간 스스로 알게 되리라는 것도 알게 된다. 그대는 이미 그 생의 문 앞에서 서 있는 것이다.

낭하! 하고 어느 날 나는 중얼거렸다. 툭 튀어나온 말이었다. 그 한마디가 열쇠이고 통로이며 마지막 바람소리였다. 나는 내가 막 예감의 긴 터널을 빠져나왔으며 새로운 한 생 앞에서 서 있음을 알았다.

종각 전철역에서 1번 출구로 나와 교보빌딩 방향으로 오십 미터쯤 가면 이른바 청진동 해장국 골목이라고 부르는 칠팔 미터 너비의 나쁜 도로가 나온다. 시절이 다 하여 지금은 두어 곳의 해장국집만 저마다 ‘원조’로 남아있는 이 길을 죽 걸어올라 종로구청이 맞은편에 보이는 네거리에서 오른쪽 모퉁이로 꺾어지면 바로 횡단보도가 나타나는데, 그 횡단보도를 건너 하나은행 담을 끼고 다시 좁은 골목으로 들어서면 조계사가 저 앞에 보인다.

전에는 골목으로 들어서자마자 한국일보사 사옥 꼭대기의 원통형 탑이 저만치 일직선으로 바라보여 이정표 구실을 했으나 지금은 석탄 회관과 대한재보험 빌딩에 가려 한참이나 걸어 들어가야만 보일 것이고, 또 전에는 숙명여중고와 중동중고등학교가 그 안쪽에 있어 조계사 주변으로 문방구가 여러 개 있었고 학생들의 발길이 그치질 않았지만, 지금은 두 학교 모두 강남으로 옮겨 가 주로 근처 빌딩의 양복쟁이 샐러리맨들과 먹물웃 걸친 스님들만 오간다.

이 길로 삼십 미터쯤 들어가 수송장모텔을 끼고 다시 오른쪽 골목으로 들어서면 모텔 맞은편에 조계종참선회와 노래방이 들어 있는 조금 허름한 건물이 있고, 이 건물을 지나쳐 삼오모텔 앞에서 왼쪽으로 돌면 대중사우나 바로 뒷길 안쪽에 한눈에도 백 년은 묵었구나 짐작 되는 3층짜리 붉은 벽돌 건물이 있다.

그 앞에서 나는 길고 어두운 복도를 생각하였다.

늘 침울하게 닫혀 있는 몇 개의 문들, 길가에 면한 작은 격자창으로 스며드는 옅은 햇빛, 걸을 때마다 투웅 투웅 발끝에 튕겨 오르는 가벼운 공명, 문 안쪽의 나지막한 수군거림, 웃음소리, 걸상 끄는 소리, 복도 저 끝에 괴어 있는 적막한 그늘.

어느 날 ‘남하’ 라고 처음 중얼거렸을 때, 누가 던져 준 것처럼 그 단어가 특 튀어 올라왔던 그 때, 예감으로 서늘했던 지난 몇 달간의 긴장감이 일시에 녹아내리며 무엇 하나가 내 속으로 들어왔다. 그러자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나는 일점 의혹도 없이 단숨에 알아차렸다. 벼락같은 해찰이라지만 사실 뒤이어 떠오르는 다른 기억은 전혀 없었고 다만 길고 어두운 복도 하나가 선연히 추억되었다.

그것이면 되었다. 삶은 언제나 모호하지만 속명은 결국 단 한순간으로 접촉되는 법.

예컨대 남하였다고, 길고 어두운 복도 하나가 선연히 추억되었다고 내가 말하고 있는데, 단숨에 무얼 알아차렸다고 또 말한 것 같은데, 차마! 그렇듯 차마라고 말해야 할 삶들이 결국엔 있는 것이어서, 그러니까 어두운 복도의 흔적 하나로 그 순간 내가 자지러지게 슬퍼하며 내 또 다른 생의 종료되지 못한 운명과 상면했다고 나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겠다.

그 상면 이후 며칠을 흐느적거리며 돌아다닐 때에 나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 하기가 들리는 것도 보이는 것도 없어 마음은 오직 길고 어두운 낭하에만 붙잡혀 있었고, 거리 한 모퉁이를 꺾어 돌 때마다 무언가 조금씩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고, 말하자면 나는 무작정이 아니라 무언가에 이끌려 걸음을 재촉했던 것으로, 사흘이 지나자 마침내 그 건물 앞에 세워졌다. 나의 낭하는, 이라고 말해도 좋다면 나의 낭하는, 바로 그 건물 안에 길게 누워 있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담배 한 대를 빼물며, 마지막? 서른 몇 해를 살아와 이제는 제법 익숙해진 이 도시의 습습한 밤공기와 낭자한 소음들을 호흡하였다.

참으로 낯았구나. 황망한 우울이구나. 지금은 밤인데도 붉은 벽돌의 희끗희끗 벗겨진 속살들이 눈에 시리고, 세월의 권위보다 먼저 저 황망한 우울이 차게 일어서는데, 연민인 것인데, 연민은 가끔 꿈보다 그윽한 것이건만, 이 연민은 무엇을 향하여 쫓는 것인지.....달빛만 츠르렁 걸려 있는 낡은 건물 앞에서 나는 것처럼 담배 두 대를 연거푸 피지 않았겠는가. 결단의 시간이었던 것이다.

장난처럼 현관은 턱하니 열려 있어 나는 소리 없이 스며들어 계단을 올랐고, 그리하여 스스로 마치 유명인 듯한 착각마저 들지 않았으랴. 저 밖으론 길 건너 모텔 건물의 붉은 빛 네온이 번질거리고 큰길에 내달리는 자동차 소리도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었다.

침울히 닫혀 있는 몇 개의 문들을 스름스름 건네 보고 휘부연한 바닥을 눈길처럼 찍으며 저기 끝방으로 걸어갔다. 이미 다른 세상인 것을 알았다. 여전히 내 몸체는 무엇 하나 변하지 않았고 방금 전에 걸어 오르던 계단을 또 생생히 기억하지만, 이제는 저 문 안으로 들어서는 것 말고 내게 다른 길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문을 열고 한 걸음 디더 이윽고 눈을 떴을 때, 그러니까 나는 아마 잠깐 눈을 감았던 것 같은데, 안구 이식 후의 환자마냥 조심스레 눈꺼풀을 들어 올리자 시커먼 어둠이 흑 몸에 덮쳐왔다.

얼마 후에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면서 어둠 저 안쪽으로부터 몇 개의 물체들이 슬그머니 걸어 나오는 것이 보였다. 그것들은 마치 덮씩 워져 있던 여러 겹의 천이 하나씩 벗겨지듯, 처음엔 그저 어스레한 운

곽뿐이다가 차츰 무엇이랴 이름 붙일 수 있는 하나의 모양으로 드러나면서 찰카닥 찰카닥 자기 자리를 잡았다.

찰카닥 찰카닥, 그런 소리를 분명히 들었다싶게 물체들의 출현은 조금 생급스러웠다는 느낌이다. 물론 찰카닥 소리 따위는 없었다. 하기는 어둠 속에서 나타날 때면, 안개라거나 강물이라거나 구름이라거나 하는 것들 속에서 나타날 때면, 그 존재가 기껏 미풍에 눕는 풀잎 하나일지라도 것처럼 자기 현현을 알리는 소리 하나쯤은 깔고 나타나는 법이다. ‘찰카닥’은 그러니까 소리가 아니라 소리줄의 공명이겠다.

물체는, 방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침대와 조그만 원형 탁자, 다섯 자 높이의 책장이 각각 하나였다. 아이들 그림에 나올 만한 발전자(田) 모양의 창 하나가 바로 맞은편에 보였고, 창턱에는 늦쇠 주전자 옆으로 수석 서너 개가 가지런했으며, 어지러이 흩어진 편지와 필기구 몇 자루가 꽃혀 있는 컵 모양의 둥그스름한 필통이 덩그마니 놓여 있었다.

창문 밖은 온통 새카만 어둠인데 천장으로부터지 바닥으로부터지 푸르스름한 빛살이 연하게 새어나오고 있어 보이는 것 모두가 허공에 잠시 떠 있다는 느낌이었다.

나는 일 분쯤 가만히 서 있었다.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달았던가, 문은 어느 새 닫혀 있었다.

이윽고, 기억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눈앞에 보이는 평범하고 단출한 집기들 하나하나가 제 안의 세월을 추스르며 소리 없이 되살아나 내게 무언가 말을 하기 시작했다. 아니다. 그보다 먼저 푸르스름한 빛살의 입자 하나하나가 어떤 소리와 빛깔과 냄새를 품은 채 내 몸속으로, 그러니까 내 살과 뼈와 피와 정신속으로 가차 없이 밀려들었다. 하나의 전이(轉移)라는 걸 나는 느낄 수 있었다. 기억의 전이였고, 존재의 전이였고, 다른 生의 전이였다.

처음엔, 기억은 기억으로만 다가와 그저 툭 떨어진 도토리 한 알처럼 생경하고 낯설더니, 차츰 기억은 무늬와 색깔과 소리로 형상화되어 내 안의 이전 기억들을 소멸시키며 그 빈자리를 차지했다. 처음엔, 나는 그 기이한 전이 작용에 남의 일처럼 덩뎡했다. 아주 잠깐 동안은 그랬다. 하! 가벼운 탄성을 내지르며 나는 그저 낯선 기류에 내 몸이

갑싸이고 있다는 느낌에만 집착했다. 그래서 나스하게 조여 오는 긴장감에 몸을 맡겨둔 채 떨거니 서 있기만 했다.

그러나 이내 무서운 속도로 모든 게 변하기 시작했다. 기억이, 기억의 입자라 말할 수 있다면 기억의 입자들이, 제각각 생생한 정서로 치환되며 내 안으로 스며들었던 것으로, 그러자 소리는 소리대로, 색깔은 색깔대로, 냄새는 냄새대로, 구체적인 자기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내 안에서 되살아났다.

나는 차츰 혈떡거렸다. 치환의 매 순간 팽팽한 긴장으로 가슴이 뻐근했으며, 이내 어떤 다른 생각의 여지도 없는 아주 생생한 동요가 나를 뒤흔들었다. 그런가? 그런가? 라고 숨 가쁘게 되뇌면서 나는 몸서리치는 전이의 한가운데에서 파들파들 떨었다. 온통 사무쳤다. 사무치게 고독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갑자기 모든 게 분명해졌다. 나는 나의 또 다른 생으로 건너와 있었다. 한때 내 영혼이 자기 숨결을 의탁했던 또 다른 시간, 단순히 시간만의 과거가 아니라 온전히 자기 우주로 정지돼 있어 그 자체로 유일무이한 또 하나의 삶, 내 영혼의 또 다른 거푸집, 일컬어 전생이라 말하는 그 시공간으로 복귀해 있음을 나는 알아차렸다.

어슴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선득했다. 창문이 열려 있었다. 멀리 가스등 하나가 보였고, 뽕족한 지붕도 보였고,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듯한 시큼한 냄새가 방안에 가득했다. 비로소 내 눈 앞의 사물과 정경은 푸르스름하고 아득한 영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존의 자태로 선명해지고 있었다.

나는 방을 질러가 창문을 닫았다. 하수구 냄새가 옅어졌다. 수석 한 개를 들어 잠깐 쓰다듬었고, 그 섬뜩한 한기에 진저리치며 얼른 놓아버리고는 원형탁자 앞으로 가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나무로 된 의자가 생생하게 뼈저덕거렸다. 그러니까, 모든 게 생생했다.

친구는 어디 갔을까?

가장 먼저 내가 생각한 건 그것이었다. 그러니까, 한 친구가 있었던 것이다. 한 삶이 있었으니 하기가 어찌 친구 하나만 있었으랴. 몇 명의 역센 남자와, 아이와, 노인과, 휘파람 소리와, 흐느낌과, 전차 소

리와, 바닷가의 태양과, 찬 새벽이 있었다. 그리고 누군가 죽었다.

나는 불현듯 알고 만다. 전생도 또한 추억이지만 그러나 과거라는 시간은 따로 없음을. 다만 시간의 층위로 갈라지는 무수한 생이 있음을. 매순간, 아주 사소한 조바심이거나 나락 같은 절망이거나, 갈등하는 그 순간마다 다른 시간이 펼쳐지고 그리하여 한 영혼은 무량대수의 생을 받는 것이니, 존재는 시간 없이 존재할 수 없어 각각의 실존은 스스로의 시간에 남고, 신은 각각의 시간에 불멸로 현존하고, 속명은 그리하여 시간마다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친구는 어디 갔을까? 다시 그런 생각을 한다.

수없이 이 방을 드나들었다는 걸 좀 더 분명하게 실감하며, 창으로 들어온 햇살이 우울하게 머물던 자리와, 이웃 방들의 말소리 그 가랑가랑한 속삭임까지 선연히 귀에 담는다. 내 삶에 속한 무늬들이여, 너무 친숙하여 불쑥 소름마저 돋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들어와 있으면서 여전히 밖에 있기도 하다. 두 개의 다른 삶이 물결처럼 하나로 섞였다가 얽은 막으로 갈라지고는 한다. 이제 말하는데, 한 생은 각기 자기 시간 안에서 스스로 완결되며, 존재는 시간 밖에서 영속한다. 존재의 결핍감이란 그러니 시간에 대한 그리움으로, 존재는 각각의 생에 자기 성숙을 의탁하며 스스로는 한없이 유예의 날을 지켜 간다.

아아! 실존의 사무침이여, 시간을 타고 도는 떠돌이여.

결단의 시간에 대해 한번 언급 한 것을 기억할 것이다. 몇 주 혹은 몇 달에 걸친 몽롱한 설렘의 시간을 지나 마침내 전생으로 통하는 입구와 마주했다면 이제 그대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것은 소풍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기가 소풍이라는 말도 꽤 그럴싸하긴 하여 생을 되돌리는 그 기이한 나들이에 짐짓 유쾌한 기대감을 담아 소풍이라 말해보는 것도 나쁠 건 없지만, 이것 하나는 분명히 알아 두어야 한다. 그대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

이제 사람이 삼계육도를 돌며 생사를 거둬보는 윤회의 의미를 알아둘 때가 되었다. 업의 정화를 위해서가 아니다. 업은 쌓이고 또 쌓일 뿐, 정화되어야 할 그 무엇이 아니다. 사람은 끝없이 업을 쌓고, 그

업 위에서 존재성을 갱신한다. 사과나무에는 매년 새로운 사과가 열린다. 올해의 사과는 지난해의 사과와 다른 존재이지만 지난해의 사과와 연결돼 있다. 간단히 말한다. 사람은 배우기 위해 생사를 거듭한다. 무엇을 배우는가? 지난 생에서는 배울 기회를 갖지 못했던 것들이다. 그리하여 윤희란 학년이 올라 새로운 교과서를 받아드는 것과 같은 일이다.

그러나 알아야 한다. 사과는 매년 계속해서 더 맛있어지지는 않는다. 사람도 그리하여, 이번 생이 지난 생보다 완성에 더 가까운 건 아니다. 지난 생에 배우지 못한 걸 배울 뿐이다. 그리하여 배우고 또 배우면 언젠가는 더 이상 배우지 않아도 될 때가 오는가? 그것은 아직 말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그대가 돌아가게 될 전생을 말하는 시간이다.

지난 생에 배웠어야 하나 배우지 못해, 모든 이에게 그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매우 희귀한 기회가 지금 그대에게 허락되었다. 그대는 돌아가 다시 배울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배우면 돌아와 이 생의 나머지 몫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시 돌아간 그 생에서 이번에도 역시 배우지 못한다면, 그것은 죽기 전엔 알 수 없다, 그리하여 돌아간 그 시절 거기에서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다.

이번 생, 지금의 기억과 존재감, 지금의 그대 삶을 이루고 있는 모든 인연과 여전히 가슴속 어딘가에 박혀 그대를 그대에게 하는 기쁘고 슬펐던 날의 기억들, 이 시대의 골목길에 내리는 빗소리와 빌딩 유리창에 반짝거리는 오후의 햇살과 아침 출근길의 저 부산하고 생동감 넘치는 풍경들, 대중사우나의 안온한 휴식과 월드컵의 흥분과 인터넷 서핑, 오늘 거울에 비치는 그대 얼굴마저 순식간에 아스라한 추억으로만 남게 될 것이다.

결단이 필요한 까닭이 그것이다. 자신 없으면 전생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좋다. 우리의 삶이 늘 그렇듯 어떤 불행도 희열도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사람은 자기 운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번 길 역시 그런 수많은 선택 중의 하나일 뿐. 결단하라!

문제는 또 있다. 그대가 만약 제대로 배워 그 생의 의미를 완성시키게 된다면, 그리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처럼 이번 생으로의 회귀의 문

앞에 서게 된다면, 그때 역시 그대는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될 터이다.

그때 돌아오는 일은 지금 떠나는 일과는 다르다. 지금 떠나는 건 희미한 가능성이나마 기약을 두고 떠나는 일이다. 의무를 다하기 위해 거친 바다로 나서는 뱃사람처럼, 꼭 돌아오리라는, 돌아와야만 한다는 다짐을 가슴에 품고 비장하되 희망과 기다림의 여지를 두고 떠나는 여정이지만, 그때 눈앞에 보이는 문은 다시는 돌아서지 못할 문이다.

지금은 이 생을 버린다는 마음 없이 갈 수 있지만, 그때는 그 생의 세계와 완벽히 작별하여야 한다. 그대는 다시 가지 못한다. 기억은 통렬한 고통이 되어 화인으로 남을 것이다. 두 개의 생을 저울질 하고 싶지 않다면 얇은 호기심 따위로 전생의 문을 두드릴 일이 아니다. 말하건대, 사람은 사실 두 개의 세계를 감당할 만한 존재가 처음부터 아닌 것이다. 신조차 하나의 세계만 가지고 있다. 오직 악마만이 두 개의 세계를 희롱한다.

아무튼 그대가 전생으로 돌아간다면 그 즉시 인생의 전이가 시작될 터인데, 예컨대, 그대의 기억과 감정과 성격과 사소한 버릇까지도 전생의 그것으로 완전히 바뀌어서는 도착해 있는 그 시공간 이후의 삶을 다시 반복하게 될 것이다. 반복은 아니다. 한 번 살았던 일들과 이번 생의 경험까지 더 해 그대 영혼의 주체의식은 무언가 달라져 있을 터, 그것이 작용을 미쳐 그대의 정서적 반응과 행위들은 미세하게나마 조금 다르게 움직여 갈 것이다. 물론 전생의 삶을 100%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도 여전하다. 행위가 또 행위를 만들고, 감정이 또 감정을 만들고, 그 사이사이 틈새에 영혼의 주체의식이 얼마만큼 작용하고 어디로 이끌어 갈지는 신도 모르는 일이다. 예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이렇게 하면 나는 어떻게 돌아왔을까?

얼마 후에 친구가 방으로 들어왔다. 친구의 얼굴을 보자 그에 대한 감정이 선명해졌는데, 그는 내가 그다지 호감을 갖고 있는 친구는 아니었다. 그러나 함께 어울리는 데에 큰 부담도 없는 친구여서 맥주를 마시다가 조금 취하기라도 할 때면 별로 비밀도 없는 내 생활에 대해

주절주절 들려주기도 할 정도로는 가깝게 지내고 있는 사이였다.

그리하여 나는 그가 나에게 대하여 어디까지 알고 있는가를 물론 아는 것인데, 내가 평범한 하급 샐러리맨이라는 것과 얼마 전 양로원으로부터 전보를 받아 회사에 이틀간 휴가를 내고는 3년 동안 양로원에 머물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른 일과, 그 이튿날 해수욕을 즐기고 희극영화를 보며 함께 낄낄거리고는 한바탕 정사를 치른 여자를, 그 여자와 결혼해 버릴 수도 있었던 일들을 그는 아는 것이다.

친구와 나는 바닷가로 놀러갔다. 거기에서 친구가 한 아랍 사람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았고, 어떤 일인지 내 주머니에는 권총이 들어 있었는데, 태양이 너무 따가워서, 미치도록 강렬하여서, 나는 그만 아랍 사람을 쏘아 버렸다. 곧 체포되었고, 이후 지루한 일들이 계속되었지만 나는 재판관에게도, 검사에게도, 변호사에게도, 권총을 쏜 일에 대하여 태양 말고는 어떤 이유도 말할 수 없었다.

그들은 어머니의 장례식 이후 내 일련의 행위들을 이해할 수 없는 모양이었다. 하지만 곧, 살인동기를 밝혀내기 위하여 검사는 내가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른 이후부터 바닷가에 놀러가 살인을 하기까지 내 감정과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면밀하게 유추하였다. 배심원들은 그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거렸다. 나는 내가 했다는 행동과 검사가 법정에서 재구성한 나의 범죄 사이에 아무런 연관성도 찾아낼 수 없어서 그저 방관자가 되었다. 사람들이 나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을 지켜보는 수밖에는 없었다.

재판은 간단히 끝났다.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면 사람들이 갑자기 나를 다 알아버렸다. 사람들에게 나의 행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단순하고 명백한 것이었던 모양이다. 인간 말종의 뻔뻔한 살인 행위, 그것이였다.

나는 사형 판결을 받았다. 회계를 도와 줄 교회신부는 부르지 않았다.

사형 전날, 나는 행복하지도 불행하지도 않았다. 내가 불행하지 않다는 것이 사람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드는 것 같았다. 상관없는 일이었다. 남들의 기분에 조바심치는 사형수는 없다. 이상한 것은, 장례식에서도 떠오르지 않았던 어머니의 젊은 날의 얼굴이 불쑥 떠올랐다는

것이다. 그러자 나는 문득 무엇 하나를 알아차렸다. 어머니가 나를 사랑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그 때문에 그 여인은 더욱 불행했을 것이다. 사랑은 사람을 슬프게 만드니까. 그 밤, 어머니 때문에 나는 조금 울었다.

사형이 집행되기로 한 날 새벽, 차가운 벽돌 사이로 문이 나타났다. 복귀의 문이 열렸을 때, 믿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 생으로 돌아오고 싶지 않았다. 나는 나의 시대를 끔찍이 사랑하였다. 그 세상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었다.

자기 시대를 사랑하지 않는 이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사람들은 종종 잊어버린다. 자살자라도 그러하다. 세상을 경멸하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 사람이 죽는 것은 늘 무언가에 대한 사랑 때문이다. 사형수라도 그러하다. 돌아오고 싶지 않았다. 사형수를 구경하러 모여든 군중들의 증오와 경멸에 찬 표정을 그 세상에 남아 보았어야만 했다. 하기야 이미 보았었는지도 모른다. 그것은 두 번째 사형이었는지 모른다. 그렇다면 나는 아마 배우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면 복귀의 문은 대체 어떻게 열린 것일까? 내가 배운 건 무엇이 있었을까?

시작은 이렇다.

어느 날 아주 이상한 기운 하나가 새벽녘에 들이켠 찬물처럼 서늘하게 스며들 것이다. 무엇이었지? 처음엔 이런 되새김을 할 사이도 없이 순식간에 파장이 사라지겠지만, 차츰 비슷한 느낌이 거듭되면서 길거리 한복판에서 우뚝 걸음을 멈추게 되곤 할 것이다. 그럴 때 만약 그대가 납다르게 예민하다면 어디선가 들려오는 울음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호출은 늘 그대가 미처 듣지 못했던 울음소리로부터 시작된다.

임영태 : 소설가, 1992년 문화일보 신춘문예 <추운 나라의 사람들> 당선 등단,
1994년 장편 <우리는 사람이 아니었어>로 '오늘의 작가상' 수상,
작품 <문 밖의 신화>외 다수,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창학부 교수

어느 휴양지에서

이명량

눈이 부셔 당신은 얼마간 얼이 빠져 있었다. 거 왜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은가? 제 집이 남의 집처럼 느껴지거나 손 때 묻은 커피 잔 따위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 전화벨 소리에 잠이 깬을 때, 당신은 바로 그런 순간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 날, 정오 무렵의 햇빛은 커튼을 치지 않은 창으로 곧장 쏟아져 들어와 당신이 누워 있는 침대 정면에 놓여 있는 텔레비전 주위에서 어른거리고 있었다. 전원이 꺼져 있는 텔레비전의 모니터 가득 당신의 얼굴이 들어 있었다. 텔레비전 주위에서 어른거리던 햇빛이 모니터 속의 당신의 얼굴 위로 윤기를 흐르게 했다. 서른다섯 해를 살아오는 동안 당신은 한 번도 무대 위로 호명당해 본적이 없다. 당신을 향해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조명을 받아본 적도 없다.

그래서였을까?

그 순간의 당신에게는 햇빛을 받아 번들거리는 당신의 얼굴이 낯설기만 했다. 어찌 되었든 그 얼굴은 햇빛의 조화로 어딘지 들떠 보였으며 생기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 당신은 좀처럼 햇빛을 볼 일이 없었고, 그래서 어쩌다 거울 속의 핏기 없는 얼굴에 눈이 멎을 때면 당신 스스로도 어딘지 우울해 보이는 얼굴이군, 하며 혼잣말을 하곤 했던

것이다.

자신의 얼굴이 갑자기 낮설어 보일 때, 주변의 사물들, 익숙했던 모든 것들은 남의 집에 들어가 도둑질해서 훔쳐다 놓은 장물처럼 느껴졌고, 여기가 대체 어딘가? 한동안 얼이 빠져 있던 당신은 머리맡에서 울려대는 전화벨 소리를 깨닫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다. 당신은 남의 집에 들어왔다 무언가를 잘못 만져 사이렌이 울리자 허둥대는 도둑처럼 사방으로 눈알을 굴려댔고, 벌떡 일어나 수화기를 집어 들었다.

여보세요?

당신은 끝이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등기 우편이 와 있으니 내려와서 찾아가라, 아파트 경비는 용건만 말하고는 당신이 미처 되물음 사이도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다.

당신은 다시 침대로 올라가 누웠다. 이미 잠은 달아났다. 별수 없이 일어나야겠군, 당신은 경비실로 내려갔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멈춰 설 때까지 실은 조금 설레기도 했다.

등기우편이라니?

당신은 특정 잡지책의 정기 구독자도 아니었으며 홈쇼핑이나 인터넷으로 상품을 구입하는 고객도 아니었다. 우편물을 찾으러 갈 일이라고는 없었다.

나이드 꽤 들어 보이는데..... 뭐하다 그리 늦었나?

아파트 경비는 우편물을 찾으러 내려온 당신에게 봉투를 넘겨주며 당신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당신도 경비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봉투를 받아들였다.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3층까지 올라오는 동안에도 실없는 웃음은 계속되었다.

이 나이에 영장이라니?

당신은 입영 영장에 찍어있는 김성식, 이라는 이름 석 자를 내려다 보며 키득거렸다.

이런 식의 실수라면 얼마든지 환영해야겠군.

단조로운 생활을 하던 당신에게는 잘못 날아온 입영 영장이 뜻밖의 선물처럼 느껴지기까지 했다. 병무청에 전화를 걸기 전까지는 그랬다는 말이다.

병무청 담당 직원과의 통화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안내 방송이 나오고 안내 방송에 따라 버튼을 몇 차례나 눌렀지만 전화는 꾸꾸꾸, 통화중 신호로 넘어가다 끊어버리곤 했다. 며칠 전 출근길에 라디오에서 들었던 뉴스가 떠올랐다. 한 사내가 이동통신사인지 보험회사인지에서 잘못 날아온 요금 고지서 때문에 전화를 했다던가? 계속해서 안내 방송이 나오고 쉽게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자 그 사내는 차를 몰고 나가 그 회사의 건물을 그대로 들이받아 버렸다고 했다. 하루 종일 오십 번도 넘게 전화를 걸다 끝내는 화를 참지 못하고 그런 일을 저질러버린 사내. 그 사내의 행동에 대해 전문가들은 여러 의견을 내놓았다. 현대인은 참을성이 없다, 현대인은 왜 참을성이 없을까? 사회가 바빠 돌아가다 보니 바빠 돌아가는 사회가 현대인을 미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아니다. 그 사내는 원래 정신병자다. 엇갈리는 의견 속에서도 뚜렷한 사실 한 가지는 그 사내가 이제 범법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 오후에 당신은 그렇게 통화중 신호만 내보내는 전화기를 들고 앉아 있었고, 라디오 뉴스를 떠올렸고, 범법자가 되는 것도 별 거 아니군, 혼잣말을 하다 제 것이 아닌, 잘못 배달되어 온 입영 영장을 들여다보고 있는 스스로가 우스워서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입영 영장은 되는대로 아무렇게나 옆으로 밀어버렸다.

13시 09분.

당신은 다시 잠을 청하기로 했다. 뒤척임 끝에 당신은 간신히 잠들 수 있었다. 꿈속에서 당신은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다. 저 멀리로 보이는 검은 형체를 향해 앞으로 발을 내딛을 때마다 당신 군화에 밟힌 잡풀들이 서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서걱서걱서걱, 되풀이되는 그 소리의 단조로움이 당신의 발걸음을 재촉했다. 쏠 수 있을까. 아마도 그러리라. 쏠 수 있을까. 그렇게 되겠지. 당신은 방아쇠를 당길 준비를 했다. 어둠 속에 매복하고 있는 적을 향해 나아갈 때, 생각은 돋보기 끝에 모아진 한 점 햇살처럼 단순해진다. 쏘리라. 적은, 등 돌리고 서 있다 당신을 향해 날아올랐다. 갑작스러운 비상에 놀라 당신은 뒤로 나자빠졌다. 과녁을 맞추지 못한 총성은 헛되이 울려 퍼졌다.

까악-----

날개를 펼친 어둠이 당신을 향해 부리를 돌렸다. 당신을 향해 곧장 달려들었다. 이제 과녁은 당신이었다.

제기랄.

꿈에서 깨어났을 때 당신은 양 손으로 침대 시트를 움켜쥐고 있었다. 그 오성산 독수리를 꿈에서 보다니.

이마에 돋은 식은땀을 손등으로 훔치며 당신은 아무렇게나 던져놓았던 입영 영장을 찾아 두리번거렸다. 전산 착오로 인한 실수가 분명하겠지만 아무래도 확실히 해줘야 될 것 같았다. 그렇게 마음먹고 나니, 전화통을 붙잡고 앉아 진을 빼기보다는 직접 찾아가 확인하는 편이 나을 듯싶었다. 당신은 잘못 날아온 입영 영장을 집어 들고 집을 나섰다.

담당 직원은 당신을 흘깃 보고는 컴퓨터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다. 731101-○○○○○○○○, 주민등록번호 맞습니까?

맞습니다.

김성식, 본인 이름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요?

담당직원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다. 당신은 했던 말을 되풀이했다. 여기 이 입영 영장에 찍어 있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분명 내 것이 맞긴 하지만 그러나 이 입영 영장은 내 것이 아니다, 라고.

당신 입으로 주민등록번호, 이름, 모두 맞다고 하지 않았느냐. 담당 직원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투로 물었다.

당신은 담당직원에게로 더 가까이 다가가 앉았고, 짜증내지 않고 했던 말을 되풀이하기 위해 스스로를 어지간히도 억누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런 식의 노력으로 전산상의 기록을 달라지게 할 수는 없었다. 당신의 주민등록번호와 당신의 이름으로는 당신이 군복무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해낼 수 없었다.

이제 장난 같은 기분은 사라지고 없었다. 당신은 절박해졌다. 다시 쳐보십시오. 주민등록번호를 되풀이했고, 담당직원은 당신이 부르는 대로 컴퓨터 자판을 두드렸다.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당신은 서른다섯이 되도록 군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이었고, 절차에 따라 입영 영장이

나왔을 뿐이다.

전역증이라도 가지고 있습니까?

찾아보면 어디 있기는 할 겁니다.

당신 스스로 생각해도 자신 없는 말투였다.

뭐 어떤 식으로 해서 아직까지 용케 군대를 안가고 버텨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다녀오세요.

담당직원의 말에 당신은 발끈했다. 사람을 뭘로 보느냐. 내가 거짓말이나 할 사람으로 보이느냐. 이래봐도 내가 하사로 제대한 사람이야, 핏대를 올렸으나 당신의 얼굴이 붉어지면 붉어질수록 주위에서 허치는 소리만 커질 뿐이었다.

결국, 담당직원과의 실랑이 끝에 당신은 군복무를 한 증거를 찾아서 가져오기로 했다. 전역증이라든가 당신이 군복무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줄 수 있는 증인이나 사진이라도.

당신은 김성식, 당신의 이름 석 자가 씌어 있는, 당신 앞으로 날아온 영장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당신의 것이 아닌 입영 영장을 다시 집어 들었다.

당신이 미처 문 밖으로 나서기도 전에 누군가 당신의 등 뒤에다 대고 외쳤다.

도망 다녀봤자 소용없습니다! 병역기피로 구속되면요, 감옥에서 징역살고 나와서 결국 다시 또 군대 갑니다!

당신은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무대 위로 불려나온 사람처럼 허둥거리고 있었다. 몇 차례, 택시가 당신 앞에 와서 섰다.

뺑---

당신이 올라타기를 기다리느라 길을 막고 서 있는 택시를 향해 트럭이 경적을 울려댔다. 그제야 당신은 쫓기듯 택시에 올라탔다.

어디로 모실까요.

운전수가 미터기의 작동버튼을 누르며 물었다. 미터기의 숫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당신은 뭐라고 대답해야할지 몰랐다. 어디로 가야 될까? 어디에서부터 잘못 되었나? 당신이 망설이는 사이에도 미터기의 숫자들은 맹렬히 달려가고 있었다. 당신도 어디로든 달려가야만 될

듯 했다. 입영영장을 움켜쥔 손바닥에서 땀이 묻어 나왔다.

전역증이라도 가지고 있습니까.

택시 안에 담당직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듯했다.

상계동이요.

당신은 목적지를 대었다. 목적지를 정하고 나자 조금해졌다. 지금껏 어디에 두었는지 생각도 해본 적 없는 전역증의 유무가 그 순간의 당신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했다. 택시가 상계동에 위치한 당신 집 앞에 멈추자, 당신은 거스름돈도 받지 않고 집으로 내달렸다. 베란다에 처박아둔 상자를 끄집어냈다.

아내와 갈라설 때, 당신은 상자 하나에 아내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전부 담아서 들고 나왔다. 당신이 상자 하나를 들고 밖으로 나올 때, 당신의 아내는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당신의 등 뒤에다 대고 “열쇠도 주고 가요.” 라고 말했다. 당신은 두 손으로 받쳐 들고 있던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았고, 바지주머니를 뒤졌다. 당신은 열쇠를 찾지 못했다. 당신의 아내는 현관에 서서 열쇠를 찾느라 바지주머니를 뒤적거리는 당신을 지켜보다 고개를 내저었다. 당신은 마지막을, 고개를 내젓는 아내의 모습으로 채우고 싶지는 않았다. 당신은 다시 집안으로 들어가 열쇠를 찾으려고 했다. 구두를 벗는데 당신의 아내는 갈라진 목소리로, 그럴 수 없이 비참하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됐으니까 그만하고 가라구요!

당신에게도 뭔가 할 말은 있었다. 입술을 달싹였으나 당신의 아내는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당신은 내려놓았던 상자를 집어 들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그 뒤로는 다시는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본 적이 없다.

그랬다. 먼지가 내려앉은 상자의 뚜껑을 열며 당신은 어쩔 수 없이 봉인해두었던 기억들과 마주하고 있었다. 습관적으로 동전들을 모아 두던 돼지 저금통과 통장 몇 개가 들어있는 통장 보관함과 지프 라이트와 누렇게 색이 바랜 수첩들과 피라미드 모양의 빼지가 붙어 있는 갈색 지갑과 열쇠가 상자 속에서 나왔다. 이 열쇠가 왜 여기 있을까. 일부러 챙겨두었었나. 어찌다보니 다른 물건들과 함께 휩쓸려 들어간 것일까. 아주 잠깐 당신은 열쇠를 들여다보다 뭐 어찌되었든 이제는

다 상관없는 일이야, 상자 속에 열쇠를 집어던졌다. 전역증이라면 피라미드 모양의 뼈지가 붙어있는 지갑에 들어있어야 했다. 쓰다 남은 공중전화카드라든가 쓰지 않게 된 신용카드, 병원진료카드 따위들을 넣어두던 지갑이었다. 당신은 지갑에 들어있는 카드들을 전부 꺼내 살펴해보았다. 그런 다음에는 수첩들을 살펴보고, 주택부금이 빠져나가던 통장이라든가 보험증서들이 들어있는 통장 보관함까지 뒤졌으나 전역증만은 찾지 못했다.

바지주머니에 넣어두었다고 생각했던 이 열쇠처럼 전역증 역시 다른 상자에 휩쓸려 들어갔는지도 몰라, 당신은 없어진 전역증을 찾다말고 상자 속에서 나온 열쇠를 다시 또 들여다보고 있었다. 아내라면 갖고 있지 않을까. 어쩌면 사진도 몇 장 갖고 있을지 모른다. 다른 사진이라면 몰라도 머리를 깎고 어머니와 함께 훈련소 앞에서 찍었던 그 사진만큼은 아내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가.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이라며 아내가 직접 액자에 담아 화장대 위에 올려놨었다. 생전에 시어머니의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이 사진 속의 어머니라면 같이 살아보고 싶은 사람이라고, 아내는 화장을 지우며 몇 번인가 그런 말을 하기도 했었다.

그 사진 속에서 당신은 어머니의 손을 꼭 쥐고 있었다. 그날 당신과 어머니는 살고 있던 용산 집에서 나와 당신이 신체검사를 받기로 되어있던 보충대가 있는 의정부까지 택시를 타고 갔었다. 어머니는 한사코 택시를 타야 된다고 고집을 부렸다. 아들이 군대 가는 날에도 돈을 아꼈다가는 두고두고 후회할 거라는 거였다. 택시가 보충대 앞에 설 때까지 당신은 점점 불어나는 미터기의 숫자들을 보지 않으려고 부러더 어머니의 얼굴만 쳐다보았다. 너무 빨리 들여다보자 어머니는 으이구, 내 새끼, 옷소매로 눈물을 훔쳐 닦았다. 어머니가 택시비를 치를 때, 당신은 벌써 이발소를 향해 걷고 있었다. 이발사는 별다른 감흥 없이 당신의 머리를 밀었다. 당신 역시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여자 혼자 몸으로 아들을 군에 보낼 나이까지 키워낸 어머니만이 감회에 젖었다. 어머니는 당신의 머리가 잘려나갈 때마다 어깨를 들썩였다. 어머니의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은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고, 어머니의 바람대로 어머니와 함께 사진을 찍었다.

아내와 함께 살던 집에는 앨범도 몇 권 있지 않았던가. 앨범 속 어딘가에 꽂혀 있을 그 사진들. M60을 들고 초소 앞에서 찍은 사진이며 분대장 시절, 수색을 끝내고 돌아와 GP를 뒤로하고 부대원들과 늘어서서 포즈를 잡은 일하며 기타를 잘 치던 김일병과 기타 치는 시늉을 하며 찍었던 사진까지, 앨범 속에 들어있던 사진들이 수 십장, 당신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생각이 화장대 위에 올려놓았던 사진에 미치자 당신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다. 지금 당장 아내가 그 사진이라든가 앨범을 갖다버리더라도 할까봐 걱정되기 시작했다. 당신은 시계를 올려다봤다. 16시 27분. 지금 이 시간이라면 원단공장의 박 부장도 자리를 지키고 있을 것이다. 박 부장이라면 아직도 아내와 거래를 하고 있을 터이니 박 부장만 찾아가면 아내와의 연락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리라. 당신은 상자 속에서 나온 열쇠를 바지 뒤주머니에 찔러 넣고는 곧장 동대문의 원단 공장으로 차를 몰았다.

원단 공장의 박 부장은 흔쾌히 아내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이 사장, 요새 히트 하나 쳤어. 그 덕에 우리 공장도 노렸지. 복숭아뼈 위까지 내려오는 헐렁한 치마 있지? 그거 이 사장이 터트린 거잖아!

박 부장은 말끝에, 자네가 이 사장하고 계속 같이 살았으면 지금은 벤츠나 골리며 골프나 치러 다니고 있을 거라는 농까지 덧붙였다. 그런 말을 농으로 흘릴 수 있고 또 흘려들을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이 흘러가 버린 것이다.

당신은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내 역시 별다른 감흥 없이 전화를 받았다. 명동으로 사무실을 옮겼으니 용건이 있으면 그쪽으로 와달라고 했다.

혹시 내 사진 갖고 있지 않아?

당신의 아내는 한숨을 내쉬었다. 한숨을 내쉬는 그 얼굴만큼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았다. 아내는 책상 위에 늘어놓은 액자들을 가져와 당신 앞에 들이댔다.

아들이야. 이 사람이 내 남편인 건 당신도 알고 있지?

한 때 당신의 아내였던 여자는 도대체 이제 와서 이게 다 무슨 이

야기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투로 물었다.

다 정리했어도 그래도 사진 몇 장은 남아 있지 않느냐고, 당신은 묻고 싶었지만 한 때 당신의 아내였던 여자는 아까부터 고개를 내젓고 있었다.

내가 뭘 증명해줄 수 있겠어? 당신하고 함께 살았던 시절은 서류상에도 남아있지 않은데.

한 때 당신의 아내였던 여자는 원하던 대로 아침에 출근했다 저녁에 퇴근하는 남자와 다시 결혼을 했고, 그 남자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자 변호사를 사서 서류상에 남아있던 이혼 기록까지 삭제했다고 말했다.

그런 말을 하는 사이에도 아내의 머리카락은 어깨 부근에서 물결치고 있었다. 당신과 함께 살던 10년 전에는 짧은 머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딘지 선머슴에 같은 데가 있던 아내였다. 디자이너로 자리를 잡은 지금의 아내의 모습에서는 그때의 그 선머슴에 같은 구석은 찾아볼 수 없었다.

당신은 바지주머니를 뒤졌다. 상자 속에서 나온 열쇠를 꺼내 내밀었다.

한 때 당신의 아내였던 여자는 갈라진 목소리로, 진저리가 난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됐으니까 그만하고 가세요!

당신에게도 뭔가 할 말은 있었다. 입술을 달싹였으나 한 때 당신의 아내였던 여자는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당신은 한 때 당신과 당신의 아내가 살았던 집의 열쇠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밖으로 나왔다.

당신의 머리 위로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고 있었다.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대로변에서 들려오는 경적소리와 연인들의 웃음소리, 자 지러질 듯 울어대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한데 어울려 명동만의 저녁을 만들어냈다.

당신은 당신이 걸어 내려온 계단 앞에 불박여 서서 출렁이며 흘러가는 거리의 저녁을 지켜보았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거리 끝에서 끝으로 밀려가고 있었다. 불빛들은 저녁 어스름을 밀어내며 밤을 향해 치달았다.

당신도 어디로든 달려가야 할 듯했다. 당신은 서둘러 주차장을 향해

뛰어갔다. 한 때 당신의 아내였던 여자의 사무실이 있는 명동에서 당신의 일터가 있는 동대문까지 차를 모는 동안에도 차들은 자주 당신의 차를 추월했다. 추월당하지 않으려고 당신은 몇 번씩이나 뺨미러를 들여다봤고, 자주 차선을 바꿨다. 그러다 깜빡이도 켜지 않고 튀어나온 뒤차가 맹렬한 속도로 옆을 스치고 달려가자 그 아찔한 속도에 놀라 당신은 어느새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다.

동대문 시장의 밤은 벌써부터 분주했다. 당신은 거의 뛰다시피 걷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자주 당신의 어깨를 치며 앞으로 나아갔다.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무리 속에 섞여 있었기 때문에 당신도 별수 없이 걸음을 빨리해야했다.

상가로 들어서기 전에 당신은 언제나처럼 상가를 뒤로하고 입을 크게 벌렸다. 바깥 공기를 훌쩍 들이마신 뒤에야 당신은 상가로 들어섰다. 군 제대 이후 근 십 년 가까이 일하고 있는 곳이지만 상가 전체에 배어 있는 냄새에만큼은 익숙해지지 않았다. 공장에서 막 배달되어온 옷의 염료냄새와 오래된 옷의 먼지 냄새 속에서 하루 종일 장사를 하다보면 어느새 마비가 되어 잊게 되지만 상가로 들어설 때만큼은 후, 끼쳐오는 그 냄새에 당신은 매번 진저리를 쳐야했다.

당신은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동업하고 있는 김 선배를 불렀다. 원단 샘플을 들여다보던 김 선배가 무슨 일이나, 고 물었다. 막상 말을 꺼내려고 보니 당신은 어디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할 지 몰랐다.

함께 가서 이 사람, 김성식은 군복무를 했습니다, 라고 증언해달라고 해봤자 김 선배는 웃기나 할 터였다. 김 선배와는 어차피 시장에서 만난 사이일 뿐이었다. 당신은 방통대를 다니다 군에 들어갔고, 군 복무 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군 제대 이후에 동대문 시장으로 흘러들어왔다. 김 선배 역시 어찌다보니 이곳으로 흘러들어와 원단을 나르는 일부터 시작해 지금의 자리에까지 오게 된 인물이다. 당신과는 종업원 시절부터 함께 일해 왔던 터라 형, 아우 하는 사이로 지내고 있지만, 생각해보니 당신 역시 김 선배의 과거와는 상관없는 사람이었다.

사람을 불러놓고.....

김 선배의 재촉하는 듯한 말투에 쫓겨 당신은 엉뚱하게도 헤어진

아내가 명동에 사무실을 내었더라는 말을 하고 있었다.

일 끝나고 술이나 한 잔 하자.

헤어진 아내를 만나고 왔다는 당신의 말에 김 선배는 격려하듯 당신의 어깨를 툭, 치고는 하던 일을 계속했다.

그날도 당신은 당신의 일터에서 수 십 명의 사람들을 상대했다. 그들 중에는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단골고객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뜨내기일 뿐이었다. 며칠이 지나면 당신은 당신과 옷들을 펼쳐놓고 이런 저런 실랑이를 벌였던 그들 중의 어느 한 명도 기억해내지 못하리라. 당신에게서 치마나 바지, 카디건, 유행하는 옷들을 사가는 사람들에게는 당신 역시 뜨내기일 뿐이었다.

당신이 뜨내기들을 상대로 했던 말을 몇 번씩이나 되풀이하는 사이에 날이 밝았고, 당신의 하루는 수증기처럼 공기 중에 흩어졌다.

일이 끝나고 김 선배가 술이나 한 잔 하자며 당신을 잡아끌었을 때, 그래서 당신은 얼마 전까지 옆 가게에서 일하다 시장에서 자취를 감춘 종업원의 이름을 기억하느냐고 물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녀석의 이름까지 내가 왜 기억해야 하느냐고, 김 선배는 오히려 당신에게 따지듯 물었다. 만약에 내가 시장을 떠나게 되고 몇 년 뒤에, “거 있잖아, 그때 김 형하고 101호에서 같이 동업하던 사람, 그 사람 이름이 뭐였지?” 라고, 혹시 누가 물으면 내 이름은 기억할 수 있겠어, 라는 말이 목까지 치밀어 올라와서 당신은 김 선배와의 술자리를 뒤로 미뤄야했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당신은 시동을 걸었다. 당신의 차가 신호에 걸려 시내 한복판에 멈춰 섰을 때, 당신은 직진 신호를 기다리다말고 유턴 차선으로 끼어들었다. 차를 돌려 당신은 한 여자가 “성식아”라는 호칭으로 당신을 불러주던 옛집을 향해 달려갔다. 세월이 아무리 흘렀어도 그 집만은 당신을 기억하고 있을 듯했다. 어머니와 함께 세들어 살던 그 집에서만큼은 당신은 뜨내기가 아니었다. 그곳에서 당신은 중, 고등학교를 다녔고, 아침이면 문을 열고 나와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나 안녕하세요, 깍듯이 인사를 했다. 길게 이어지는 담벼락마다 낙서가 휘갈겨져 있는 그 골목길에서 당신은 몇 번인가 불량배들에게 걸려 돈을 뜯긴 적도 있었다. 주먹에 맞아 내려앉은 왼쪽 눈두덩을 손

바닥으로 눌러가며 약국으로 들어갔더니, 젊은 약사가 성식이 너 요새
쌈질하고 다니느냐며 눈살을 찌푸리지 않았던가. 저녁마다 들르던 분
식집의 여주인은 막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그 집 아들을 타박하며 우
리 아들이 딱 성식이만큼만 효자였으면 좋겠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
고 살았다. 그곳에서만은 누구나 당신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당신은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만나려고 옛집으로 달려
갔다. 저 멀리 십 수 년 전에는 담벼락이 길게 늘어서 있던 자리에 올
타리가 둘러쳐져 있었다. 옛날에는 몇 가구씩이나 한 집에 세 들어 살
던 다가구주택들은 허물어졌고, 그 자리에 성벽처럼 솟아있는 울타리
안쪽에서 먼지가 피어올랐다. 공사장의 인부들은 여기는 위험하니 저
리로 가라며 당신을 울타리 밖으로 밀어냈다. 울타리 밖에 서서 당신
은 공사장의 전부를 차지한 구덩이를 내려다보았다. 아침마다 문을 열
고 나와 저녁이면 되돌아왔던 당신의 옛집과 골목길에 메아리치던 인
사말들과 그 곳에 살던 모든 이들이 익히 알고 있던 “김성식” 이라
는 이름은 구덩이 속에 파묻혔다.

그리하여 당신은 모든 것을 집어삼킨 뒤에 먼지만을 피어 올리는
구덩이를 뒤로 하고 다시 또 핸들 앞에 앉아야 했다.

당신은 거리들을 헤매고 다녔다. 당신이 당신의 흔적들을 찾아 지나
온 길들을 달리는 사이에 당신의 하루하루는 당신 곁을 스치고 지나
갔다. 30일, 29일, 28일, 27일, 26일, 25일....., 21, 20, 19, 18,
17.....2. 작동이 멈추지 않는 미터기처럼, 브레이크가 고장 난 자동
차처럼 당신을 앞질러 가버리는 하루하루를 붙잡으려고 당신은 쉬지
않고 내달렸다.

이제 입영 날짜는 하루 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당신은 기진맥진해졌
다. 당신이 지나간 한 시기를 증명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모든 것이
모호해졌다. 당신은 끊임없이 과거의 당신을 생각했고, 과거의 당신을
기억하는 사람을 만나 과거의 당신과 관련된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
그러나 그 이야기들 속의 당신은 당신이 기억하는 과거의 당신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 어떤 경우에는 당신 자신의 이야기가 분명한데
도 당신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의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했다.

당신은 점점 더 자신이 없어졌다. 당신이 기억하는 모든 것, 서류상

에 수치나 숫자로 기록되지 못한 것들. 그러나 분명히 일어났었고, 존재했던 그 사실들.....

사실?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은 실은, 그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라 당신 혼자서만 사실이라고 믿었던 것은 아니었나, 하는 의혹에 시달리게 되었다. 당신은 집안을 살살이 뒤지기 시작했다. 식탁 위에 사실을 증명해줄 만한 모든 것을 올려놓았다. 당신의 얼굴이 박혀 있는 주민등록증. 당신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들. 전세계약서. 자동차보험 가입서. 몇 개의 보험증권들. 당신은 통장에 기장되어 있는 내역들을 살펴보았다. 카드 요금은 매달 5일에, 아파트 관리비는 7일에, 전화요금과 적금은 10일에, 종신보험료는 12일에 빠져나갔다. 통장내역이야말로 당신의 현재의 삶이었고, 그 삶이 어떻게 꾸러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당신은 통장에 기장되어 있는 내역들을 살펴다 매달 12일 자로 빠져나가는 종신보험료의 금액이 128,760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당신에게 종신보험료의 금액을 말해주던 김대경의 음성을 기억해냈다.

당시에 김대경은 납부기간을 20년으로 하면 보험료가 128,760원이고, 10년으로 하면 이십 만원이 조금 넘을 텐데 어느 걸로 하는 편이 좋겠느냐고 물어왔었다. 그래서 당신은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고 되물었고, 김대경은 지금 십 만원과 20년 뒤에 십 만원은 현금가치가 다르니 20년으로 하는 쪽이 훨씬 더 이익이라는 설명까지 상세히 해주었던 것이다.

당신은 보험증권들 속에서 5년 전에 김대경의 권유로 가입하게 된 종신보험의 증권을 찾아냈다.

왜 진작 이 생각을 못했을까.

당신은 찾아낸 보험 증권에서 우체국이라는 단어를 발견하자마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 수 있었다. 당신이 하사관 생활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을 때, 김대경은 이제 막 이등병 생활을 시작하고 있었다. 워낙 숫기가 없는 데다 변변치 못해 고문관으로 불리던 김대경. 그 김대경을 3년 전 부산의 해운대 앞바다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당신은 기쁜 마음에 함께 내려간 일행들은 제쳐두고 김대경과 밤늦도록

술잔을 기울였었다.

김대경은 우체부가 되어 있었다. 결혼을 했고 아들만 둘 있는데 아내가 오지랖이 넓어 걱정이라며, 김대경은 아내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에 당신에게 걱정을 늘어놓았다. 우체부 월급으로는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아내는 이것저것, 남들 하는 건 무엇이든 다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라서 큰일이다, 나와는 맞지 않는 여자인 것 같다, 자신의 능력없음을 한탄하던 김대경이었다. 그래서 당신은 김대경이 보험이라도 하나 가입해주면 실적에 도움이 된다는 말을 어렵게 꺼냈을 때 흔쾌히 응해주었다.

당신은 곧장 부산행 열차를 탔다.

당신이 고문관이던 김대경과 함께 했던 시간은 3년여에 불과했다. 3년여의 시간은 당신 생애에서도 김대경의 생애에서도 그리 긴 세월은 아니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이 그 3년여의 시간을 떠올릴 때마다 김대경을 함께 기억하는 것처럼 김대경 역시 그러하리라고 확신했다. 그날, 갈대들은 흔들렸다. 당신과 대원들은 갈대밭에 있었다. 비 온 뒤의 땅은 단단하지 못했다. 갈대밭에서, 당신과 대원들 역시 단단할 수 없었다. 모래땅은 비에 휩쓸렸고, 속을 드러낸 자리에 상처처럼 지뢰가 박혀 있었다. 상처를 악물고 단단해지지 못한 땅에, 비는 내렸다. 비에 떠밀려 내려온 지뢰들이 발부리에 채였다. 당신과 대원들은 단단하지 못했다. 마음의 무른 자리에 두려움은 쉽사리 뿌리내렸다. 당신과 대원들은 앞으로 나아갔다. 자주 멈춰서고 두리번거리며 행해지는 전진이었다.

앞서 걸던 첩병조의 일병이 비명을 내질렀다. 그제야 전진은 끝이 났다. 지뢰가 일병의 다리를 잘라 냈다. 일병은 지뢰 파편에 산산조각난 제 다리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내 다리. 내 다리. 일병의 내 다리 소리는 당신과 대원들의 귀에는 네 다리 소리에 다름 아니었다. 잘린 다리는 일병의 다리였다. 두려움은 온전히 일병의 몫이 되었다. 당신과 대원들은 이제 뺄 수 있었다. 군사분계선까지 2km를 후퇴하는 내내 대원들은 교대로 일병을 업고 뛰었다.

그날, 일병은 의무대로 실려 가고 작전은 취소되었다. 여러 날이 지난 뒤에는 고문관이라 불리던 김대경마저 대원들의 말을 거들고 있었

다. 제 뒀을 훌륭히 해낸 그날의 자기 자신에 대해.

일과는 계속됐다. 해가 지고 날이 지나갔다. 당신은 총알 600발과 총, 대검, 수류탄 2개를 챙겨 오전 수색에 들어갔다. 수색을 끝내고 돌아오면 1식 3찬의 점심을 먹었다. 점심을 먹고 나면 4분의 5톤 지프에 김치, 라면, 계란, 햄버거, 쌀 등등을 싣고 GP로 부식을 전달하러 갔다. 눈이 오거나 비가 오는 날에도 부식은 전달되어야했다. 지프로 가져갈 수 없으면 맨 손으로 들고 올라갔다. 가파른 길을 당신은 실탄 600발을 메고, 부식을 짊어지고 올라갔다. 먹고 싸고 자는 일은 되풀이될 수 있었다.

부식을 전달하지 않는 날에는 오전 수색을 끝내고 돌아와 낮잠을 잤다. 그 낮잠에 당신은 간간히 기쁨을 느꼈다. 해가지면 매복에 들어갔다. 전방에 크레모아를 설치하고 매복호 안에 들어가 앉으면 그때부터 아무 것도 아닌 그 무엇이 되어야했다. 그것이 당신과 대원들이 얼굴에 검정 물감을 발라 제 얼굴을 지운 이유였다.

여름이라 개구리가 울었다. 그러면 개구리 울음 소리를 들었다. 여름이라 모기떼가 극성을 부렸다. 그러면 모기떼가 뜯도록 놔두었다. 인기척도 내지 않았다. 요의를 느껴서도 안 되었다. 아무 것도 아닌 그 무엇이 되기 위해 당신과 대원들은 서로 등 돌리고 앉아 눈앞의 어둠만을 응시했다.

어둠을 응시하고 있으면, 어둠은 이상하리만치 부풀려져서 당신과 대원들의 시야를 가렸다. 그 여름에는 자주 비상줄이 흔들렸다. 누군가 1번 줄을 흔들었다. 적침투. 당신과 대원들은 눈을 부릅떴다. 눈앞의 어둠은 거대해서 어둠 말고는 보여주려 하지 않았다. 시야를 가린 어둠을 뚫고 그 무엇이 다가오는 소리, 생각은 하나로 모아진다. 쏠 것인가.

과랴게 눈을 빛내며 멧돼지 한 마리가 벌써 매복호 앞까지 와 있다. 쏠 것인가. 한 마리 멧돼지를 쏘기 위해 아무 것도 아닌 그 무엇이 된 것은 아니었다. 당신과 대원들은 마지막까지 방아쇠를 당기지 못한다. 움직이지 않는다. 멧돼지만이 움직인다. 그 움직임도 사라져버리고 멧돼지 있던 자리 옆으로 당신과 대원들의 잦아든 숨소리가 내려앉는다. 그 숨소리가 당신과 대원들에게 살아있음을 가르쳐주곤 했다.

그래서 당신과 대원들은 더 더 더 아무 것도 아닌 그 무엇이 되려고 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어느 날은 화들짝 놀라 방아쇠를 당기기도 했다. 적이다, 생각했고, 쏘았다. 푸드득, 독수리 떼가 날아올랐다. 발톱이 사람 손만 하고 날개가 4미터도 넘는 오성산 독수리들. 어둠 속에서 그것들은 늘 무리로 떼 지어 앉아 있었고, 영락없는 사람이었다. 사람이라면 적이 분명했다.

누군가 실수로 방아쇠를 당긴 날에도 해는 뜨고 일과는 계속되었다. 이쪽에서 쏜 총과 저쪽에서 쏜 총에 맞아죽은 독수리들이 아침 햇빛에다 대고 피를 토해냈다. 누구라도 과녁이 될 수 있음을, 그 피가 당신과 대원들에게 증거했다.

독수리 몇 마리 총 맞아 죽은 날에 김대경은 흠쩍거렸다. 흠쩍거리며 뒤따라오는 김병균에게 당신은 말해주고 싶었다.

어찌 되었든 죽어야 한다.

그 말을 하려고 당신이 뒤돌아선 그 잠깐 사이에 갈대밭은 또 흔들렸다. 하늘로 날아오른 독수리 한 마리, 발톱을 세우고 내려와 토끼를 움켜쥐었다. 한 마리 독수리가 발톱으로 토끼를 움켜쥐고 부리로 살점을 찌자 독수리들이 떼로 몰려왔다. 잡은 놈은 뺏기지 않으려고 부리를 세우고 나머지 놈들은 뺏으려고 부리를 세웠다. 그 와중에 뿔혀 나온 독수리 깃털 몇 개가 하늘로 날아올라 춤추더니 총 맞아 죽은 독수리들의 주검 위로 내려앉았다.

그 광경에 김대경의 흠쩍거림이 잦아들었다. 뒤따라오던 김대경이 당신보다 앞서 걷기 시작했다.

죽여 버릴까요?

당신이 하사관 말년이 되었을 때, 김대경은 죽여 버리자는 말을 먼저 꺼냈다. 4분의 1톤 지프를 타고 GP로 올라가는 길이었다. 길가에 독수리 몇 마리가 있었다. 지프가 나타나자 독수리들은 도망치기 시작했다. 미처 날아오르지 못한 독수리가 지프에 치였다. 놈은 어떻게든 날아오르려고 날개를 쳐댔다. 놈은 쉽게 날아오르지 못하자 필사적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당신은 제대를 앞두고 있었고, 김대경은 병장이었다.

밟아버려!

이제 막 군생활을 시작한 운전병은 액셀을 밟았다. 당신과 김대경은 지프로 들이받아 죽인 독수리를 들고 매복호로 갔다. 매복호 앞에 죽은 독수리를 내려놓고 김대경은 훌쩍거렸다.

죽인다! 죽인다! 죽인다!

김대경이 죽은 독수리를 발로 걷어찼다. 당신도 죽은 독수리를 발로 걷어찼다.

그 안에 들어가면 새 날을 맞기 위해 아무 것도 아닌 그 무엇이 되어야했던 매복호에 죽은 독수리 한 마리를 묻고 당신과 김대경은 지프에 올라탔다. 그리고 며칠 뒤에 당신은 제대했다.

그날의 김대경을 떠올리자 당신은 괜히 헛웃음이 나왔다. 치기어린 얼굴, 건들거림, 우쭐함, 그러나 그 모두가 실은 겁먹음, 자신 없음, 두려움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한 도구였던 것이다. 김대경의 그 얼치기 같던 얼굴에 어려 있던, 젊음의 모든 것이라 할 만한 것들을 어찌면 그 시기의 당신도 갖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자 당신은 참 오랜만에 유쾌해졌다. 그래서 당신은 밀대를 밀며 당신 옆을 지나가는 흥익회 판매원한테서 맥주 2캔을 샀고, 기차에서 내릴 즈음에는 기분 좋으리만큼 적당히 취해있었다.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으쌰으쌰

너와 나 나라 지키는 으쌰으쌰

당신은 택시 안에서 노래를 흥얼거렸다. 5년 전, 김대경이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어왔을 때 보험증권 상단에 적어두었던 주소의 우체국으로 향하는 내내 당신은, 대경이 그 자식은 군가 하나 제대로 못 불렀지, 이번에 그 자식을 만나면 내가 하나라도 확실히 가르쳐주고 와야지, 하는 생각으로 들떠 있었다.

택시가 당신을 우체국 앞에 내려놓았다. 당신은 벌써부터 야, 김병장! 하고, 김대경을 병장으로 부르던 그 시절로 돌아가 있었다. 취기 또한 한 몫 거들었다.

김병장!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야, 김병장!

당신의 김병장! 하는 소리에 김 하사님! 하고 답해줄 사람은 거기,

아무도 없었다.

당신이 김대경의 권유로 가입하게 된 보험증권을 내밀자 여직원은 그제야 당신을 부스 안으로 안내했다. 부스 안의 상석을 차지하고 앉은 직원은 짧게, 김대경씨는 이제 여기서 근무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 당신은 김대경을 반드시 만나야한다는 말을 몇 번이고 되풀이했다. 당신은 난동이라도 부릴 기세였다. 직원은 할 수 없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고, 전화기에다 대고 당신의 이름을 말했다. 몇 초 뒤에 당신은 직원이 건네주는 수화기를 붙잡고 있었다. 오지랴이 넓어 걱정이라던 김대경의 아내는, 그러면 저라도 만나러 가겠습니다, 라는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다.

김대경의 아내는 소형차를 몰고 와서 당신을 옆자리에 태웠다. 당신은 김대경의 아내와 함께 해운대 앞바다에 있는 한 호프집에 마주 앉았다.

사고였어요. 비오는 날이었는데.

김대경의 아내는 당신 앞에 앉아 죽은 남편을 회상했다.

군에 있을 때 남편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저하고 살 때는 그저 성실하기만 한 남자였거든요. 재미라고는 하나도 없이.....

김대경의 아내는 김대경과 군 생활을 함께 했던 당신에게 그 시절의 남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고 묻고 있었다.

당신은 무슨 말이든 하려고 입술을 달싹였으나 끝내 한 마디도 할 수 없었다.

혹시 남편 사진들 중에 군대 있을 때 저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 남아 있을까요? 있다면 한 장 꼭 얻어가고 싶습니다.

오지랴이 넓어 걱정이라던 김대경의 아내에게 당신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겨우, 그뿐이었다. 김대경의 아내는 남편의 물건은 라이터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죽은 사람 물건은 웬지 꺼림칙해서.....

희뿌연게 날이 밝고 있었다. 기차가 정차했는지 몇 몇의 사람이 역사에서 나오고 있었다. 개중에는 곧장 택시 승차장으로 걸어가는 사람도 있었고, 역사 앞에 서서 담배를 피워 물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

겠다는 듯이 두리번거리는 사람도 있었다.

당신은 당신의 이름이 씌어있는 입영영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도망 다녀봤자 소용없습니다! 병역기피로 구속되면요, 감옥에서 징역 살고 나와서 결국 다시 또 군대 갑니다!

누군가의 말이 사방에 울려 퍼졌다.

역사 안은 벌써부터 표를 끊기 위해 줄선 사람들도 북적거리고 있었다. 당신은 입영 영장을 재킷 안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서둘러 역사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얼마 뒤에는 당신도 표를 끊기 위해 매표소 앞에 줄 선 사람들 속에 섞여 있었다.

매표소의 직원이 당신에게 행선지를 물었다.

신체검사를 받기로 되어 있는 논산 훈련소로 가려면 대전에서 기차를 갈아탈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대전!, 하고 당신의 행선지를 밝혔다.

당신은 대전행 열차에 올라탔다. 열차에 올라탄 사람들 모두, 부지런히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당신 역시 정해진 자리에 가서 앉았다. 정해진 좌석에 앉아 행선지가 찍힌 기차표를 들여다보자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었다. 아주 긴 휴가를 끝내고 정해진 일과로 복귀하는 듯도 했다.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번에는야말로 그곳에 말뚝을 박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입영 영장을 움켜쥐고 있는데, 당신 옆 자리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던 사내가 팔꿈치로 당신의 옆구리를 찔렀다. 고개를 돌려보니, 옆자리에 앉은 사내는 이제라도 유리창을 박살내고 밖으로 뛰쳐나갈 듯한 기세로 두 손을 창에 붙이고 영선아, 영선아, 웬지 귀에 익은 여자의 이름을 소리쳐 부르고 있었다. 사내가 바라보는 곳에는 옛되어 보이는 짧은 아가씨가 손을 흔들며 서 있었다. 여자의 모습이 점점 작아져가다 한 점 점이 될 때까지 창에 얼굴을 붙이고 있던 사내는 여자의 모습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자 “아무래도 저 여자랑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라며 당신에게로 몸을 돌려왔다.

순간, 당신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사내는 김대경이었다. 그 김대경이 바로 당신 옆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었다.

당신이 제대하던 날, 외박을 나갔다 돌아온 병장 김대경은 당신에게

지프 라이트를 내밀며 이 지프 라이트를 선물한 여자와 아무래도 결혼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고, 김 하사님을 형처럼 좋아했다면서 당신의 군복 주머니에 여자에게서 선물 받은 지프라이트를 넣어주었다.

그 김대경이 그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군복을 입고 앉아 지프 라이트를 내려다보며 혼잣말하듯 말을 이어가고 있었다.

아무래도 저 여자랑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신은 김대경의 그 다음 말을 이미 알고 있었다.

외박을 나가 영선이를 만났는데, 영선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참 다 참다 탈영을 하게 될 만큼 내가 보고 싶어지면, 나를 안고 싶어지면, 나를 너무 안고 싶은데 내가 옆에 없어서 탈영을 결심할 만큼 힘들어지면 그 때는 사창가에라도 가라고요. 이해하겠다면서요. 네가 날 그리워할 때 옆에 있어 주지 못해 오히려 미안하다면서 이런 라이트를 선물하는 여자라면, 결혼을 해야겠지요?

김대경은 그 때와 똑같은 어조로 당신에게 묻고 있었다.

이런 라이트를 선물하는 여자라면, 결혼을 해야겠지요?

당신은 김대경이 만지작거리는 지프 라이트와 김대경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봤다. 몇 번을 쳐다봐도 라이트는 김대경이 당신의 군복 주머니에 넣어주었던 그 지프 라이트와 똑같은 것이었고, 지금 당신 옆에 앉아 지프 라이트를 만지고 있는 사람도 바로 그 김대경이 분명했다. 당신은 “대경아!” 하고, 사내의 이름을 부르며 사내의 손을 움켜쥐었다.

당신이 사내의 이름을 부르자 사내는 당신에게 잡힌 손을 잡아 빼며 경계의 눈빛으로 당신을 내리훑었다.

대경아! 나야, 김하사. 너 나 알지? 너 나 알잖아?

당신이 사내의 손을 다시 움켜쥐자 사내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사내는 김대경이라는 이름 석 자가 새겨진 군복을 입고 있었고, 당신은 사내의 군복 바지를 붙잡으며 몇 번이고 사내의 이름을 불렀다. 당신이 군복바지를 붙잡고 놔주지 않자 사내는 당신의 어깨를 두 손으로 움켜쥐더니 당신을 창가 쪽으로 내밀었다. 그러고는 당신이 움켜쥐어 구겨져버린 군복 바지의 주름을 손바닥으로 쓱 쓸어내리고는 통로로 빠져나갔다. 당신은 김대경이 미는 바람에 창에 머리를 세게 부딪

쳤고, 얼마간 얼이 빠져 있었지만 김대경이 다른 칸으로 가버리기 전에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섰다. 김대경은 통로를 걸어가고 있었고, 당신은 당신 앞을 가로막은 밀대와 흥익회 판매원을 밀치며 김대경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이명랑 : 소설가, 1997년《새로운》 제1호를 통해 등단
산문집《위로》외 다수,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창학부 교수

문학과 서정성

임헌영

1. 뉴밀레니엄의 의미

지난 20세기를 “전쟁과 살육의 세기” (홉스봄 <<극단의 시대>>)라고 부른 이유는 1억 7천만 명이 비명횡사한,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인간이 학살당했다는 고발적 성격이 담겨있다. 이런 잔혹성과 함께 20세기는 인간의 평균수명을 30여 세로부터 60여 세로 끌려 올린 과학적인 개가를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물질적인 풍요 속의 정신적 빈곤, 소외 의식 극대화, 인종과 신앙과 이데올로기에 의한 갈등은 세계를 한층 불안으로 몰아가고 있다.

1990년을 전후하여 동구 및 러시아 사회주의가 붕괴하자 지구촌은 평화가 정착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미국 한 나라의 지배체제가 굳어지면서 중동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침략으로 이어지는 컴퓨터화한 살육전은 오히려 20세기의 비극을 능가하는 재앙으로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한반도의 운명 역시 남북의 화해와 협력의 증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외 정책 때문에 냉전시대보다 더 유동적이고 불안한 곡예의 역사가 전개되는 실정이다.

이런 세계사적인 위기의식 속에서 뉴밀레니엄 사회는 노마드

(nomade)시대의 개막(가타리와 아타리, 그리고 들뢰즈의 분석)을 선명하게 드러내면서 ‘도시 유목민’ 화 속의 인간상(가벼움, 자유로움, 환대, 경계심, 접속, 박애)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연구자들에 의하면 향후 몇 10년 안에 지구촌은 7백만 이상 도시 5백여 개에다 소수민족이 거의 독립한 3백여 국가로 이뤄지며 평균수명은 120여 세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존의 가치관과 윤리의식, 미학과 정서로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어려운 새 세대가 등장하는가 하면 노년층의 확대로 문화가 줄잡아도 3-5세대로 분절될 사태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다 신앙, 이념, 취향 등등의 차이까지 감안하면 과연 인류 전체에게 감동을 자아낼 수 있었던 ‘위대했던 문학’ 이 여전히 유효할까 의구심이 든대도 망상이 아닐 터이다.

더구나 20세기가 각종 언론매체의 영향력으로 가치관을 통합시켰던 일차원적 문화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사이버와 각종 보조매체의 융성으로 다원화를 피할 수 없게 되므로 써 미학적 가치관의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피레네를 넘으면 진리가 반진리로 된다는 파스칼의 고전적인 지적은 후기산업사회에서는 벽 하나만 넘으면 그렇게 될 소지를 지녔다고 할 만큼 극도의 아노미현상이 팽배해 있다.

노마드시대의 문학, 그 중 산문문학은 어떻게 바뀌어갈 것인가? 여전히 우리는 헤초나 마르코 폴로처럼 여행기를 쓰며, 노자나 장자처럼 인생무상을 논하고, 몽테뉴나 다산처럼 인간사회의 불합리성을 비판하며, 플라톤이나 니체처럼 인생론을 탐구하고, 찰스 램이나 이양하처럼 바람과 구름과 나무나 읊조리면 명 문학인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까.

아무리 새로운 시대라도 명작은 역시 명작이라는 요소를 지니고 있는데, 그 영원 불변의 요소와 시대마다의 차이는 무엇일까.

2. 문학예술의 역할 - 명작의 요소

문학예술이 명작으로 평가받으려면 대충 아래와 같은 기본 요소를 갖춰야 할 것이다.

(1) 문학은 인간 탐구, 곧 인간학이다. 어떤 학문도 문학을 능가하는

인간 탐구는 불가능하다. 자연, 사회, 인문 과학만의 인간 이해에는 한계가 있다. 인간의 운명 탐구가 문학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며, 인간의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주제요 소재이자 구성요인이란 점에서는 어떤 시대나 다를 바 없다.

야마오카 소하치(山岡莊八)가 역사소설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에서 근세 일본 통일의 야망을 가졌던 오다 노부나카(織田信長),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 세 인물을 간파하고서 그 개성적 변별성을 두견새 울음을 듣는 방법으로 상징화한 대목은 문학의 인간 탐구 방법을 단적으로 표현해준다. 두견새 우는 소리를 듣고 싶는데 어떻게 할까 라는 문제를 제기했을 때 안 올면 죽여 버리겠다는 오다와, 울도록 때리겠다는 도요토미, 울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도쿠가와와 개성적인 변별성은 곧 역사에서 최후의 승리가 후자임을 읽을 수 있는 문학적인 형상성의 예지이다.

나도향의 수필 <그믐달>이 걸작인 이유는 달의 아름다운 묘사력에서 나온 평가가 아니라, “오염하여 감히 손을 댈 수도 없고, 말을 붙일 수도 없이 끔찍하게 예쁜 계집 같은” “세상을 후려 삼키려는 독부가 아니면 철모르는 처녀 같은 달” 로 해석하는 인간 관찰의 혜안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노천명의 <여름밤>은 미사여구를 늘어놓아 농촌 여름의 밤 풍경을 수채화처럼 그리고 있지만 더 이상의 인간사에 대한 통찰력이 없다는 점에서 하급일 수밖에 없다. 그 아름다운 한 폭의 수채화 같은 작품에는 토착적인 농민정서도, 궁핍한 농촌상도, 그런 가운데서도 낙천적인 인간상도 등장하지 않는 단조로운 풍경화일 뿐이다. 물론 풍경만으로도 좋은 작품이 될 수도 있으나 역사와 인간사를 통찰하는 시선을 가진 작가의 시선을 넘을 수는 없다는 게 문학적 평가 기준이다.

(2) 가치 이월(價値移越, transference of values).

명작은 황금처럼 시대가 바뀌어도 그 가치를 잃지 않는 불변의 요소를 지녀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주역(周易)>>은 그 복합적인 구조로 난해하지만 모든 것은 변한다는 변역(變易), 모든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불역(不易), 변화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다는 간역(簡易)이란 3법칙으로 이뤄져 있다. 만물이 변하는 건 당연한 이치이며 변하는

데는 다 과학적인 원칙과 법칙이 있다. 밤이 가면 아침이 오며, 겨울이 가면 봄이 오는 것은 변역과 간역의 원칙을 말한다. 그러나 그 변하는 것 속에서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요인, 사랑과 구애의 방법은 달라도 암컷과 수컷은 서로 좋아한다는 등 우주만상의 원리는 영원한데, 이 불역, 즉 변하지 않는 요인을 많이 지닌 작품이 곧 명작으로 남게 된다.

시류적인 베스트 셀러가 묻혀져 버리는데 명작은 시대를 넘어 계속 독자를 감동시키는 원리가 바로 이 가치이월 법칙의 단적인 예다. 이게 보장되면 아무리 후기 산업사회에 우주시대, 노마드 시대일망정 살아남을 것이며 그렇지 못하면 이내 시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3) 불역의 요소를 간직하기 위해서는 작가가 건전한 가치관과 역사 의식, 민족의식을 바탕으로 인간주의적 세계관을 가져야만 가능할 것이다. 아무리 절세의 명문가라도 포악한 독재자를 찬양하거나 반민족적인 사상을 지녔다면 그 작품은 언젠가는 예리한 평론가의 분석으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은 곧 문학은 인간학인 동시에 영원히 인간주의적이며 인도적임을 입증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오늘의 한국문학은 우선 작가들의 세계관과 인생관, 역사관, 민족관, 등등이 빈약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다. 사상성이 구축되어있지 않는 글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시인 구상의 표현처럼 무정란(無精卵)일 따름이다. 은연중 이런 무정란이야말로 진정한 문학인 양 추켜세우는 풍조도 있다. 문학예술이 본래 지니고 있는 명작의 요소를 고의로 제거한 채 아무런 메시지도 없는 글을 선호하는 편견은 오랜 동안 우리 제도권 문학 교육의 그릇된 영향에 다름 아니다.

3. 예술적 형상성의 문제

사상성을 가지라고 하면 그 첫 반론이 그럼 논설이나 칼럼처럼 자기주장만 강하게 하는 게 명작이냐는 항의일 것이다. 문학은 예술이기에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과는 달리 반드시 훌륭한 예술적 형상성(形象性)을 갖춰야 한다. 자연과학이나 인문, 사회과학적 문장은 서술로

만족하지만 문학은 반드시 묘사를 필요로 하며 그 묘사야말로 형상성의 기본이다. 형상화 작업은 한마디로 ‘형상적 인식(Figurative recognition)’을 통해서만 획득되는 예술창작 방법론의 기초다. 형상적 인식을 통하여 작가는 시적구도(詩的構圖)를 창출해내야 하는데, 그 한 예를 들어보자.

박경리의 <<토지>>에는 선량한 농민 용팔과 무녀의 딸 월선이 서로 사랑하지만 여러 방해 요인으로 만족한 연애를 못 하는 것으로 나온다. 유난히 시샘이 많은 본처가 죽은 뒤라면 용팔로서는 고향을 등진 간도에서 월선과 정겹게 만년을 보낼 법 한데, 어쩐지 그는 정인을 남겨두고 산판만 떠돈다. 그러던 중 월선이 죽어가자 마지못해 귀가한 용팔은 아래와 같은 대화를 나눈다.

“임자.”

“야.”

“가만히.”

이불자락을 걷고 여자를 안아 무릎 위에 올린다(중략).

“내 몸이 찻제?”

“아니요.”

“우리 많이 살았다.”

“야.”

내려다 보고 올려다 본다. 눈만 살아있다. 월선의 사지는 마치 새털처럼 가볍게 용이의 옷깃조차 잡을 힘이 없다.

“니 여한 없제?”

“야, 없습니다.”

“그러든 됐다. 나도 여한이 없다.”

박경리 <<토지>> 제2부

이 대목을 읽고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겼다면 하급의 독자다. 한 여인, 천한 무녀의 딸로 천대를 받아가며 아내를 가진 한 남자를 극진히 사랑했던 한 많은 여인이 죽어가는 광경을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 축약시켜 시적인 구도로 형상화한 예는 세계문학사에서도 그리 흔한 일이 아니다.

용이의 몸은 차건만 여인은 차지 않다고 응대한다. 그리 오래 산 것도 아닌데 많이 살았다고 하며, 가슴에 깊은 한의 응어리가 맺혔건만 여인은 한이 없다고 말한다. 죽음을 앞둔 이 거짓말 대화는 근대 한국적 인간상, 특히 여인상의 한 전형을 나타내며, 그런 뜻에서 이 장면은 가히 탁월한 예술적 형상성으로 평가 받을만하다.

깊고 장황하게 묘사하는 게 걸작이 아니라 얼마나 그 대상을 깊게 통찰하여 핵심이 어디인가를 파악한 뒤 이를 재현시키고자 진솔하게 묘사해내는 기교야말로 문학적 형상화의 성패를 좌우한다.

나는 걸작으로 칭송 받는 이양하의 <나무>가 “나는 죽어서 나무가 되고 싶다. ‘무슨 나무가 될까?’ 이미 나무를 뜻하였으니 진달래가 될까, 소나무가 될까는 가리지 않으려다” 는 끝구절 때문에 영 도로아미타불이 되어버렸다고 본다. 영문학자답게 낭만적인 환상으로 나무의 속성을 찬양 일변도로 풀어낸 것도 이미 걸작의 조건에서는 탈락이지만 아무려면 내세에서 그런 나무가 되고 싶다는 건 나 같은 속물에게는 코미디의 한 장면에 지나지 않는다. 차라리 속세의 갖은 위선과 대비시켜 그런 나무를 닮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진솔성이 살아날 수도 있지 않을까.

형상성이란 진실을 담보해야 얻을 수 있는 공감대를 창출해낸다. 걸작은 글을 읽어 가면서 무리 없이 아, 이럴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분위기를 연출하는 기교이다.

에로티시즘 소설로 널리 알려졌지만 나로서는 위대한 걸작으로 평가하는 D. H. 로렌스 <<차탈레이 부인의 사랑>>에서 어쩌서 귀부인과 산지기가 스스럼없이 첫 성 관계를 맺게 되는가를 상기해 보자. 농담으로 한마디 삽입하면 대학의 문학 교양 강좌에서 나는 즐겨 이 장면을 시험에다 출제하는데 99%는 육욕에 미쳐서, 사랑해서 등등 상투적인 오답이 범람한다. 코니의 남편이 성불구니까 젊고 아름다운 아내가 육욕이 동해서 산지기를 유혹한 양 받아들이면 이 소설은 걸작이 아니라 에로물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박경리 보다 문장력이 장황한 로렌스는 너무 길게 그 첫 정교 장면을 묘사해서 여기 다 옮길 수 없기에 간략하게 소개한다.

어느 저녁, 그녀는 집을 나와 오두막 쪽으로 산책에 나섰다. 핑 새

끼를 보게 된다. 너무 귀여워 산지기에게 자기 손바닥에다 한 마리 꺼내 엎도록 한다. 그 꼼작거리는 생명력의 약동 속에서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게 되고, 여자의 눈물을 본 산지기는 “울지 마십시오” 라고 만류하는데, 우는 여자는 남자가 달래면 통상 더 울기 마련이고, 더 우는 여자를 본 남자는 측은함으로 달래기 마련이다.

산지기는 여인을 오두막 안으로 인도하여 눕도록 자리를 만들어 줬고 그러는 사이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들은 첫 관계를 갖게 된다.

핑 새끼를 통한 생명력의 약동 느끼기가 남편의 불구로 아이 가질 수 없는 슬픔으로 이어져 흘린 눈물이 산지기로 하여금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떠나버린 아내 이후 억눌러 왔던 원초적인 본능을 자극하게 된 것이다.

훌륭한 걸작이란 소설이나 수필이나 희곡, 시 모두가 이런 시적인 구도가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겠다.

4. 서정성이란 무엇인가

현대 한국문학이 빠진 함정의 하나에 ‘순수 서정성’에 대한 절대 신앙이 있다. 사회나 현실 문제를 다루면 서정성이 없다고 왕따 시키는 풍조는 시단이나 소설계에도 구시대의 유풍으로 남아있어 지나치게 고루한 순수문학이란 정조대를 차고 있는 느낌이다. 시단이나 소설계에는 이미 1970년대부터 사회비판 의식의 문학인이 기라성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학의 본류로 자리잡고 있다. 순수문학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서정성의 오남용을 바로 잡으려는 것이다.

대체 서정성이란 무엇일까.

헤겔은 <<미학>>에서 시와 산문이 차이를 지적하면서 시의 특징을 이렇게 말한다.

시문학은 태양이나 산, 숲, 풍경, 인간의 이적인 형상, 피, 신경, 근육 따위가 아닌 정신적인 관심사를 그 대상으로 삼는다. 왜냐하면 시문학은 그 안에 아무리 직관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요소를 띠고 있더라도 역시 정신적인 활동으로 머물며, 정신에 가까이 있으면서 구체적 감각성을 띠

고 현상하는 외부 사물들보다 정신에 더 적합한 내적인 직관을 위해서만 일하기 때문이다.

헤겔 <<미학>> 제3부 제3장

따라서 시는 “어떤 사상(事象)이나 그 실제 존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말로 이미지화하는 것”이라 정의하는 한편, 이와 달리 산문적인 것은 “원인과 결과, 목적과 수단, 그 밖에 한정된 사유의 오성적 범주의 관계에 따라 대체로 외면성과 유한성의 상태에 있는 폭넓은 실제 소재를 고찰한다.” 면서 아래와 같이 산문의 특징을 규정한다.

.....일반적으로 산문적인 표상을 위한 법칙으로는 정당한 것, 뚜렷한 규정성, 명확한 이해 가능성을 내세울 수 있다.

위와 같음

표현방법에서 시가 이미지를 창조한다면 산문은 오성(悟性)을 바탕한 명징성임을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 여기서 서정성은 시와 산문에서 두루 적용된다. 정지용의 시 <향수>에서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이란 구절에서 감지되는 서정성이나, 양주동의 수필 <노변(爐邊)의 향사(鄉思)>에서 “머슴, 소배(少輩)들이 모인 곳이면, 신 삼기, 등우리 만들기에 질화로를 예워싸 한창 분주하지마는, 팔씨름이라도 벌어지는 때에는 쌍방이 엮디어 서로 버티는 서슬에 화를르 발로 차 온방 안에 재를 쏟아 놓기가 일쑤요, 노인들이 모인 곳이며, 고담책 보기, 시절 이야기, 등네 젊은애들 버릇없어져 간다는 이야기들이 이 질화로를 둘러서 일어나는 일이거니와”라는 구상적 서정성은 일맥상 통한다 하겠다.

이 두 작품은 장르가 달라도 한 시대의 민중적 삶이 담겨져 있다는 점에서 같을 뿐만 아니라 그 정한이 맺힌 서정성에서도 일치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서정성보다 더 순수한 글을 ‘진짜 서정성’으로 보려는 경향이다.

“사월은 가장 잔인한 달.”

이렇게 읊은 시인도 있다. 이들은 사치스런 사람들이다. 나같이 범속한

사람은 봄을 기다린다.

피천득 <봄>

과연 T.S. 엘리엇의 <황무지>가 사치스런 시일까? 내가 보기에는 오히려 문학적 기법이나 정신에서는 피천득이 더 사치스러워 보인다.

“나는 비록 청춘을 잃어버렸다 하여도 비잔틴 왕궁에 유폐되어 있는 금으로 만든 새를 부러워하지는 않는다. 아- 봄이 오고 있다. 순간마다 가까워 오는 봄.” 이라는 끝 구절에서 피천득이 보여준 수사학적인 사치는 사월이 잔인하게 느껴지는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봄의 서정성과는 너무 멀어 보인다.

서정성이란 걸멋이나 감정의 분비물이 아니다. 헤겔은 서정성의 특징을 이렇게 정의해주고 있다.

첫째, 내면이 자신을 느끼고 표상하는 내용.

둘째, 이 내용의 표현이 서정시로 형태화되는 것.

셋째, 서정시의 주체가 자기의 느낌과 표상을 드러내는 의식과 교양의 단계.

위와 같음

이 말은 곧 서정성이 주관성에 바탕한, 교양된 주관적 감성에서 철저히 자기발언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정의와 상통한다. ‘자기 발화(自己發話)’ 이기에 독백적인 소통으로 대응발화를 지니지 않는다는 서정성은 이런 점에서 그 수용 방법도 수용자 자신의 주관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지 모른다(디이터 람핑 지음, 장영태 옮김 <<서정시 : 이론과 역사>>, 문학과 지성사, 참고). 고아에게는 ‘어머니’란 단어만 들어도 애수의 서정성이 넘칠 수 있으나 바람나서 가출한 어머니의 자식에게는 분노의 표상일 수밖에 없지 않는가.

신화처럼 전하는 전해린의 글을 읽으면서도 독일의 소도시 문명에 심취하여 그걸 낭만적으로 발산하는 정서가 어딘가 괴리된 멋쟁이로서의 느낌은 있어도 진솔한 삶의 서정성을 느낄 수 없는 것은 나만의 편견일까.

치열한 현실고발 작품이었던 김지하의 <오적> 마지막 장면은 주인

공 피수가 묶여 가는 것인데, 시인은 이렇게 묘사한다.

때는 노을이라

서산낙일에 객수가 추연하네

외기러기 짝을찾고 쪼각달 희게 비껴

강물은 붉게 타서 피흐르는데

어쩔거나 두견이는 설리설리 울어쌌는데 어쩔거나

콩알같은 피수묶어 비틀비틀 포도대장 개트림에 돌아가네

어쩔거나 어쩔거나 우리피수 어쩔거나

전라도서 굶고살다 서울와 돈번다더니

동대문 남대문 봉천동 모래내 온갖구박 다 당하고

기어이 가는구나 가막소로 가는구나

어쩔거나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한사정 누가있어 바로잡나

잘가거라 피수야

김지하 <오적>

여기서 나는 차라리 직정한 서정성을 느낀다. 요컨대 서정성이란, 흔히 말하듯이 서정시나 서정소설처럼 작가 스스로 충만한 감성과 진솔한 표현력으로 농익혀서 형상화하면 어디서나 나타나는 것이지 결코 주제나 소재가 결정하는 순수문학의 전유물은 아니란 뜻이다.

결론적으로 후기 산업화 시대, 노마드 시대에도 문학은 오히려 고전적인 명작의 개념과 가치관으로 회귀하는 게 가장 좋은 창작법이며, 그 기본은 서정성의 부활이라 하겠다.

임현영 : 문학평론가, 저서《문단시대의 문학》외 다수,

한국평론가협회회장,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창학부 교수

학생문단 | 시

강정숙
곽미영
김경훈
김상경
김점복
김정숙
류제희
민순임
박 경
박성희
박 훈
백영호
서성호
안민숙
안장수
이은미
이주영
임도순
정건우
정재환
조양비
최명희
최무선
한필애
홍순정

詩

시간의 물결

강정숙

안데스 얼음 동굴들은
수수만년 솟아오른 수증기로
물 주름 벽화를 새긴다지
한 겹 물결이 한 줄 무늬로 그려질 때마다
지층을 가르는 바람과 추위와 고산증을
견뎌야만 한다지
그렇게 새겨진 시간의 물결은
또 그만한 고통을 넘어선 자에게만
그 속을 보여 준다지

풀숲을 버리고 젖은 발도 걷고
피약별 아래로 기어 나온 저 달팽이도 지금
제안에 무얼 새겨 넣는 걸까
느린 배밀이를 하면서
맨땅에 벽화를 그리는 것은
뒤에 올 새끼들의 마른 길을 적셔 주는 걸까
기껏해야 길 하나를 건널 뿐이지만
물결이 물결을 끌고 가듯 주름이 주름을 포개듯
완성에 이르는 길, 것처럼 멀다

그를 슬쩍 건드려본다
딱딱하거나 말랑한 것도 아닌
끈적끈적한 몸 하나,
끝끝내 보여줄 수 없는 게 제 속이라 말하는
완고한 등 하나가 거기 있다
고통없이 완성되는 시간은 없다

|| 시 ||

풍금이 있는 풍경 外 1편

곽미영

이제는 늙고 병들어
소리도 내지 못하고
손 방귀만 뽕뽕 끼고있는
내원분교 할머니

꿈결인 듯
까르르, 쏟아지는 아이들 웃음소리에
졸고 있던 눈꺼풀을 들어본다.

무릎 위에는
누런 먼지 두껍게 뒤집어 쓴 음악책 몇 권
시간이 흘러 온 먼 길 주절주절 풀어놓고

한 때 그녀도
복숭아 빛 불이 참 고왔던 아이들과
도, 레, 미, 파 노래 소리
교실 창을 넘겼던 날들 있었다며
흄씨만 남은 민들레처럼
하얗게 웃는다

간 고등어

아침 식탁에 올릴
냉장고 속 간 고등어 두 마리
밤새 무슨 일로 토라졌는지
등 돌리고 누운 놈을
다른 한 놈이 가만히 안아주고 있다
쓸개 창자 다 파내고
끓고 짠 소금에 생살 절이는
고통 경험하지 앓고는
누구도 등 뒤에서 다 감싸 안아 줄 수 없다며
떨어질 줄 모르는 간 고등어
그 쫓득한 사랑
똑똑, 발라먹는 아침
입 안 가득 출렁이는 비린 바다

만선 外 1편

김경훈

새벽을 깨우는 뱃고동이 무섭다. 달동네가 흔들린다.
거울에 비춰지지 않는 망자를 찾아 던지는 갈고랑이그물
난, 난 저 차가운 갈고랑이가 싫어 창문을 닫는다.
창밖은 망자의 세상 그러나 갈고랑이는 슬레이트지붕을 뚫고
무덤을 뒤 덮은 칙냉쿨처럼 갈고랑이를 휘두르며 서서히 들어온다.
이 답답함, 내 목을 조이며 거울에 낀 성애가 나를 지운다.
점점 몸통부터 사라지고 방안은 온통 비린내로 가득하다.
얼마나 많은 망자들이 갈고랑이에 걸려 파닥파닥 할까.
삼일 전 남몰래 죽은 박영감의 신발도 툭툭 내리 털며
갈고랑이 걸리는 소리가 터진다. 지독한 외마디소리가
어느덧 산자와 죽은 자의 마당으로 조간신문이 던져졌다.
성애는 지운 그림을 다시 그리고 한밤에 던진 그물
끌어 올리는 기합소리가 활기차다. 출근하는 발자국마다
햇발이 눈부시다 창문 틈으로 흰 돛을 단 배가 뚝뚝 떠간다.
사골 국물같은 망자가 갈고랑이에 걸려 공중에서 팔딱팔딱 뛰어
신선하게 끌려간다. 오늘은 만선이구먼, 만선여. 재미가 아주 쏠쏠하
구먼.

거울 속의 거울

비에 흠뻑 젖은 울음이 길을 잃고 어둠을 지우고 있다
시집가시 전날 밤 거울 앞에서 울던 누이의 떨림으로
그 누군가가 흐느적흐느적 거린다 누구일까
꺾불을 당기며 느릿느릿 떨며가자
숲을 태우는 때 지난 달력 노을 사진이 찢겨져 있다
손에 들고 조각조각 맞추어 세밀하게 살핀다
알 수 없는 형체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웅장웅장 날개 달고
바람이 셋길에서 닦아 놓은 거울을 보고 있다
누굴까 누굴까하여 불러보자 눈알을 붉히며 나를 본다
산의 심장을 도려낸 아스팔트에서 죽은
마른 털가죽만 뽀족뽀족 세우고 공중을 떠도는 짐승이 나를 당긴다
갑자기 누군가가 창문을 두드린다
‘누구세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형체도 없이 사라진다 보이지가 않는다
눈알을 붉히며 거울을 보던 짐승이 나를 퐁퐁 매어 빗방울에 가뒀다.

외론 섬

김상경

섬에는 갈매기 하나 날지 않고
동박새 하나 울지 않는다
이름도 없이 해질녘 이거나 시간이 항아리처럼 비었을 때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검은 망토가 옷자락을 끌며 나타 날뿐
아침 햇살이 돛구 칠 때
사람들은 각자의 임무를 어깨에 걸치고
산 바다 골목으로 뒤돌아 볼 겨를도 없이 서둘러 떠난다
안녕 이라는 인사는 이미 낡아 빠진 나사처럼 한쪽에 녹이 쓴지 오래
하루를 톱니 바퀴로 기계 속을 돌다가 빠져 살의 일정량을 마모한 후
에야 끝나는
일당을 손에 쥐고 돌아 오면 섬은 벌써
검버섯 얼굴 하루 종일 퍼진 표정으로 이부자리를 깔고 있다
하나 둘씩 쪽지 젖은 비둘기처럼 돌아 오는데 망토의 배웅을 받고 있다
모두 지쳐 잠 들어가는 섬
갈매기 하나 날지 않고 동박새 하나 울지 않는다

왜 사냐 당신은 묻습니다

김점복

왜 사냐 당신은 묻습니다.
안 먹으면 죽잖아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왜 사냐고 또 묻습니다.
그래서 난 사는데 좋잖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왜 사느냐 라고 다시 묻더군요.
그래서 그냥이요 라고 대답하니
한숨만 짓네요.
왜 사냐 내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좋아서요 라고 하더군요.
사람이 그렇게 좋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다고 하더군요.
왜 사냐 당신은 묻습니다.

챔프의 일기 (故 최요삼 선수의 명복을 빌며)

김정숙

경계를 지우며 함뻑 피어오른 피 냄새
자궁 속 양수처럼 오래전에 편안해진 감각

시간차를 두지 않고 달겨드는 주먹보다 두려운 건
사각의 링 밖에 도사리고 있던 외로움이
점점 익숙해진다는 것
시간이 갈수록 낮설어지는 환호성 뒤에서
배반의 함성이 소란스러운 밤마다
관절 속으로 불면이 우글댄다는 것, 그리고

글러브 낀 양손에 흥건했던 내 꿈이
벽에 걸려 소담스러워진 오늘,
드문드문 살 오르는 기억으로
설레는 심장 소리 들으려 문드러진 얼굴 기울여본다
푸른 심장 끝으로 나지막한 언덕의 작은 집에
아침이 밝아오는 소리 들려온다
서둘러야겠다.

|| 시 ||

폭설 外 2편

류제희

개 짖는 소리 눈 속에 파묻힌다.

몸 속 어디에선가, 백설의 길들이
자꾸 무너져 내린다.

산짐승 속 뜨겁게 품어 안은 뒷산
생솔가지 탁, 탁
어둠의 관절을 꺾고 있다.

깻단을 털며

더 이상 대항하지 않았다.
참깨꽃 탐스럽게 솜털 입술을 달고

깻단을 거꾸로 매질한다.
여름 내내 음모한 사건을 실토하라고
차례로 매질을 한다.
정직한 뼈마다 으스러지도록

고소하게 영근
햇살이 우루루 쏟아져 내리고

오늘따라 죄도 없이
쫓그려 앓은 어머니
굽은 등허리가 눈물처럼 뜨겁다.

|| 시 ||

산벗꽃

하현달 같은
신발 한 켤레
곡우 지난 산자락에
벗어놓고

꽃상여 한 채
활활 타오르고 있다.

그리움

민순임

고개를 왼쪽으로 까딱거립니다
익숙한 행위입니다
언제였는지 기억 할 수 없지만
슁슁슁 로켓을 타고, 저 별에서
오른쪽 발을 땅에 대고 두들깁니다
익숙한 행위입니다
눈이 시러, 눈물 반 방울 떨어지다가 멈추는
안쪽주머니에서 하얀색 허공을 꺼내봅니다
익숙한 행위입니다
가게 진열장에 안에 있는 물건들을 바라보는
뿌연 먼지가 슬며시 피었다가 가라앉는
그럴 때면
진열장 안으로 저녁이 찾아듭니다
바람이 딱 한번 불니다
수천 수억 개의 먼지가 깊은 의미 속으로 가라앉습니다
손짓이, 한번 까딱거리면
알코올 가득 찬 미치광이 별이
기억을 더듬어 그곳으로 찾아옵니다
그럴 때면
슬픔도, 먼지 속으로 찾아듭니다
저녁에 무국을 먹었습니다.

태양과 나 外 1편

박 경

어둠을 씻고 태양은 발자국을 찍었다
발자국은 나와 하늘의 다리가 되어준다
밤새 마신 흥주에 취했으나
빌딩사이 젖은 바람도 비틀거리니 바람 닿는 곳은
태아를 품고 가슴으로 밀어 넣었다
하늘은 알을 낳았다
도시의 그림자를 지우려 알은 나비처럼 날아 다닌다
도시의 한 귀퉁이에서 태어나
건물사이로 빛들이 빠르게 지나간다
알이 지나간 자국마다 밤새도록 마신 흥주에
그들은 실눈으로 어기적어기적 살아난다
유리창엔 얼음이 흩어지니 타일 위에 화초는 입김을 먹고
저마다 하루를 향해 반복되는 하루살이 뿌리를 내려본다
알을 품은 빛은 유리창을 뚫고 내 몸을 뚫고 거실 바닥에 앉는다
난 알을 품고 서쪽을 향해 흠없이 질주한다.

그 안에는

구름 사이로 따뜻함이 스며든다
온기 담은 곳마다 빛이 뿌리박고 앉는다
사랑에는 풍경이 있고
흐린 하늘에 새털구름이 있다
그의 혀끝에 흘리는 말들은
혼을 흔들어 놓았고
동굴 속에서
그의 눈빛은 눈부셨다
봄날에 첫 피어난 꽃처럼
여리고 아린마음
순결한 달 아래에서
수 없는 발걸음 그 앞에 쏟아 놓는다
물과 바다는 하나
산과 나무는 하나
하나가 얼음 속에 갇혀 있어 바람만 스쳐 간다.

천리향 꽃향기에

박성희

홀홀 옷 벗고 나비가 된다

베란다 천리향 꽃 만발하고
그 향기마다 나비 앉았다
내 코끝에 향기 들어오고
그 향기에 나는 눈 감는다
천리향 꽃 만발하는 넓은 초원에
내가 누워있다
나는 훨훨 옷 벗는다
꽃향기에 가벼워지고
그 향기에 취한 나는 나비가 된다
겨드랑이에 날개가 돋어나고
파란 하늘에 향기 따라 날고 있다
저 만치 허공 맴돌아 다시 돌아오는
꽃에서 꽃으로 꿀을 찾아 나른다
하얀 꽃 사이에 하얀 나비 나른다
꽃잎 사이사이를 훨훨 날고 있다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나비가 되어 날고 있다
홀홀 옷 벗고 나는 나비가 된다

뚝베기 찌개가 까맣게 타고 있다

|| 시 ||

절벽 위의 길 外 1편

박훈

또 다시

절벽이다

꿈에 그리던

날 뛰어넘는 길

산자락 내려앉던 비안개 속에 내 생은 튕겨져, 어느덧 미친 하늘 타들
어갈 때 절벽도 따라와 흰 파도 울먹이는 그믐달 같은 길을 열어준다

신발을 벗어놓고 돌이켜보는 살모사 혀 같은 구렁이 같은 길 뱀 허물
벗어놓듯 나를 버리고 바다를 입는다.

바닷가 고목 두 그루

저 남쪽 바닷가
송림의 끝
두 그루나무

아침 바닷가로 나갈 때
한 나무가 또 한 나무의 머리채를 휘감고
무어라 소리치고 있었다

저 나무, 외박하고 돌아온 모양이군
옆 사람이 중얼거리며 흐흐 웃었다

저녁 노을이 나무들의 아랫도리를
터진 감처럼 물들일 때,
이번엔 그 반대로 휘감졌던 나무가
다른 한 나무를 자꾸만 애무하고 있었다

이봐, 마누래. 그래도 내겐
당신 밖에 없어.
그들의 속삭임이 내 귀에
바닷물처럼 철썩였다.

|| 시 ||

회전 출입문 外 2편

백영호

좌회전인가
우회전인가
아니
직진인가

1 인분 씩 담겨져
한 순간에
배출해 버린

안과 밖.

이사오던 날

한아름 설렘 안고 쓰러진 새집
얼마전 전시를 끝 낸
아내의 한국화 한 짝을 걸기위해
거실 한 복판에 자리 정하고 못질을 한다

뺨치로 못을 파악 잡고
온 정신을 못 대가리에 꽂아
짱짱
불꽃이 튈 때까지도
벽은 제 몸을 열지 않는다, 지독히도
온갖 궁리 끝에
세 번은 살살 세 번은 팡팡
등줄기에 땀흘려 하나를 박고 나니
약간은 물리가 터지고,
못 세 개 박는데 한 나절 몽땅 날아갔다

어렵게
정말 어렵게 열어준 몸
힘들었던 만큼 情도 빠르게 들어
이젠 빠질까봐 먼저 겁내며
밤낮으로 붙들고 보는 형국
벽에서 빠져나가면 어찌나
진땀 흘리며 발목 잡는다.

상생의

밥을 짓는다
압력밥솥에 스위치 켜고
췌에췌에
증기기차 소리를 내더니 멈췄다

뚜껑을 조심조심 열어
김들의 용오름 보며
고실고실 밥알들을 백자사발에 모신다
윤기 반지르르
찰기 자르르르
열기 화악화악
화기 애애애애
밥알끼리 뜨겁게 살 부비며 포옹하는 현장

점심나절 출출하여
모셔 둔 백자사발의 식은 밥 한 덩이
물 한 대접 부어 말았다
금새 까칠까칠해진 몸뚱아리
서로의 살 밀쳐내며 오그라 들더니
눈 흘기며 찬물에서 오돌돌 떨고 있다

천상,
송능 한 대접
뜨근뜨근 데워서
후우후우 불며 마셔야겠다.

슬픈 내 공원

서성호

어젯밤 늦은 시간까지 피곤함으로 걸친
술기운 탓이었을까..
풀리지 않는 짓눌림에
공원길 아침 찬공기를 가로지른다.

저 만치서 운동복 차림의 노인
절룩 절룩
뛰는지 걷는지 힘겨워 보이는데..
풍인가 보다.
내가 훗날 저리 될리 만무하건만,
웬지 쓸쓸하다. 인생은 살아봐야 하니까..
어쨌든 지금은 뭔가를 해야만 한다.
찬바람을 탓해도 소용없다.

문득 섬뜩한 것이 눈에 아른거려
순간 ‘아차’ 하고 고개를 돌렸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나의 예민한 뇌는 그것을 확인하려는 듯
뇌맥은 벌써 뛰고 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시뻘건 눈은 하늘을 향해 치켜뜬 채
찬 바람에 못이겨 박제처럼 굳어있다.
공원의 주변 이 자리엔 풍의 흔적들이 널브러져 있다.
빗방울이 뚝고간 흔적처럼...

차디찬 낙엽만이 소리없이 영기는 이시간,
가끔 지나치는 그들의 무심이 흐른다.
어쩌면 그들은 그들만의 고통과
번잡한 환상에 골몰하고 있겠지.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그때도 그랬다.
십오년전..

그땐 그래도 살고 싶어 어설픈 날개짓은 하고 있었다.
그렇 그렁한 피눈물을 떨구며
떨리고 저리는 두손으로 끌어 안았다.

도움을 청해 보았지만
자기들 얼굴의 밥풀때기만 신경쓸 뿐.
남의 얼굴에 묻은 밥풀때기는 조롱거리는 웃음일 뿐.
사랑이 메말랐기 때문일게다.

微動에도 끄덕 거리는 눈이 너무도 애처로워
몸서리치고 싶었다. 이젠 긴 목의 脈만 뛰고 있는 것 같았다.
곧 숨이 끊길 듯이...

딱지처럼 눌러 붙은 맘을 억지로 다독거리려 떼어내곤
발걸음을 옮겨 공원길 절을 찾았다.
이름모를 탐 아래서

난, 차갑고 날카로운 돌하나를 주어 땅을 팠다.

날숨과 들숨의 경계가 미미했던 그를
눈물 방울 떨구며 질끈 감고 눕혔다.
흙가루 날리며
그는 점차 이 세상을 덮고 있다.

그의 무덤 위로 떨어지는 뜨거운 물방울들..
비가 오려나...하늘을 본다 누부시게 시리다.

그렇게 잊혀진 그 모습이 지금 또다시
시뻘건 피가 낭자한 모습으로
메마른 가죽만 남긴 채..
이미 숨이 끊졌는데도 위태 위태하다
아..바람이 춥다. 옷깃을 저민다.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고개 돌려 그냥 지나친다.
의식의 저변에 깔린 십 오년의 세월이
날 그렇게 만들었나 보다.
언제나 이렇게 멍을진 모습으로 살아야 하겠지...

저만치서 젊은 연인이 까르르 하며 걷고 있다.
운동하는건지 연애하는건지...자기들끼린
즐거워 보인다. 저게 행복인가 보다.

어쩌면 그들 손에 든 봉지엔 비둘기 모이가
잔뜩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 시 ||

나팔꽃 外 1편

안민숙

창신동 외판 섬
빨래가 펄럭인다 곳곳에
버려진 살림살이와
급한 걸음이 남긴 신발 한 짝
절반이 넘는 짐을 털어 내고도
제 무게조차 견디지 못하는 철거민 아파트

담벼락에 나팔꽃 줄지어 펄럭이고.

박하사탕

출출한 빈 그릇이 식탁마다 둘러앉은
다 저녁 밥집에 털퍼덕 주저앉았다
육개장을 기다리며 자꾸 부어오르는 허벅지를
문지른다 이걸 어찌
다섯 시간은 더 버텨야 할 두 기등을
손바닥으로 두드리고 달랜다 달래다 일없이
휴대폰 1번을 꺾 누른다 혼자
라면을 끓이던 아이가
숙제 다 했구요 준비물도 다 챙겼어요 다 다
뒷말 이르기도 전에 아이는 전화기를 내려놓는다
야, 야 친아줌마 잔소리로 볶아 내온 밥상이 이제야 차려진다
별건 고추기름을 걷어낸 세상은 여전히 맵다 점점
입안이 화끈거리고 쓰린 삶이 부어 오른다
2번을 누른다 아홉시까지 들어갈게
육개장에 다시 밥을 만다 이번엔 휴대폰이 울린다
안사장 내일 세시
벌써 한 달
건물주가 과일을 씹으며 통보를 한다
예예, 준비해 놓을게요
식은 밥상 물리고 밥집을 나온다
친아줌마 내미는 박하사탕 입안에서 구르고
차가운 외투 부스럭부스럭
사탕 한 알 쥐어주고 돌아서던 아버지의 등 뒤를
오늘은 내가 따라 간다.

|| 시 ||

역새 外 1편

안장수

역새밭 만나러
높 건너, 계곡 올라
산정에 오르다

화왕산 역새밭은
능이로 몸을 말다
마른 마디에서
물기 뺏어
산정호수 이루다

역광에 비늘처럼
우웃 빛 떨구는 전율
갈가마귀
창천을 휘어이 도는
흰 으악새

언제부터일까
축제날 주인공 되어
흰 영혼 하늘하늘
목 꺾이는
십자능선 역새

초췌한 몰골
서걱이는 뼈마디
아, 아니리
낙조에 불타며
탄성 지르다

햇발 뺨치다

자비동산 가는 길 못미쳐 오른편, 희망병원과
십자정신요양원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오늘은 나랏님 부재자 투표하는 날
왼편 희망병원에서는 치매요양환자들이 휠체어 또는
맨발을 짚뚝이며, 영금거리며 강당 투표소로 향한다.
솔밭에는 햇별 십자가 찬연히 퍼지고 병원 위
녹색 십자표지는 생명의 푸르름으로 용약하다.
오른편 정신요양원에서는 철장을 배회하던 환자복의
원생들이 열 명씩 순열로 햇별을 맞으며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
어떤 이는 봉투에서 투표지를 빼어 가족이 보낸 전상서인양
눈물 닦고, 다른 이는 이름을 더듬으며 손을 뺀다.
“투표하니 어때요?”
“…… ”, 고개 수그리고 눈 내리깔다.
자비동산 내려오는 길, 어느 행인이 손을 흔들길래 차에 태우다.
그분 말씀, “우리 마누라 남매 둘 낳고 정신 온전치 않아 만나는
이마다 ‘이 쌍것아!’ 라며 대들어, 하릴없이 요양하잖아요.”
날뎀 팔아 한 달에 15만원씩 요양원에 보태고, 자녀들 대처로
떠난 아랫귀네 마을의 텅빈 촌집.
오늘은 아내가 있는 요양원에도, 텅 빈 그네 집 마루에도
햇발 오지게 퍼지며 ‘땅엔 나랏님, 외양간엔 주님!’을 음송하다.

바다오리

이은미

수직으로 내달리며 퍼덕이는 날개가
어둠속에 잠시 빛났다.

흐르는 고요 안에 제 소리는 가뒤편 채
젖은 날개 안으로 파르르 떨리는
심장하나 단단히 동여매고
날개를 퍼덕인다.

살아가는 세월동안 날카로운 절벽을 보고
살아낼 날들이 많았기에
숨 막히게 몰아치는 파도의 거친 음을 들으며
어쩌면 파도 속에 영원 잠겨버릴지 모를
두려움의 기억들은 날개 속에 말아놓고
밤이면 저벅저벅 절벽 위를 오르는 소리

어둠 속에 빛나는 격렬한 날개 짓으로
나비같은 가벼움으로
상공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돌아온 자리
날개 안에 감추어진 젖은 심장이
팔딱이며 숨을 고르는 고요의 시간

노아의 변명 外 1편

이주영

들어오지 마세요 미성년자는 출입을 금합니다 영업시간 종료. 마른 안주 사절. 그대가 내미는 팁따윈 필요없고 자, 맛나게 윈크를 하실 수 있다면 뒷문을 열어드리지요 좀 냄새가 날 것이지만 참아야 되고 한번 들어가면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다는 거 그것이 매력입니다 방주는 언제나 열리는 게 아니거든요 캄캄한 것이 위안이 될 수도 있어요 알 수 없다는 것의 자유를 누리잖아요 뭐 좀 기괴한 소리가 나도 별거 아니에요 그냥 좀 비가 오는 거니까 한번은 크게 외쳤잖아요 비가 올 거라고 비가 많이 오니까 집을 빌려준다고 했잖아요 한번 얘기 했을 때 귀담아 들어야지 나는 기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제발 들어오지 마시라니까요 여기는 천국이 아니에요 사람이면 다 들어 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한번 듣고 알아듣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다가요 별 거지같은. 비둘기는 똥을 너무 많이 싸, 데리고 오지 말 걸 그랬어 비둘기 따위, 문에다 걸쳐 둘 걸 그랬어. 가끔 비가 오고 있군 괜찮아 아직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잖아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내 할 일이 끝난 셈이야 아, 언제 저 목소리가 잔잔해지지? 조금 웃어주는 사람은 들여보낼 걸 그랬나? 하지만 그들은 바보같아 제발이라고 했어야지 한번만이라고 했어야지 안일하고 능청꾸러기 같으니라고 어떻게 여길 들어 올 생각이란 걸 할 수 있지? 기어이 비가 오는 군 그녀는 비를 좋아한다고 했어 비가 오면 회색 커피를 마신다고 했지 회색커피에 온몸이 물들겠군 그래도 그녀는 비를 좋아한다고 할꺼야 그런데

분명 비는 그칠거거든. 친절히 모시겠습니다 잘 해드리겠습니다 MR. 비입니다. 한번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아, 들어오지 마세요 단속중입니다 웃어요 그렇지 않으면 걸린다니까 그래요 아주 모른척 웃으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하나님, 이제 그만, 그....만 할까요? 힘들어서요 사기치기도 힘들어서 다 들어오라고 하죠 걸러내기도 힘들어서 몽땅 말아먹어버리든가, 저도 이제 모르겠어요 젠장.

시립도서관에서

그날이었을 것이다
옥수수 눈처럼 하얗게 질서를 기다리는 동안
사람들을 좀처럼 놓아 주지 못하고
방향도 알 지 못하는 길을
의자는 모두를 묵인하고 있었다
수선같은 정오가 되면
조용히 사람들을 놓아주고
그림자처럼 걸어가는 투명인간
모두가 입을 열지 말아야 하고 삶이 눈으로 버려져야 한다.
하얀 질서를 무너뜨리고 싶었다
종종 침묵같은 열기를 놓아버리고
낮선 사람과 찰지게 영긴 햇빔처럼 끈적이고도 싶었다
아무도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해 내지 않는다
토끼장에 문이 열려 있는 것은
늙은 도서관이 정신을 놓아버린 탓 일게다
누군가 매번 문을 열어 주고
토끼의 눈은
파랗게 멍들어 있었다.

|| 시 ||

거울 外 2편

임도순

눈 그치고
처마 밑 고드름
시퍼럴 때도
고독은 자란다.

날 서린 바람이
푸른 귀를 오릴 듯한
그만그만한 키를 뚫고
나의 붉은 혀는
부딪치는
태양의 과편을
날름거리
핥는다.

가끔은
몸뚱아리 덮어 누르는
울음이
귀 베인 칼날
시늬한 소리로
장막을 친
대나무처럼 누워도

저어기
저기
내가
또
있어

|| 시 ||

주유소

가다가 지치거든 내게로 오시오
내가 에너지를 넣어 주리라

가다가 문득 후회스러운 생각이거든
언제든지 부담없이 오시오
나는 당신이 걱정하는 바를 들어 주겠소.

당신의 피로를 어루만지는 나의 손은 한개요
당신의 신음을 들어주는 나의 귀는 네 개 이지만

당신이 가실 때
나의 손과 귀 열두 개를
떼어가도 좋으리라.

천국의 문

병원 통로에는 많은 환자들이
아픔을 꿀꺽 삼키며 다닥다닥 좁은 의자에
앉아 진통제 같은 의사발길을 헤아린다.

이웃의 아픔이 허벅지를 타고 전해온다.

어디가 불편해서 왔어요?
나도 전에 그렇게 아팠는데요
이 병원에서
나왔거든요.
세상엔
참
아픈 사람이
많은가 봐요.
천국에는
아픈 사람이 없을까요?

나는 방한복을 벗어
팔에 걸쳤다.

|| 시 ||

이대역 2번 출구 外 2편

정건우

계단 꼭대기에는 비 오고
찰박대며 내려오는 사람들 젖은 발바닥이
내가 서 있는 평탄한 바닥에서
뽐송뽐송한 소리로 마른다
가출한 아들 휴대폰에서 보내온
위치찾기 프로그램 시그널이 멈춘 이곳

몇 시간 전 포항에서
중환자실에서 혼을 놓은 어머니 메마른 가슴을 그어가던
모니터 속 초록 입자들이
잠수함에서 발사한 음파처럼
무겁고 깊은 어둠을 더듬어 길을 찾듯이
문을 열고 나가는 내 뒤통수에서 반사되던 소리

내가 그동안
뱉어낸 무수한 말들의 억양 속에서
스스로 흥분하면서
자잘한 목청의 높낮이를 비상과 추락이라고 까불어대며
핏대를 세울 동안 정작 너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구나

어디로 가려느냐
저 아래에서 올라오는 경쾌한 파열음의 발소리도
이곳을 지나면 철벽철벽 잦을 것이니
이 평평한 바닥에
도화지를 덮어 오가는 걸음들을
마아블링처럼 건지고 싶은
이대역 2번 출구.

비탈에서

경사면에서 잡초를 뽑는데
자꾸만 한쪽 발이 미끄러지며
몸 전체가 아래로 처박히려한다

관성의 법칙도 허물어지는
이 비탈에서
질리도록 푸르고 깨끗한 잡초

시간은
비스듬하게 내리치는 칼처럼
바람소리를 내면서
이 푸른 표면에
술한 상처를 남기며 지나가지만

땅 밑에 아득히 깊은
마음 아래에
달고 싶은 하늘은 있어
가장 가까운 수직의 거리로
뿌리 내리느니

지상의 몸이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더욱 더 단단하게 박히는
저 깊은 생의 중심.

두호시장에서

가게 문 밀고 나오다가
쳐다본 하늘 저만치 높고 뾰족한 교회 탑 끝에
누군가가 걸어 놓은 열쇠처럼
노을에 잠겨 있는 십자가

눈앞에
기댄 전봇대에 고단한 등뼈를 펴는 할머니
원을 그린 듯 맵시 있는 모서리로 전을 펼치고
미동도 없이 표정도 없이
밥식혜, 감말랭이 등속을 내려다보고 있다

가지가지 발길들이 이 좁은 골목을 흔든다
컴컴한 가게 안에 백열전구가
싸우듯 흥정하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다시 불러들이고
창틀 시커멓게 태우는 음식 냄새들
오가는 걸음들에 이리저리 치인다

소음에 질리며 사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몸에 뺨 소리를 털어내려 부딪치고
서로 흔든다
온갖 비명과 악취들이 바닥에서 스멀거린다

할머니가 그어 놓은
숙성된 아치라인의 안쪽은 늘 고요하다
찌든 소리와 냄새가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는
저 단단한 적막
저 견고한 경계

저무는 시장통 난전에
오가는 사람들 종아리 사이로 내리는
예수 같이 십자가 같이.

|| 시 ||

거울 속의 가면 外 1편

정재환

밤이 되면 사람들은 거울을 두드리고
어둠 속에서 거울은 문을 열어준다
오늘은 가면 무도회가 열리는 날
서로의 이름을 모른 채
만월(滿月)이 될 때까지 살을 맞댄다
무대 중앙에는 가면을 떨어뜨린 자가
십자가에 묶인다
순간 음악이 끊어지고
가면들은 이빨을 두드리며
서서히 포위망을 좁혀오다가
하이에나처럼 먹이를 향해 달려든다
새어나오는 붉은 장미 한 다발
달의 핏기가 서서히 지워지면
저마다 들어온 거울 밖으로
로그아웃 한다.

시간은행 가는 길

시계가 나를 바라본다
권태로운 오후 두 시다
책상 위에는 숫자들의 잔해가 놓여 있고
소화된 시간들은 태엽을 감고 있다.
오늘은 한 시간을 절약했다
지갑에 시간을 넣고 은행으로 향한다
거리에는 초침이 바람처럼 불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양손은
서로 다른 시간을 가리키고 있다
알람시계처럼 떠들어 대는 소녀들과
시계추를 흔들며 뛰어가는 남자
지팡이를 짚으며 서서히 걷는 노파에게는
시간도 정지된 듯 흐른다.
시간은행으로 가는 횡단보도의
파란불이 깜빡거리는 사이
눈은 붉게 충열되고
맨홀뚜껑으로 떨어진 시간들이 스며들고 있다.

떼잔디 外 1편

조양비

아버지 무덤에 찾아 갔었다
한식 때 큰오빠가 옮겨 심은
소나무는 멀충하게 서 있었다
작은오빠 똥고집에 파내지 못한 아주 오래된 밤나무는
소나무 어깨 죽지에 밤송이를 올려놓고 있었다
이파리 손짓하며 물들기 시작하고,
풀벌레 소리 구름 몰래 들려 오고 있었다
소나무가지 깨우며 서늘한 바람 비벼오고,
개미벌치 뼈죽 고개 내밀어 햇살 받아먹고 있었다

무덤가를 도르고 나니,
얼마 남지 않은 햇살이 흔들리고 있었다
아버지가 두 손 내저으신 줄 알았다
산등성 머리위에 먹구름이 벌겍게 부어올라
비 뿜어 나올 것 같다고
어여 내려가라 하시는 것 같았다

촛촛한 떼잔디가 장대비에 쓸려갔고
봉분이 붉은 햇바닥을 내밀고 있었다

아내가 화장을 한다

허연 옷부터 빨래한다 20분 불림, 세탁3회, 헹굼3회, 탈수10분 버튼을 누른다 남은 시간 118분이다 20분 동안 새하얀 거품을 물고 눈웃음 치며 텔레비전을 보다 일어났다 아차 세제를 안 넣었다 로즈향 섬유 린스도 세제통에 부었다 다시 돌린다 헛기침 섞어 청소기를 돌린다 구석구석 침대 밑까지 흡입기를 밀어 넣고 최강으로 짹싸게 빨아들였다 청소기가 저릿저릿 미친 진동을 한다 아직 90분이나 남았다 대충 걸레질하고 나니 한 시간 남았다 텔레비전을 본다

쿠바에는 초록색 투명한 초록파푸아달팽이가 서식한다 껍데기의 빛깔이 아름답다 달팽이가 나뭇잎 위를 곰작곰작 기어간다 새들이 날개를 파닥거린다 마주 앉은 산새가 날아간다

공기방울 소동이 끝났다 달팽이처럼 전신을 오그린 채 어깨와 팔은 휘어져있다 속도에 감기면서 길게 풀리는 바지가 빨랫줄에 호주머니를 잃고 있다 잔뜩 오그렸던 몸을 푹푹이 폈다 아내의 원피스에 얼룩이 남아있다 세탁기안 반쯤 기어들어갔다 다보탐은 여전히 보수공사 잘되어있다 허리가 아프다 배가 고프다 물을 마신다 컴퓨터를 켜다 우리집 인터넷은 정말 빠르다

아들이 들어온다 고기 구워줄까? 고기 구워 주세요 고기 구워준다 탤다 아빠! 이제는 고기 안태우고 구울 수 없어? 상추는? 깻잎 줄까? 깻잎이라도 쥐 설거지해라 또 나아 엄마 태우러 갈 시간이다 엄마 태우러간다

|| 시 ||

검은 빨 外 1편

최명희

폐유로 뒤덮힌 광활한 바다가 울고 있다
애타게 소리치며 자유를 갈구한 생명이 질식한다
빛을 잃은 수 많은 영혼들이 잠들어가고 있다
멀리 바라 볼 수록 가까말다
가슴이 타들어 가는 깊이 보다 더 깊은 파도가 운다
청량하고 푸르던 얼굴 없고
하늘보다 까아만 서러운것만 서리서리 뭉그러져 있다

|| 시 ||

태안바다

싱그런
그대의 얼굴에
검은 기름 맥질해 놓고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바라만 보며
두발 동동 뛰는
어지러움이라니,
아프다
사랑하는이의 몸이 갈기갈기 찢겨지고 있으니.
원통하다
아!
원통하도다

땡별 外 1편

최무선

세상의 모든 것을 집어 삼킬 듯한 눈
그 강열함에 못견딘 티끌들
끝내 들키곤 하지요.
차라리 온몸을 당신의 눈길 속에 던져 넣습니다.
한치의 그늘도 허락하지 않는 정점
나는 당신의 그림자를 업고
당신은 나를 업었습니다.
타는 불길 속으로 빨려 들어간 그늘이
재가 되어 똑똑 떨어질 때에
내 은밀한 티끌들도 빛이 됩니다.
한줌 재가 되기 위하여
땡별 앞에 홀로 다가섭니다.

연날리기

먼 하늘을 향해 날아간 가슴 파르르 떨고 있어요.
푸른물 먹인 한지의 파장마다 날아가는 나의 새들
연보다 더 먼 나라로 점이 되어 사라져요.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새들 날아가고

땅이 붙잡고 있는 발 자꾸 바람에 나부껴요.
바람이 손끝으로 당겨주는 팽팽한 실 한 올
그와 나의 간극을 오가는 가느다란 외침을 타고
조금씩 하늘이 나를 향해 오고 있어요.

|| 시 ||

방죽의 샘 外 1편

한필애

수련 몇 송이 가슴팍에 심어놓고
겨드랑이로
송사리며 피라미 새끼들을 낳아
당신이 오기를 기다렸다

경칩이었나
천둥소리 들리고
당신의 발자국 소리도 들렸나 싶어
나도 모르게 찌억찌억
비명을 지르기도 했었다

여름해는 찰진 고무줄 같아서
능선의 나무들을 길게 빨아들였다
내 안에서 꽃들이 피고 졌다

눈이 내리고 쌓이고
황홀한 침묵이 운명이라면
그대로 견뎌야 하리라 생각했었다

해찰

마우스를 끌어다 클릭을 하자
정수리가 흰한 교수님의 이빨이 가지런하다
화면 밖으로 폭탄이 튀어나올 것 같이
강의하는 입귀에 침꽃이 핀다
발이, 다리가 점점 시려온다
집중하지 못하는 고질병이다
정강이까지 냉기가 차오르자
대야에 뜨거운 물을 받아
찰싹 몇 개 띄워 발을 담근다
칠판을 향해 돌아선 정수리가 클로즈업되고
전신이 녹작지근하다
어느새 퍼질러앉아 발을 문지른다
물은 점점 꾸정꾸정해지고
발바닥이 뽀얗다
컴퓨터 화면은 까맣다
교수님 벌써 가시면 어떡해요

시대의 저주와 축복

홍순정

한 뇌성 마비 환자가 두상을 열고
특정한 생각의 뇌파를 인식 할 수 있는 칩을 넣었다한다

어느새 곁에 와 있는 유비쿼터스 세상을 동영상으로 보며
아직은 휠체어에 앉은 채 한 부분만 유비쿼터스화 된 그,
이제 언제 어디서든 무엇이든 유비쿼터스화 된 천지개명을 본다
한편 거짓말처럼 거짓말 탐지기 칩을 모든 사람들 가슴 한복판에
집어넣어야만 살 수 있는 유비쿼터스의 그 날이 오면
투명한 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투명한 사람을 낳지 못한 선생은 어둠
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선포하지 않는 선견자는 저주를 받
을 것이다

그런 축복된 세상을 꿈꾸며 거의 끝나가고 있는 동영상의 한 장면을
보는데

내 몸은 두서없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취재가 끝나자 주인공은 기다렸다는 듯

휠체어 두 바퀴 위에서 접고 있었던 두 손을 팔랑이며

T.V 정면을 향해 바퀴를 돌리는 순간

이제껏 닫혀 있던 T.V 세상이 햇살처럼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닌가?

구름 걷힌 하늘에 태양처럼 떠오른 T.V 를 보며 연신 반짝이는 그의
눈빛과는 달리

나는 평퍼짐한 중년 여인의 눈빛을 본다
오래도록 살갑게 남편 곁에서 시중 들었을 그녀,
남편을 칩에게 빼앗겨 버린 그녀의 눈빛에 내 속에 갇혀 있던 온갖
쓸쓸함이

핏기 하나 없는 숨결과 땀방울로 쏟아져 나와 자리를 깔고 눕는다
내 몸은 그 조그마한 칩에 바스락 소리 한번 못내고 무너진 것이다
언 호수 위에 떠 있는 목각오리 두 마리
주둥이 서로 모아 입김 나누고 있다

움직일 수 없는 날개죽지
운명처럼 잡고
슬프고 서러운 호수 위에서
바람에 몰려 서로에게 다가가 있다

이 겨울이 다가기까지
호수가 열었다 녹았다 하는 동안
그들은 서로에게 다가가기도 하고
등을 돌리고 혼자서
얼음과 찬바람을 견디기도 하겠지

발이 묶인 목각오리의 가슴은
매일 날개짓한다
아직은 먼 강을 향하여
그래도 돌아올 봄을 향하여

학생문단 | 수필

노정숙

박은숙

안장수

隨筆

귀에게 바침 外 1편

노정숙

사귀던 남자의 집에 첫인사를 갔을 때다.

이마는 드러내고 긴 머리는 웨이브를 주어 늘어뜨렸다. 둥근 얼굴이 가름해 보이라고 붉은 절반썸 가렸다. 식사를 마친 그의 어머니는 다가왔으라고 하더니 가려진 머리를 제치고 귀를 드러내 본다. 이리 저리 보다가 성이 안 차는지 만져보기까지 한다. 굳어 있던 내게 편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앞으로는 귀를 내놓고 다니거라.”

부처나 신선, 옛날 왕후장상들을 그린 그림을 보면 귀가 크며 귓불이 두둑하고 아래로 늘어져 있다. 그 시대엔 귀가 크고 귓불이 늘어진 것을 복이 많고 잘 생긴 귀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건강면에서 볼 때는 좋은 귀가 아니라고 한다. 한의학에서는 신(腎)이 멀리 듣는 것을 주관한다고 본다. 귀의 모양에 따라서 신장의 건강상태가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귀의 위치는 하악골 앞에 단정하게 붙어 있어야 신장의 모양 또한 단정하고 건강하다고 한다. 그리 크지도 작지도 않고 올라 붙지도 내려앉지도 않은, 그저 그렇게 생긴 내 귀는 어른의 심사를 일

단 통과한 셈이다.

신장의 기능이 귀와 직결되며, 그가 주관하는 일 중에 ‘정(精)’을 저장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한다. 정이란 정액을 비롯하여 사람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근본적 물질을 가리키는데 정이 있어야 모든 장기와 기관들이 조화롭게 움직일 수 있다고 한다.

연로하신 친구의 아버지가 가는귀를 먹었다는 말에 가족들은 장기간의 각오를 다져야 한다는 농을 하며 웃었다. 가는귀를 먹으면 장수한다는 옛말은 어쩌면 틀린 말인지도 모른다.

귀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신장에 이상이 있는 것이며, 따라서 건강의 적신호인 것이다. 그러나 이 옛말은 우리의 몸을 자연의 일부로 생각하여 나이를 더하면서 스러지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우리 선조들의 마음자세에서 나온 말인 듯하다. 들은 것도 못들은 척 거슬리는 일에 대해서 너그럽게 대하라는 뜻이 아니었을까 여겨진다.

귀의 기능은 청각을 수용하는 것과 평형감각을 관장하는 것이다. 입을 통해 밖으로 나온 소리는 귓바퀴에 모여서, 고막을 지나고 청소골을 거쳐 달팽이관으로 들어간다. 실제 달팽이모양과 흡사한 그곳에 있는 청세포의 활동을 청신경이 화답을 하면 대뇌에 전해진다. 우리는 이때에 비로소 소리로 인식을 한다. 그 긴 경로 중에 작은 이상이라도 생기면 바로 평형감각을 잃는다. 귀의 임무 중에 소리를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평형감각이다.

고흐는 왜 귀를 잘랐을까. 상처받은 영혼 때문에 평형감각을 잃고 싶었던가. 단순히 청각을 거부하고 싶었던가. 귀의 순종에 대한 반란은 아니었을까. 귀를 자르고 정신분열로 힘겨웠던 고흐가 권총 자살로 죽음을 맞은 6개월 후, 유일한 후원자였던 그의 동생 테오가 만성신장염으로 형의 뒤를 따라 세상을 떠났다. 고흐가 학대한 귀와 테오가 앓고 있던 신장염은 관계가 있지 않을까. 고흐도 어쩌면 선천적으로

신장이 나빠서 귀가 약했는지도 모른다. 귓병을 자주 앓으며 귀울이에 시달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명(耳鳴)현상이 길어지면서 안정감을 잃어 평형감각이 무너진 것은 아닐까. 고흐과 테오도 신장과 귀의 관계처럼 보이지 않는 끈으로 굳게 묶여 있었던 듯하다.

시인은 귀의 위험성을 예고했다.

‘귀를 찢는 아이 울음소리로
침단 무기를 만드는 걸 보면
귀는 눈보다 덜 위험하지 않다.
지나가는 말 한 마디에 제 목숨 끊을 수도 있으니,
귀는 위험할 수 밖에,
스스로 열고 닫을 수 없으니,
귀는 더 위험할 수 밖에.’

- 이성복의 「귀는 위험할 수밖에」 중에서

눈치가 있는 눈은 스스로 열고 닫을 수 있다. 언제든 눈감을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 우직하기만 한 귀는 스스로 닫을 수 없어 늘 무방비로 열려있다. 귀의 가장 큰 일은 가슴에 담을 말과 흘려도 좋을 말을 가리는 것이다. 한쪽 귀로 들은 것을 다른 귀로 흘려버릴 수 있는 권한을 잘 써야 한다. 가슴에 상처를 만들지 않으려면 말답지 않은 말은 가차 없이 흘려버려야 한다. 지혜에 눈뜨는 것도 귀의 일이다.

귀는 품이 넓다.

뻥한 거짓말이 섞여도 용서할 수 있는 달콤한 속삭임, 가볍게 간질이는 귀엣말도 좋다. 거친 숨소리가 귓바퀴에 구르며 뜨거운 입김이 귓불에 스칠 때 귀는, 몸의 문을 여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 사랑은 귀의 순종에서 시작한다. 귀가 자유로울 때 감성이 열린다.

감성에 후한 귀가 이성의 기능에는 인색하다. 열린 세상이라지만 상생은 걸치레뿐이고, 이견을 용납하는 속귀는 여전히 닫혀있다. 넓게, 멀리, 치우치지 않는 평형감각을 포기한지 오래다. 좁은 무대에서 좌와 우로 나뉘더니 남과 북으로 나누었고, 동과 서로 나뉘더니 진보와 보수로 나누었다. 더 깊은 골은 신세대와 구세대로 또 나뉘어서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같은 소리만 반복한다. 평화와 화합은 광고용 멘트였나, 이곳에서는 평형감각을 잃지 않은 사람은 회색분자로 몰린다.

불타의 각도(覺道)는 귀를 통해서 왔고, 성모마리아의 수태도 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기다리는 소리를 들을 수 없으므로 내 귀는 아사 상태다. 그러나 신들이 갖지 않는다는 귀에 매달리는 나는 다행이다. 늘 나약하고 몰염치한, 그러나 가끔은 부끄러움도 떠올리는 지극히 인간적인, 인간적일 수밖에 없는 이 갈등이 다행이다.

어른의 시험을 통과한 귀가 제값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맘머느리면서도 눈치없이 ‘귀머거리 3년’의 시집살이도 모르고 예까지 흘러왔다. 아들도 머지않아 사귀는 여자를 데려올 것이다. 어쩌면 나도 그녀의 귀를 이리저리 살피며 탐색할지 모른다. 그때를 대비하여 후하게 말하는 법을 먼저 익힌다.

“귀가 참 예쁘구나.”

사막에서는 바람이 보인다

모진 바람에 휘어진 고사목이 말을 걸어온다.

부러진 자리에 날 세운 채로 빛바랜 모양새, 그 곁에 무성하진 않지만 진초록잎을 달고 서 있는 두 그루 나무도 기웃거린다. 겨우 발목께나 올까, 드넓은 사막에 듬성듬성 풀들이 연록을 내보이고 있다. 그중 숨을 놓은 것들은 발바닥을 가차없이 찌른다.

영성한 풀 사이로 작은 도마뱀이 재빠르게 나다닌다. 메뚜기인지 풀여치인지 미미한 날 것들과 저들끼리 분주한 개미도 보인다. 모래언덕에 핀 메꽃의 연분홍 꽃잎이 빠져다. 모래바람을 견디며 스스로 실패했나보다. 습기가 배어있는 바닥으로 봐서 멀지 않은 어딘가에 물을 품고 있으리라.

비얀고비 - 몽골어로 풍부한 사막이란 뜻이다. 비얀, 비얀 입안에서 구르는 말 맛 만큼은 매끄럽다.

바람은 서늘한 입김으로 평원을 만들고, 가끔 걱정이 몰아치면 구름과 언덕도 만든다. 바람의 순한 눈짓 한번이면 구깃구깃한 길을 펴서

실크로드로 만든다. 끝없는 웅단에 잔잔한 줄무늬를 새기기도 하고, 폴짝폴짝 뛰어넘고 싶은 잔파도를 그려놓기도 한다.

사막은 바람의 품 안에 있다. 모래언덕 아래 그늘을 만들어 잠시 쉬기도 한다. 맨발에 닿는 모래의 감촉은 바람의 혀인 듯 부드럽다. 한낮의 작열하는 태양은 모래구름을 뜨겁게 달구고, 밤이 되면 시린 달과 별들이 내려 그 열기를 식혀준다. 뜨거운 모래를 조금만 힘주어 들어가면 속살의 서늘함에 정신이 아뜩해진다. 사막의 생명력이 전해온다.

그 사막에서
그는 너무나 외로워
때로는 뒷걸음질로
걸었다.
자기 앞에 찍힌 발자국을
보려고

- 「오르탕스 블루의 ?사막」 전문 -

파리 지하철 공사에서 공모한 시 콩쿠르에서 당선한 작품이다. 사람들로 붐비는 파리의 지하철에서 밀려 온 것이 외로움이란 말인가.

나는 무엇을 확인하고 싶어서 이곳, 사막에 와 있는 건가.

나도 뒷걸음질로 내 발자국을 확인해 본다. 앞에 펼쳐진 비칠거리는 발자국들은 다름 아닌 내 모습이다. 적당히 흐트러져서 편안한, 사방으로 열어젖힌 감성은 바람의 진원지다. 걸음마다 따라오는 흔적을 보며 그리운 사람과 홀로 동행해 보기도 한다.

사막의 끝은 어디일까, 어느 바다에 다다를까, 가파른 벼랑에 이를까. 시리도록 파란 하늘과 맞닿은 저 끝이 궁금하다. 고사목 위에 잠시 앉았다 떠나는 새는 또 어디서 쉴까. 무리를 이탈한 새는 홀로 녀

넉한 풍경이 되어 사막과 잘 어울린다.

지평선에 닿아있는 사막 저편에 대한 동경으로 발이 푹푹 빠지는 둔덕을 기신기신 넘는다. 모래사막 한켠에 수직의 언덕이 있다. 거의 가파르게 경사진 모래언덕은 발자국이 남지 않는다. 밝은 즉시 발자국은 스르르 흘러내린다. 저항 없이 함께 흘러내린 곳에서 다시 올라오는 데는 노고가 필요하다. 직각으로 꺾어 올라오는 다리가 떨린다. 곧 추서려는 나를 사정없이 흔든다. 이 가슴의 통증은 어디서 따라온 것일까.

사막 초입에서 땀국 흐르는 얼굴에 말뚝내를 풍기는 유목민 아이들을 만났다. 그들의 어른들이 언제부터 사회주의를 버리고 자본주의가 되었는지, 수도 올란바타르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다닥다닥 조잡하게 자리를 메우고 있으며, 얼마나 쉽게 싸구려 문명에 길들여지고 있는지를 아는지 모르는지 이방인을 무표정하게 바라볼 뿐이다.

물이 귀해 씻지 못한다고 저들이 안쓰럽다고 생각하지 말자. 그 흔한 TV를 못 보고, 안락한 자동차를 타지 못한다고 불행할까 염려하지 말자. 시멘트문화에 길들여 있는 우리의 알팍한 산수를 오히려 가엾게 여길지도 모른다.

저들의 검게 탄 피부는 초원의 건조함을 닮았으며 깊은 웃음은 사막의 허허로운 바람소리에 이어진다. 저들의 눈동자는 하늘이 만들어 주는 사막의 빛깔처럼 깊다.

유목민에게는 역사가 없고 지리가 있을 뿐이라는 들뢰즈의 말이 공허한 바람 소리로 들린다. 들뢰즈는 나그네의 목적지가 장소가 아님을 잊었는가. 유목민은 권위적인 수직의 타성을 거부하고, 광활한 수평의 열망이 깊다는 것을 모르는가.

사막에서 외로움을 논하는 것은 당치 않다. 이는 사막의 생명력에

눈뜨지 못해서다. 외로움 타령은 오히려 사람으로 봄비는 도시의 지하철이 제격이다. 사람 안에서 사람은 외롭다. 사람에게 위안을 얻으려는 기대감으로 외로움을 토로하는 것이다.

사막은 사막 자체로 그득하다. 아주 작은 바람에도 반응하는 맨얼굴의 지순함이며, 여리고 못난 생명 붙은 모든 것들을 보듬는 너그러움이며, 어느덧 경계를 넘어선 이름들로 풍성하다.

꿈꾸기 넉넉한 사막, 없는 것 가운데 충만한 기운이 전해지는 불가사의한 모래벌판. 바람 앞에 딱 숨을 멈추고 싶던 순간순간들. 수직의 모래언덕 아래로 끝없이 구르고 싶은 충동을 겨우 참은 걸 바람은 안다.

풍경으로 물결치는 바람을 듣는다.

아이 外 1편

[내가 엮은 중국인 (1)]

박은숙

“예전에는 어디에서 일했지?” 하고 묻는 내 말에 ‘아이’ (보통 일하는 사람이나 아줌마) 는 한국인의 집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다고 자신 있게 대답했다. 몇 마디 묻다가 말이 서툰 외국에서의 낯선 생활이라 내일부터 와서 일하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물었다. “글은 읽고 쓸 줄 아느냐” 이름 석자만 간신히 그려냈다. 하뿔사! 무슨 수로 의사 소통을 한단 말인가? 하지만 결정을 내리고 난 후라 다시 되돌릴 수는 없었다. 후에 안 일이지만 한국인의 집에는 겨우 삼일 있었을 뿐이다.

이 곳 광썩우는 수많은 중국인에게 기회의 땅으로 불려지고 있는 곳이다. 부의 상징으로 일컫는 도시인만큼 중국경제의 모든 압권이 이곳에 몰려있다. 그러나 항상 부를 걸머진 사람에게만 유용한 기회가 주어질 뿐, 하급 생활자의 힘겨운 삶의 모습은 거리 곳곳에 넘쳐난다.

이 ‘아이’ 역시 기회의 땅을 찾아 고향을 등지고 도시로 내밀려온 한쪽이다. 얼굴 가득한 검푸른 점에 깡마른 체구의 그는 웬지 가까이 하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거리감과 낯설음이 느껴졌다. 호시탐탐 남

의 사생활을 엿보는 듯한 그의 눈빛과 경박한 행실이 그것이다. 그는 30살의 결혼한 ‘아이’ 인데, 고향에 시부모에게 아이를 맡겨두고 남편과 함께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대부분 외국인의 집에서 일하는 아이에게는 일만 시킬 뿐 눈길조차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식사도 주인이 먹고 난 후 부엌에서 선 채로 먹는 것이 그 들의 일상이다. 음식도 같은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먹을 것을 따로 장만해서 먹는다. 하지만 사람의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한 식탁에서 먹자고 권했다. 한데, 웬걸 첫 날 식사 준비가 다 되자, 먼저 밥그릇을 들고 정신없이 퍼먹는 것이 아니냐? 우리네 관습은 어른보다 먼저 밥숟가락 드는 법이 없다고 일렀다. 소귀에 경을 읽는다는 말이 왜 필요한지, 선 듯 밥그릇을 들고 일어서면서도 연신 밥을 입으로 떠 넣으며 너도 먹으라는 눈치다. 도통 위아래 구분이 안 선다. 왜 ‘아이’ 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는지, 부엌에서 따로 밥을 먹게 하는지 지레짐작이 간다. 말도 안 통하는 ‘아이’ 와의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었다.

다음 날 외출했다 돌아오니, 오전 내내 무엇을 했는지 집 안이 엉망이다. 하지만 제법 맛있는 냄새가 집안 곳곳에서 났다. 야! 음식을 장만 했나보다 생각하니 기특했다. 착각의 자유도 잠시, 자신이 먹을 음식만 시장에서 장을 보다 혼자 해먹고 치웠을 뿐 내가 먹을 밥은 없었다. 밥이 없냐고 했더니, 배고프냐고 반문한다. 다음 날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아이는 또 내게 묻는다. 배고프냐....

‘아이’ 야! 일하는 너만 힘들고 배고픈 줄 아냐! 못 알아듣는 너희 나라 말 배운다고 아침도 거르고 꼬박 4시간 강의를 듣고 돌아오면 배가 고프는 정도가 아니라 피곤하고 힘이 들어 숨이 넘어 갈 지경이라고....작은 것 하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시간들 속에서 든 주눅은 어떻게 하고, 그의 비정함을 일깨움은 나의 단순한 바람일지도 모른다. 모든 가치가 허쳐되고 의심스러워질 무렵이다. 일몰이 있으면 내일의 일출이 있으련만 지는 해의 날실과도 같은 일몰만이 그 안에 있

는 것은 아닐까.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앉아 아이에게 이야기했다. 외출에서 돌아오기 전에 청소를 마치고 최소한 밥이라도 준비하라고 일렀다. 그리고 오후에는 함께 이야기하고 쉬도록 하라고 했다. 정말 다음 날은 외출에서 돌아오자 집 안이 보기에는 말끔했다. 정리 정돈하는 것을 가르쳤더니 그나마 알아들은 모양이다. 현대,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설것이를 마치더니 소파에 큰 대자로 벌렁 드러눕는 게 아닌가! 청소하고 설것이를 해서 힘이 들다나, 어땡테나, 차라리 눈을 감고 말자....

아이하고 승강이하기를 포기하고 중국어 공부를 하려고 책을 펼쳤다. 갑자기 책상 앞으로 다가오더니 내 어깨에 자신의 팔을 툅하니 꽤 고 서서 내가 쓴 글자를 읽었다. 부수도 틀린 글자를 읽으며 아는 체를 하고 나서니 날보고 어찌란 말이나. 사사건건 따라 다니며 호기심 어린 참견을 해 몹시도 심기가 불편했다. 내 방으로 숨어 들 듯이 들어갔다. 걸보기에는 말짱한데, 구석의 먼지는 그대로 쌓여있고 쓰레기통은 비우지를 않아 가득 차여 있었다. 화장실엔 휴지, 수건조차 매달려 있지를 알았다. 청소를 한다는 게 장소만 옮겨 놓았을 뿐 그 자리만 이탈한 것 밖에 의미가 없었다. 그 ‘아이’의 눈에는 충분히 깨끗하다고 느껴졌으리라.

곧 바로 아이가 내 방에 따라 들어왔다. 또 다시 그의 사냥이 시작된 것이다. 뭐가 그리 궁금한 게 많은지, 보는 것마다 쫓물딱대고 침을 트며 묻는다. 그의 말은 사투리가 심해서 정말 알아들을 수가 없다.

저녁 식사 준비를 하려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따라 들어오리라고 생각했건만 혼자 TV를 보느라 정신이 없다. 들어와서 보고 배우라고 했다. 못한다고 잡아 땀다. 내가 월급을 더 주고 싶어도 네가 할 줄 아는 게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고 말했다. 갑자기 아이는 내가 하는 일에 끼어들어 거들기 시작했다. 그 ‘아이’의 머리 속에 돈의 계산이 주판알처럼 튕겨나기 시작한 것이었다. 일을 잘하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그의 머리 속에 박힌 순간 그는 어제의 ‘아이’가 아니었다.

그 후 아이와의 생활이 익숙해 질 무렵 ‘아이’의 집을 방문할 계기가 있었다. 도심을 조금 벗어 난 그의 집 주변은 내가 사는 곳의 도시적인 분위기와는 달랐다. 붉은 색으로 치장된 빛 바랜 연화며, 붉은 간판의 상점과 부적들, 거리마다 넘쳐나는 느릿한 그들의 습관 되어진 일상의 모습 등...중국인의 삶이 고스란히 배어 있는 골목마다의 풍경이 다채로웠다. 하지만 골목 깊숙이 들어가자, 길가에 늘어 선 거리의 여자들, 골목마다 마작에 여념이 없는 남녀노소, 하지만 더 놀라왔던 것은 그의 집을 들어서는 순간이었다.

대낮인데도 어둡침침한 집 안에 예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작은 알전구가 가까스로 버티고 있었다. 전구 알 밑으로 흐르는 삶의 전율이 본능이 되어 꿈틀댔다. 2평 남짓한 공간에 6명이나 빼곡이 지내고 있는 그들의 방안은 말할 수 없이 초라했다. 나무로 짠 침상과 다락처럼 2층을 만들어 겨우 포개고 지내야 할 만큼의 좁은 공간 안에 부엌과 화장실이 함께 놓여있었다. 재래식 변기 바로 옆에 놓여진 한 칸 짜리 낡은 가스기구와 밥솥 하나, 프라이팬 하나, 그리고 식용유와 소금이 전부였다. 도대체 여기에서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낡은 보자기로 가려진 그의 침상 위를 또 다른 두 부부가 계단을 타고 오르내린다고 생각을 하니 참 난감했다. 겹겹이 흐르는 가난의 벗지 못 한 때가 그들을 감싸고 있었다. 옷 안으로는 연신 물줄기 같은 땀이 흐르는데, 마음으로는 한기가 느껴졌다. 그런 환경 속에서 항상 환한 웃음을 지어내는 그가 두렵기도 했다.

그의 남편은 거의 집에 있는 날이 많다. 일이 있으면 나가고 없으면 집에 갇혀서 하루 하루를 보낸다고 하지만 거의 집에서 노는 것 같았다. 남자들의 일자리가 쉽지 않다는 말을 익히 들어왔기 때문이다. 돌아 볼 것이라고는 아무 것도 허용되지 않은 침침한 공간에, 앉아있을 수조차 없는 그들만의 유일한 공간에서 뒤척이며 돌아눕는 녹녹한 바

람이 느껴졌다. 그 곳에서 중국의 작은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이 내겐 또 다른 두려움으로 다가왔다. 그래도 숨쉬는 중국의 역사 속에 한 덩이 달 꽃이 되어 버린 그들의 삶이 중국의 아침을 연다는 생각이 고개를 내밀었다.

난 ‘아이’의 웃음을 단 한번 훔친 죄로 많은 인내의 시간들을 필요로 했다. 그의 생명력으로 가벼워진 나는 다시 먼 길을 걷는다. 길 위에 쏟아진 커다란 만남을 등에 지고.... 그 만남 속에 따스함으로 다시 서리라. 아니 그 만남 속에 따스함으로 남아 있기 위해 힘을 가한다. ‘밥이 하늘’이라 말한 어느 시인의 말처럼 그 ‘아이’는 오늘도 양푼 가득 하늘을 먹고 있다. 누군가 버리고 간 것 같은 삶을 비켜가지 못한 그의 얼굴 곳곳에 떨구어진 해 맑은 웃음 한 점. 네가 힘에 겨울까 두려워 차마 마음으로조차 즐거움을 담지 못한다. 어지럽도록 습하고 더운 그 길을 ‘아이’는 오늘도 털그럭대는 자전거로 오르고 있다.

삼겹살 집 총각

[내가 옛본 중국인 (2)]

동잔 부근, 어수선한 시장골목에 접어들면 뭇 중국인의 냄새와 생활이 잘 어우러진 재미있는 풍경을 만나게 된다. 역 주변이라 이제 막 객지에 발을 딛고 올라 온 이와 떠나는 이들의 발걸음으로 지저분하면서도 달뜬 분위기로 살가운 곳이다.

거리에 늘어선 누추한 차림을 한 리어카 행렬 노동자들의 여유 있는 만담, 그들을 유혹하는 거리의 여자 호객 행렬들, 거리에서 만나는 이들의 언어와 몸짓은 중국 각 지방의 토속적인 모습으로 활기가 넘친다.

길가 작은 식당 앞에 진열해 놓은 음식들은 기웃거리기만 해도 군침이 돈다. 닭발, 양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등의 고기류(혹시 쥐고기도 끼어 있지 않은지 장담은 할 수 없다. 쥐고기는 다른 고기보다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그들이 슬쩍 끼어 파는 고기 중의 하나이다)와 갖은 야채를 꼬치에 끼워 지나가는 객들의 시각과 입맛을 자극한다.

시장 통의 끄트머리에는 동북의 음식문화를 한국인의 식성에 잘 맞춘 삼겹살 집이 있다. 그 곳은 4명이 가서 맘껏 먹어도 우리 돈

10,000원으로 충분한 아주 값싸고 허름한 음식점으로, 평소 내가 잘 드나드는 집이다.

음식점 주변의 누추함과는 달리 이른 시간인데도 밖에는 대기하고 있는 손님들로 붐빈다. 숯불을 피워 올리는 연기 사이로 음식을 나르는 종업원들의 손놀림이 매우 분주하게 보인다. 이곳은 평소 외국 손님이 많은 탓에 손님만 보면 서슴없이 마술사가 주문을 외우듯이 원하는 음식을 늘어놓는다. 이글거리는 숯불에 올라오는 삼겹살과 된장찌개, 고국에서 먹는 그 맛과 비교 할 수 없지만 그런대로 향수를 달래기에는 충분하다.

내가 그 곳을 갈 때면 음식주문을 받으러 오는 잘 생긴 한족(중국인) 총각이 있다. 중국인 특유의 억양으로 통명스러워 보이면서도 가끔 베어 나오는 서글서글한 웃음이 매력이다. 그런데 나는 그 총각을 볼 때마다 눈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난감하다.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볼 때마다 열려있는 그의 바지 지퍼는 말할 수 없는 난처함이다.

거리를 걷다보면 막노동을 하는 하급자들과 마주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들은 한결같이 약속이나 한 듯이 지퍼가 내려가 있다. 중국에서 내가 피하고 싶은 눈길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한번 궁금증에 빠진 이상, 자꾸 그들에게 눈이 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그들의 지퍼는 안 올린 것이 아니라 올라갈 수 없는 고장난 지퍼라는 것을 알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 부주의로 여겼던 그들 하급 생활자들의 힘겨운 삶의 모습이 단적으로 표현되는 부분이다. 고장난 지퍼쯤이야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그들만의 삶의 방식,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정말 작은 일도 쉽게 단정지을 수 없는 내면의 모습이 많이 내재해 있다.

지난달도 여지없이 그 잘 생긴 총각은 주문을 받으러 내 앞으로 다가왔다. 그의 앞주머니(지퍼)가 병그레 하게 열려있으려니 했는데, 웬걸

그는 정말 멋있는 복장으로 나타났다. 진로 소주에서 나온 참이슬의 광고가 찍힌 앞치마를 두르고 수줍은 듯이 내 앞에 메뉴판을 내밀었다.

“야! 너 오늘 정말 멋지다! 항상 그 앞치마 두르고 있어라, 정말 잘 어울린다.”

총각은 내 말의 의미를 아는지 모르는지, 기분이 좋아 연신 싱글벙글이다. 그 뿐이 아니다. 칭찬 한 마디에 그는 부르지 않아도 연신 드나들며 시중을 들어주었다. 시키지도 않은 공짜 물건을 내밀지를 않나, 다른 날과는 달리 후한 환대를 받았다. 중국은 원래 공짜가 없는 곳이다. 식당을 가서 냅킨, 종이 물수건을 달라고 해도 꼭 음식값에 가격이 포함되어 나온다.

진로 소주의 참이슬 로고가 찍힌 앞치마는 고장난 바지의 지퍼를 감춘 것뿐만이 아니다. 잘 생긴 중국의 한 총각의 자존심까지 세워 기약 없는 한 사건의 막을 내리게 한 중요한 앞가림 판이었다.

일거양득이란 말로는 부족한, 마땅히 떠오르지 않는 단어가 나를 즐겁게 한다. 참 요긴한 물건일진데, 그 것이 우리의 상품이라는 것과 그 속에서 우리 민족의 숨은 저력이 새어나오는 걸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던 말인가?

새삼 한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운 날 나는 무엇을 더 망설이랴! 소주 한 잔에 삼겹살과 더불어 이제 그들을 감아올릴 내 두레박을 내려야겠다.

개도 사람처럼, 사람도 개처럼

안장수

영혼결혼식은 영결식이다.

생각은 흐르는 강물과 같아 시나브로 바뀐다. 과거에 대한 회상은 아름다운 추억일 수 있으나, 되짚는 순간 뗏자국이 묻는다. 누구는 오래 입은 셔츠를 빨 때, 소금에 담그라하고 꿀이나 레몬에 담가두면 담백해지며, 마지막엔 쌀뜨물에 헹구면 햅쌀처럼 윤기가 조르르 흐른다고 한다.

생각은 날이 가고 달이 가며 희미해진다. 다시 더듬어도 좋은 기억만 떠올리곤 한다. 떠올리다 싫증이 나, 곧 후회한다.

특히 우리는 꽃에 대한 이미지를 선호한다. 목련이 필 때, 친구는 게 시판에 사진과 시를 보내왔다. 아파트 입구, 자목련 꽃이 환하게 피어, 거실을 들여다보고, ‘왜, 들여다보는지 알아요?’ 하고 묻는 듯 하단다. 목련에 대해 상념을 되내어 본다. 흰 목련화는 이차돈의 목에서 나온 흰 피, 백사의 목을 낮으로, 희광이처럼 낮으로 치면 백목련 꽃물 들지 않을까? 자목련은 예수의 옆구리에, 로마병정이 찌른 창끝

에서 멍든 핏빛, 십자화가 아닐까? 순수한 눈을 지니지 못한 자는 꽃을 보면서도 마음이 순일(純一)치 못하다. 나무, 풀, 꽃들도 음악을 들으면 성장률이 향상된다지만, 이심전심은 시인들의 상상력이 빚어낸 결과가 아닐까.

하여, 짐승에게, 내발달린 짐승에게 마음을 의탁한다. 짐승은 경계의 눈초리를 풀지 않고, 광포히 짚어대기도 한다. 산짐승 아닌 집짐승은 처음엔 경계를 하다가도 나중에 의탁한다. 진 빛도 없고, 부탁할 일도 없으니 눈빛이 묽고 여리고 환하다.

인간에게 있어서 참다운 친절은 오로지 어떠한 힘도 지니지 않은 상대 앞에서라야 순수 그자체로 나타날 수 있다. 인류에게 있어 진정한 도덕기준은 자신의 운명이 인간의 자비심 여하에 달려 있는 것들, 즉 짐승들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에 놓여있다(밀란 쿤데라)

요코다 메구미와 김영남. 김씨의 어머니는 “몰래 영혼결혼까지 시켰는데... 죽기 전에 아들, 손녀 볼 날 올까?” 28년 맺힌 눈물이 흐른다. 죽은 줄 알고 영결식까지 치렀는데, 북한에 살아남았다니.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고 사랑하고 헤어지고 죽는 과정은 인연에 따라 여러 갈래로 갈린다.

그 사연을 어찌 모다 꿰리오.

그이는 덕구와 진돌을 맺골마실 사랑채에 들여와 함께 생활했다. 덕구는 생일기념으로 입양하였고, 진돌은 식당주인의 손을 물어 불량소녀로 몰려, 주인이 샴으로 엉덩이를 때려, 엉치뼈가 부러진 채로 우연찮게 입택하였다. 덕구는 용모가 준수하고 8대째 내려오는 명가의 아들이다. 진돌은 부모가 누구인지 모른다. 다만 피부가 붉은 점으로 봐서, 하인즈워드가 미국에서 다시 온다면 혼혈인우대증을 수여할 지도 모른다. 덕구는 나무로 튼튼히 지은 목조가옥에서 생활하였고, 진돌은

플라스틱으로 조립된 주택에서 인근에서 생활한다.

강에서 불어오는 찬바람 속에 냉방에서 온몸을 비비면서 추위를 견뎌내고, 꽃피는 봄이 오면 꽃비를 맞으며 덕구는 진돌에게, 진돌은 덕구에게 꽃춤을 추려하나 큰댁 아저씨가 질투를 내어 발목에 쇠고랑을 채워놓았다. 이들은 가을비 내릴 적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입맞춤을 하였으며, 눈이 펄펄 날릴 적엔 웬지 결혼식을 올릴 기대로 가슴이 부른다.

꿈동산은 화사하다. 영덕 삼사해돋이동산에서는 덕수와 진선이가 야외결혼식을 올린다. 복사꽃비가 봄바람에 얼굴에 덮여씩우니 현란하다. ‘소망하면 열매 맺는다’ 라는 말이 예사롭다.

진선이. 그녀는 충남 서천 서면 율리, 바닷가 근처에서 태어났다. 아버지가 군장성인 관계로 관사생활을 했는데, 그곳 관사에 미남총각인 세관장이 들어와 함께 생활했다. 진선은 덕수를 오빠처럼 따랐으며, 대전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느라, 또 세관장도 이동이 있어 헤어지게 된다. 장래를 기약하지 못한 채. 진선은 덕수생각에 열병을 앓았고, 봄꽃은 모두가 상사화로 보였다. 덕수는 진선을 여동생으로만 생각했고 진선의 속마음을 몰랐다. 덕수는 진선에게 결혼식 초대장을 보냈다. 진선은 머리를 깎고 입산했다. 그 후 속세에 내려와 의성, 포항 호미곶에서 레스토랑을 하며 심사를 달래며 한 송이 피지 못한 꽃으로 지냈다. 레스토랑 영업도 보증을 잘못 선 관계로 실패하여, 다시 영덕에서 조그만 조개구이식당을 차렸다. 여기서도 전기료마저 체납되어 식당을 접고, 강구에서 남의 식당에 심부름을 하면서 지냈다.

개는 결코 애덴동산에서 추방당하지 않았다

어떠한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전원적인 것을 선물할 수는 없다
그것은 짐승뿐이다 - 짐승은 애덴동산에서 추방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갈등도 없고 고통도 없다 어떠한 변화도 없다

개는 인간에게 간곡하게 묻는다
인간의 대답 - 진실(절실하게)
들으려는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을 인간이 느끼게 한다
무엇이든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것은 진실 그 자체이다
명명조차도 개에게는 진실이며 그 같은 진실을 자신의 삶에 주어진
의미로서 받아들이고 거기에 자신을 일치시키려 - 두려울만큼 신뢰
가 담긴(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진돌과 덕구. 그네들은 작년 청명날, 문중산에서 가토를 하고 돌아온
주인의 형님되는 이에 의해 실종되었다. 트럭에 실려 미지의 곳으로
팔려갔다.

덕수와 진선. 영덕 동해바다가 바라다 보이는, 삼사해돋이공원에서의 결
혼식은 현실이 아니었다. 진선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머릿속에서 환
영(幻影)에 잠겼을 뿐이다.

개. 덕구와 진돌이가 울산형님의 손을 물었을 때, 이들의 운명은 영
결식장에 있었다.

사람. 덕수와 진선이가 영원한 평행선을 가지런히 걷고, 한 남자는
병고로 또 여인은 아무 음식도 먹지 못한 채 숨을 거뒀다.

새재에서 흘러내리는 영강천은 말없이 흐른다. 봄바람에 벚꽃이 현란
하게 날린다.

저쪽 저 멀리에서 개 한 쌍이 사랑싸움한다.
영덕강구에서는 행려병사자로 처리된 진선의 뺨가루가 바다에 뿌려진다.
수평선 너머 희미하게 덕수와 진선이 서로 안고 용오름을 한다
버찌가 맺는 날은 덕구와 진돌의 결혼식날이다.
복숭아가 붉게 익는 날은, 덕수와 진선의 영결식날이며 영혼결혼식날이다.

학생문단 | 동화

문부일

童
話

나는 행복파출소에 간다!

문부일

“경축! 행복파출소, 모범경찰상 수상.”

파출소 어귀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행복파출소 아저씨들이 모범 경찰이라면 난 우리 학교에서 가장 착한 어린이겠군!’

나는 그 현수막을 보면서 구시렁거렸다.

자랑할 건 아니지만 나는 행복파출소에 자주 붙잡혀 간다. PC방에서 게임비 안 내고 도망쳐서, 슈퍼에서 과자를 슬쩍하다가 아줌마한테 들켜서 그리고 아이들의 돈을 빼앗아서……. 그런 일들 때문에 행복파출소 경찰 아저씨들을 많이 만났다.

그런데 경찰 아저씨들이 책에서 배운 것처럼 다 착한 것만은 아니다. 파출소장 대머리 할아버지는 길바닥에 침도 잘 뺏고, 전봇대 뒤에 숨어서 오줌도 싣는다. 날라리 김순경 아저씨는 순찰차를 운전하면서 안전벨트를 안 맨다. 그뿐만 아니라 운전 중에 휴대폰으로 통화도 한다. 마지막으로 욱쟁이 의경 형은 교통정리를 해야 할 시간에 PC방에서 게임을 한다. 나는 이 모든 사실을 공중전화로 112에 신고하려고 한 적도 있었지만 참았다. 그냥 한 번 봐준 셈 치기로 했다.

사람들 앞에서 언제나 멋있는 척, 착한 척, 품만 잡는 행복파출소 경

찰 아저씨들이 모범경찰이라고 상까지 받다니! 가만히 지켜만 볼 수 없었다. 나는 볼펜을 꺼내서 파출소 담벼락에 “진짜 나쁜 파출소 - 대머리 영감탱이 메롱.” 이렇게 낙서를 하고 쏘살같이 도망쳤다. 그제야 속이 후련해졌다.

건다보니 어느덧 학교 앞이었다. 오늘도 무단횡단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차들이 찌엄찌엄 달려올 때, 나는 부리나케 길을 건넜다. 그런데 어디선가 호루라기 소리가 들렸다. 뒤를 돌아보았다. 경찰 아저씨가 달려오고 있었다. 도망칠 겨를도 없었다.

“무단횡단 했지. 너 몇 학년이야? 그리고 이름은?”

경찰 아저씨가 내 목덜미를 붙잡았다. 아침부터 재수가 없는 날이었다.

“오학년, 삼반. 강한철인데요.”

“무단횡단하면 범칙금이 이만 원이야. 엄마한테 전화할까? 오늘은 처음이니까 봐줄게.”

아저씨가 생색을 냈다. 아저씨의 가슴에 붙은 이름표에는 ‘왕경찬’이라고 적혀 있었다. ‘왕경찰’이었으면 정말 웃겼을 텐데. 우리 동네에서 처음 보는 경찰 아저씨였다.

“전 엄마 없어요. 그리고 늘 무단횡단 하는데요. 어제도 했고, 내일도 할 건데…….”

“나한테 걸린 건 오늘이 처음이잖아. 다음에는 절대 안 봐 줄 거야.”

아저씨는 내 볼을 꼬집으면서 으름장을 놓았다. 그런데 무섭기는커녕 웃음만 나왔다.

“넌 내가 난생 처음 적발한 사람이야. 즉 첫 손님인 셈이지. 무단횡단 하느라 목마르지?”

아저씨가 주머니에서 요구르트를 꺼냈다. 요구르트를 보니까 침이 꿀꺽 넘어갔다. 무단횡단 했다고 선물까지 받게 되다니! 다른 경찰아저씨한테 걸렸으면 육만 잔뜩 얻어먹고, 토끼뎀도 이백 번 넘게 했을 거다. 나는 요구르트를 단숨에 마셨다.

“아저씨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모범적인 행복파출소에서 일하세요?”

“어제부터 여기서 일하게 됐어. 근데, 너 안경 좀 써라. 내가 어딜

봐서 아저씨나. 난 의경 형이야!”

“의경이면 파출소에서 일하는 군인아저씨요? 가짜 경찰아저씨들 말 이죠.”

경찬이 형은 욕쟁이 의경 형 밑에 들어온 즐병이었다.

점심을 먹고 민혁이 녀석을 화장실로 불렀다. 순식이가 밖에서 망을 봤다.

“우리 엄마 집 나갔다고 네가 소문냈냐? 또 아빠는 교도소에 갔다고 말하고 다닌다며?”

나는 바닥에 침을 뱉, 뿔으면서 말했다. 녀석은 몸을 부르르 떨기만 할 뿐이었다.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다. 내가 먼저 녀석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녀석은 바닥에 힘없이 나동그라졌다. 나는 오른발로 그 자식을 힘껏 걷어차다.

“남자답게 한 번 붙어. 나만 때리면 재미없잖아.”

나는 민혁이의 목을 짓누르면서 말했다. 녀석이 울음을 터뜨렸다. 꼭 계집애 같았다.

“이 새끼야. 대들지도 못할 거면서 왜 까불어?”

“자……. 잘못했어. 다음부터는 절대 아……안 그럴게.”

“나한테 얻어터졌다고 선생님한테 고자질해라. 내일 당장 전학 가게 만들어 줄 테니까.”

내가 말했다. 그러자 민혁이 녀석은 비굴한 얼굴을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6교시 수업시간이었다. 누군가 교실 문을 두드렸다. 문 밖에는 김순경 아저씨랑 경찬이 형이 서 있었다. 김순경 아저씨와 선생님은 복도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잠시 뒤, 선생님이 나와 순식이를 불렀다. 나는 얼굴을 확 구기면서 복도로 나갔다. 나를 알아본 경찬이 형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김순경 아저씨가 귀찮은 말투로 물었다.

“이 지갑 주인 누구야? 어제 슈퍼에 떨어트리고 간 것도 몰랐지?”

분명 순식이 지갑이었다. 어제 나와 순식이는 슈퍼 계산대 위에 있는 돼지저금통을 훔쳤다. 그리고 나서 재빨리 도망쳤다. 아마 그때, 녀석이 떨어트린 모양이었다.

‘바보 같은 놈, 지갑 잃어버린 것도 모르다니. 손발이 맞아야 도둑질을 하지.’

나는 순식이를 쏘아봤다.

파출소에 붙잡혀 온 나와 순식이는 진술서를 썼다. 진술서는 왜 도둑질을 했는지 자세하게 쓰는 거다. 슈퍼아줌마는 황금 돼지라도 도둑맞은 것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시끄러워서 글을 쓸 수 없을 지경이었다. 나도 엄마가 주는 용돈을 받으면 아줌마가 돼지저금통을 훔쳐가라고 쥐도 무거워서 안 가져갈 거다.

나는 진술서에 사실대로 적었다. MP3를 사고 싶었다고 말이다. 친구들은 휴대폰이랑 MP3를 다 갖고 있다. 그런데 나는 빈털터리다. 또 피자, 햄버거 따위를 배 터지게 먹고 싶다고 썼다. 길거리에서 헌혈을 하면 햄버거를 먹을 수 있는데 나는 어려서 안 된다.

“우리 순식아. 이게 웬일이냐. 아이고!”

순식이 엄마가 파출소 문을 열면서 뛰어왔다. 그 아줌마는 순식이를 사정없이 때렸다. 나는 엄마한테 맞는 순식이가 부럽기만 했다. 녀석은 찢찢 짜면서 외락 엄마 품에 안겼다. 갑자기 내 코끝이 찡해졌다. 문득 엄마 생각이 났다.

엄마랑 살 때, 나는 착한어린이상을 받은 적도 있다. 그런데 이모부랑 살면서 모든 게 엉망이 되었다. 돈이 없어서 준비물을 잘 챙겨갈 수 없었다. 또 집에 컴퓨터가 없어서 숙제를 제대로 못했다. 처음에는 은행에 있는 컴퓨터로 숙제를 하려고 했지만 경비원 아저씨에게 쫓겨 나기 일쑤였다. 그래서 이제는 안 한다. 선생님한테 찍히는 게 마음이 편하다.

창박이 차츰 어두워졌다. 나는 몇 시간째 파출소 바닥에 꿇어앉아 있었다. 바닥이 차가워서 무릎이 시렸다. 경찰 아저씨들은 나를 투명인간처럼 대했다. 나한테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 나는 파출소 어귀만 내다보았다. 이모부가 얼른 나를 데리러 왔으면 좋겠다.

이모부는 먼 친척아저씨다. 엄마와 아빠가 돌아올 때까지 나는 이모부랑 살아야 한다. 그 아저씨는 나를 천덕꾸러기로 여길 뿐, 좋아하지 않는다.

느닷없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이놈의 뱃속은 눈치 없이 오

로지 먹는 타령뿐이다.

“배고프지? 이층으로 올라와.”

경찬이 형이 내게 귓속말을 했다. 나는 눈치를 살피다가 이층으로 올라갔다.

파출소 이층은 가정집 같았다. 부엌도 있고 방도 많았다. 식탁 위에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떡볶이와 김밥이 놓여있었다. 나는 허겁지겁 김밥을 먹기 시작했다. 형이 콜라 한 잔을 내게 주었다.

“천천히 먹어라. 아무도 안 봤어 먹어.”

“어른들은 절 다 싫어하는데 형은 왜 저한테 잘해주세요?”

나는 형에게 물었다.

“어른들이 잘못해서 네가 고생하는 거니까.”

형은 내 볼을 꼬집으면서 말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따뜻한 말이다.

“야, 이런 새끼 굶겨! 넌 뭘 잘했다고 김밥을 처먹어?”

욕쟁이 형이 내 머리를 툭툭 치더니 경찬이 형에게 쏘아댔다.

“한철이가 배고플 것 같아서 저녁을 챙겨줬습니다.”

경찬이 형은 잔뜩 주눅이 든 목소리로 대답했다.

“고참 말에 대꾸하나? 너 파출소에 오니까 군기가 빠졌어. 정신 좀 차려야지?”

욕쟁이 형은 구두를 신은 채 경찬이 형의 무릎을 힘껏 걷어찼다. 퍽, 소리가 내 귀에까지 들렸다. 경찬이 형의 얼굴이 순식간에 빨갛게 달아올랐다.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조심하겠습니다.”

경찬이 형은 아픈 표정도 짓지 않고 큰소리로 또박또박 말했다.

“됐어. 밖에 가서 담배 사오고 만화책 빌려와. 돈은 다음에 줄게.”

욕쟁이 형이 명령을 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경찬이 형은 계단을 뛰어 내려갔다.

그 모습에 나는 몸서리를 쳤다. 사람을 때리면 잡아가는 게 경찰이 하는 일이다. 그런 경찰이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때리다니! 말도 안 된다. 그 생각을 할 때, 김순경 아저씨가 나를 불렀다.

“야, 강한철. 빨리 뛰어내려와.”

나는 김밥 몇 개를 입안에 쑤셔 넣고 일층으로 내려갔다. 이모부는 그런 나를 보면서 이맛살을 찌푸렸다. 이모부의 몸에서는 시큼한 술냄새가 풍겼다. 나는 이모부를 따라서 집으로 향했다. 이모부가 혼자 말처럼 중얼거렸다.

“너도 아빠처럼 감방에 가고 싶나? 얼른 고아원에 보내야지…… 쫓쫓.”

학교에서 돌아온 나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창문을 두드렸다. 대머리 과출소장 할아버지였다. 그 옆에 경찬이 형이 라면 한 상자를 들고 서 있었다.

“나쁜 짓하지 말고 열심히 살라고 선물 주러 왔어.”

대머리 할아버지는 자기가 산타할아버지라도 된 것처럼 환하게 웃었다. 경찬이 형은 시무룩한 얼굴로 내게 라면 상자를 내밀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신라면이었다. 어린이날, 껌 한 통 준 적 없는 과출소에서 불쑥 선물을 줘서 얼떨떨했지만 말썽만 피우는 나를 챙겨주는 게 무척 고마웠다.

“이렇게 좋은 날, 사진 한 장 찍어야지.”

대머리 할아버지는 소풍을 온 걸로 착각을 했는지 혼자 신이 났다. 그런데 형은 뭔가 못마땅한 표정이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화를 냈다. 형은 마지못해 사진기를 들었다.

“한철아, 라면 상자를 가슴에 꼭 안아야지. 그래야 사진에 잘 나와.”

할아버지가 라면 상자를 내 가슴에 안겼다. 나는 얼떨결에 그 상자를 가슴에 안고 사진을 찍었다. 사진의 주인공이 강한철인지, 라면 상자인지 알 수 없었다.

“사진 잘 찍었지? 바로 신문사에 전화해라.”

대머리 할아버지는 형에게 뭐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내 인사도 받지 않고 사라졌다.

다음날 아침, 교실 문을 열었다. 아이들이 나를 보면서 까르르 웃었다.

“어젯밤에 라면은 배터지게 먹었나?”

한 녀석이 내게 대뜸 물었다.

“무슨 말이야?”

나는 별 생각 없이 걸상에 앉았다. 잠시 뒤, 다른 녀석이 내 책상 위

에 신문을 펼쳐놓았다. 우리 동네에서만 나오는 신문이었다.

“아빠가 신문 보다가 우리 학교 이름이 나왔다고 말해서 나도 같이 봤는데 글썸…….”

그 녀석은 신문 귀퉁이를 손가락으로 짚었다.

‘소망부녀회 회원들 양로원 봉사활동, 낙원중학교 환경보호활동, 행복과출소 불우이웃돕기선행’ 행복과출소 기사였다. 나는 눈을 부릅 뜨고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행복과출소는 모범경찰상 수상 기념으로 관내 불우어린이, 희망초등 학교 5학년 강한철 군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선물은…….”

나는 입술을 깨물면서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대머리 영감탱이의 꿈꿉이속을 눈치 채지 못한 게 분했다.

하루 종일 나는 대머리 영감탱이 얼굴만 떠올렸다. 어떻게 복수를 할까. 곰곰이 생각을 하는 사이 수업이 끝났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빨리 어두워지기만을 기다렸다.

어느새 온 동네가 캄캄해졌다. 나는 파출소로 향했다. 마침, 대머리 영감탱이는 의자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파출소에 도둑이 들어도 모를 것 같았다.

나는 마음을 폭 놓고 순찰차에 오줌을 휘갈겼다. 거의 반나절 동안 오줌을 참느라 죽을 지경이었다. 오줌으로 목욕을 한 순찰차에서는 지린내가 풍겼다. 마침, 보름달이 하늘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달님도 내게 힘내라, 응원을 하겠지! 나는 달님에게 기도를 했다.

‘대머리 영감탱이가 길에서 오줌 쌀 때, 고추에 여왕벌 쏘이게 해주세요!’

그 모습을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도 신이 났다. 어찌나 좋은지 걸어도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것 같았다. 나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파출소를 빠져나왔다.

파출소 모퉁이를 돌 때였다. 불이 꺼진 공중전화 박스에서 누가 울고 있었다. 어두워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다. 나는 공중전화 박스가 한눈에 보이는 전봇대 뒤로 몸을 숨겼다.

“응, 엄마. 조금만 더 참을게.”

분명 경찬이 형이었다. 어른도 엄마 앞에서 운다는 게 마냥 신기하

기만 했다. 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울던 기억은 잊어진 지 오래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형은 터벅터벅 파출소로 걸어갔다. 나는 천천히 형을 뒤따라갔다. 형은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일부러 발소리를 크게 했다. 형이 뒤를 돌아보았다.

“밤에 어딜 돌아다니는 거야. 혹시 아까 통화하는 거 다 들었냐?”

형은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다.

공원 의자에 형과 나란히 앉았다. 하늘에는 별이 무수하게 많았다. 그리고 이따금 시원한 바람이 살랑거렸다.

“근데, 아까 왜 울었어요?”

“울긴 내가 언제?”

형은 겸연쩍은지 내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다.

“너 친구들 잘 때리고 돈도 많이 빼앗지? 그런 짓 절대 하지 마. 형이 가만 안 둔다.”

형이 엄포를 놓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만 삐죽거렸다.

“맞는 사람 기분을 생각해봤어? 또 돈 빼앗기면 얼마나 억울한지 알아?”

“다 맞을 짓을 하니까 때리는 거죠. 녀석들이 잘하면 제 손 아프게 왜 때려요?”

나는 시큰둥하게 말했다. 그러자 형이 나를 무섭게 노려봤다.

“창피하지만 다 털어놓을게. 오늘도 난 고참 구두를 광나게 닦지 않았다고 따귀를 수없이 맞았어. 또 월급날이면 돈도 빼앗아가.”

형은 두 손을 부르르 떨었다. 그동안 억울하게 당한 일이 많은 모양이었다.

“넌 장난으로 때릴지 모르지만 맞는 사람은 죽고 싶어. 난 지금 힘이 없어서 맞고만 있지만 후임이 들어오면 친형처럼 잘 해줄 거야. 너도 나쁜 짓 하지 않겠다고 어서 대답해.”

형이 말했다. 웬지 형이 나보다 더 가엾게 느껴졌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밤하늘에 우리 반 녀석들의 얼굴이 하나 둘씩 떠올랐다. 지금까지 내가 때린 아이들이었다. 내가 발길질을 하면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울던 녀석들. 코피를 흘린 놈도 있었다. 또 몸집이 작고 힘없는 아이들에게 돈도 많이 빼앗았다. 그 아이들도 집

에 가서 경찬이 형처럼 펑펑 울었을까.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바보처럼 맞기만 해요?”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난 용기가 없어. 그리고 군대에서는 원래 참고 사는 거야.”

“원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남자가 깡이 있어야죠. 바보들처럼 맞고만 사나?”

더 하고 싶은 말이 입 안을 맴돌았지만 나는 꿀꺽 삼켰다. 지금 그 말을 다하면 불 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 꼴이었다. 다음에 형에게 꼭 말해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근데 왜 경찰들은 다 재수가 없어요? 아차, 형은 빼고요. 오늘 신문 봤어요?”

나는 형에게 따지듯이 물었다.

“내가 사진은 일부러 이상하게 찍었어. 그래서 신문에 사진은 안 나온 거야. 한철아, 난 좋은 경찰이 될 거야! 사람들을 아껴주고, 운전할 때 안전벨트도 꼭 매고.”

형은 이제 아무렇지 않다는 듯 씩 웃었다.

“출출하지 않나? 파출소에 가서 라면 끓여먹자. 싸가지 없는 고참은 오늘 외박 나갔어.”

“잘 됐네요. 전 라면에 만두랑 달걀 넣은 거 좋아하는데!”

드디어 지루한 수업이 끝났다. 나는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혼자 거리를 쏘다녔다. 돼지저금통 사건 이후 순식이도 나를 멀리하는 눈치다. 옛날 같으면 때리면서 데리고 다니겠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시장 골목에 있는 떡볶이집 앞을 지날 때였다. 튀김을 보니까 침이 꿀꺽 넘어갔다.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았다. 먼지랑 백 원짜리 하나가 전부였다. 이럴 때, 꼬마들 돈을 빼앗으면 맛있는 걸 사 먹을 수 있는데……. 마침, 맞은편에 있는 대형마트가 내 눈에 들어왔다. 오호,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마트에 들어간 나는 가방을 보관함에 넣었다. 그리고 나서 먼저 만두코너로 발걸음을 땀다. 아줌마는 만두를 굽느라 정신이 없었다. 노

룻노릇 익은 군만두를 먹었다. 무척 맛있었다. 나는 만두 하나를 또 입안에 넣고 오물거렸다. 하마터면 뜨거워서 혀를 뱉 뻘했다.

“하나만 먹어라. 다른 사람도 먹어야지.”

아줌마가 눈을 흘겼다. 무안해진 나는 툭툭거리면서 자장면 코너로 갔다. 얼굴에 주근깨가 잔뜩 낀 아줌마가 자장면을 삶고 있었다. 그 아줌마 앞에는 자장면이 담긴 작은 종이컵이 많이 놓여있었다. 나는 능청스럽게 종이컵 두 개를 양손에 잡고 그 코너를 나왔다. 자장면은 쫄깃쫄깃했다. 그 다음은 간식을 먹을 차례였다. 나는 이층 과자 코너로 갔다. 그렇게 마트를 한 바퀴 돌았다. 떡볶이 일 인분을 먹은 것보다 더 배가 불렀다. 마지막으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보관함 쪽으로 갔다. 물론 그 커피도 예쁜 누나가 공짜로 준 것이었다.

나는 보관함을 열고 가방을 꺼냈다. 그런데 보관함 구석에 반짝거리는 게 있었다. 그건 뽀얀 먼지를 뒤집어 쓴 MP3였다. 산지 얼마 안된 게 분명했다.

‘아이들을 안 괴롭히고, 아무것도 훔치지 않으니까 달님이 내게 주는 선물이야!’

내 기분은 한껏 부풀어 올랐다. 나는 음악을 들으면서 마트를 빠져 나왔다. 신나는 노랫소리에 맞춰 춤을 추고 싶었다. 온 세상이 모두 내 것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마트 문 앞에 순찰차가 서 있었다. 멀리서 경찬이 형이 걸어왔다. 나는 MP3를 주머니에 넣고 문 뒤에 몸을 숨겼다.

“강한철, 나랑 숨바꼭질 하나?”

형이 소리쳤다. 나는 뒷머리를 긁적이며 멋쩍게 웃었다. 형은 분홍색 지갑을 들고 있었다.

“누구 지갑이에요?”

“꼬마애가 주인 찾아달라고 마트에 맡기고 간 거야. 정말 착하지.”

“내가 주웠으면 아무도 모르게 그냥……. 참, 지갑에 돈 들어 있어요?”

“물건을 주웠는데 주인을 안 찾아주면 흠친 거나 마찬가지로야. 도둑놈이지!”

누가 경찰 아니랄까봐 형은 딱 잘라 말했다.

“흠친 거나 마찬가지로요?”

내가 물었다. 그러자 형은 또 한 번 ‘도둑놈’ 이라고 또박또박 말했다.

그때부터 이상하게 가슴이 쿵쿵거리고 발걸음이 무거웠다. 별빛 아래서 형과 한 약속이 자꾸 또렷하게 떠올랐다.

나는 곧장 파출소로 갔다. 경찬이 형은 순찰차를 청소하고 있었다. 나는 머뭇거리다가 형에게 MP3를 건네주었다. 그리고 나서 하나도 숨기지 않고 모든 걸 털어놓았다.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2년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네가 MP3 주인이 되는 거야.”

형은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정말요? 그때까지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며칠 뒤, 엄마한테서 연락이 왔다. 엄마는 어떤 아저씨랑 결혼을 한다고 이모부가 말했다. 그래서 나는 결국 고아원에 가게 되었다.

희망초등학교에서 마지막으로 수업을 듣고, 교문을 나왔다. 형은 어김없이 학교 앞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었다. 오늘따라 이상하게 호루라기 소리가 듣기 싫었다.

“강한철, 무슨 일 있어? 너답지 않게 왜 시무룩하냐?”

형은 히죽히죽 웃었다. 나는 형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형은 언제나 욕쟁이 의경 형한테 얻어터지고 돈도 빼앗길 거다. 불쌍한 경찬이 형! 그동안 꼭 참았던 말을 해야 할 때가 왔다. 다시는 경찬이 형을 다시 보지 못할 테니까 말이다.

“지금도 욕쟁이 형이 무섭죠? 형은 절대 좋은 경찰 못 돼요!”

“느닷없이 무슨 말이야?”

형은 호루라기를 주머니에 넣으면서 물었다.

“제가 아이들을 왜 때리는 줄 아세요? 제가 때려도 녀석들은 한 번도 대들지 못해요. 한 사람이라도 죽기 살기로 덤비면 다음부터는 못 때릴 텐데, 바보들은 용기가 없어서 맞지만 않으려고 제 눈치만 슬금 슬금 살피죠.”

형은 기가 팍 죽어 있었다. 나는 또 입을 열었다.

“용기가 없는 사람이 경찰이 돼서 시민을 지켜준다고요? 형이나 얻어터지지 말아요.”

형은 완전 낮이 나간 얼굴로 입술만 달싹거렸다.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저 내일 고아원에 가요. 잘 사세요.”

나는 그 말을 내뱉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었다.

고아원에 가는 날도 어김없이 아침은 밝았다. 나는 짐가방을 들고 버스에 올랐다. 이모부는 맨 뒷자리에 앉아서 자는 척 눈을 감았다. 나는 창문을 활짝 열었다. 햇볕은 오늘따라 더 따뜻했고 바람은 시원했다.

버스가 천천히 달리기 시작했다. 뒤를 돌아보았다. 나를 배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는 혼자서 손을 흔들었다. 갑자기 눈가가 뜨거워졌다. 나는 두 눈에 힘을 줬다. 눈물은 바보 녀석이나 흘리는 거다.

멀리서 호루라기 소리가 들렸다. 나는 반가운 마음에 경찬이 형을 크게 불렀다. 형도 나를 기다렸다는 듯이 기사 아저씨에게 버스를 멈추라고 신호를 보냈다. 기사 아저씨는 고개를 기울여가면서 버스를 세웠다. 경찬이 형이 내 곁으로 달려왔다.

“한철아, 나 바보 아니야. 바보 아니라고. 용기가 뭔지 이제 알 것 같아.”

형은 두 눈에 힘을 주고 말했다. 오늘따라 경찰복이 형에게 잘 어울렸다. 진짜 경찰 아저씨 같았다.

“그래요? 형은 정말 좋은 경찰 아저씨가 될 거예요. 전 형을 믿어요.”

“우리 약속 하나 할까? 나는 공부 열심히 해서 2년 뒤에 진짜 경찰이 돼서 행복파출소에 올게. 넌 꼭 MP3 찾으러 와. 알았지?”

나는 경찬이 형과 새끼손가락을 걸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으로 도장까지 찍었다.

그때, 여기저기서 차들이 빵빵, 소리를 질렀다. 형은 다시 사거리 한 가운데로 뛰어가서 호루라기를 불었다. 잠시 뒤, 버스는 어디론가 힘차게 달려갔다.

학생문단 | 시나리오

문현영

戲曲

공감

문현영

Characters

등장인물 :

- 아빠 유경호(50세)
- 엄마 김혜중(46세)
- 큰 딸 유준경(18세)
- 작은 딸 유채경(11세)

아빠 유경호 - 건설회사 현장소장. 주말부부다. 과묵하면서도 자상하다. 유독 막내딸 앞에서만 말이 많아진다. 애교 많고 잘 따르는 막내딸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예쁘다. 큰 딸 역시 무척 사랑하지만 둘째 딸이 태어난 후로는 덩치 큰 딸에게 애정표현하기를 무척이나 쑥스러워한다. 아내 역시 사랑하지만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처럼 역시 큰딸과 대화는 거의 없다.

엄마 김혜중 - 가정주부. 모성애가 강하며 공정하고 사리가 분명하지만 몸이 약한 막내딸에게 자주 신경이 쓰여 큰 딸에게 항상 미안해한다. 또 큰 딸을 키우면서 느낀 시행착오를 작은 딸에게 현명하게 잘 대처하게 될 수록 더욱 미안하고 측은한 마음을 가진다. 하지만 고집이 센 큰 딸보다 애교 많고 상냥한 작은 딸에게 정이 더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즉 부부가 모두 이성적으로는 큰 딸을 생각하나 감성적으로는 작은 딸에게 몰려있다.

큰 딸 유준경 - 고등학교 2학년. 아빠의 성격을 닮아 과묵하다. 정이 많고 마음이 여리나 고집이 세다. 동생과는 달리 어릴 적에도 아빠가 퇴근해서 돌아와도 반가운 마음은 앞서지만 행동은 언제나 쭈뼛거리며 어색해한다. 타고난 성격이라 엄마가 아무리 옆에서 코치를 해도 안 된다. 아빠를 닮아 감정표현이 잘 안 되지만 늘 아빠와 동생의 관계를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질투를 느끼기도 하지만 뚜렷하게 표현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한 번 감정이 폭발하면 주체하기 어렵다. 동생에게도 상냥하지도 않고 외부로 나타내지도 않지만 자매애는 대단하다.

작은 딸 유채경 - 초등학교 4학년. 선천적으로 몸이 약하기 때문에 늘 약을 달고 산다. 마음이 여리기는 하지만 강단이 있으며 하고 싶은 말은 다 하고 산다. 언니처럼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는다. 늦둥이라 부모와 언니의 귀여움을 독차지한다. 특히 언니를 절대적으로 좋아한다. 언니는 늘 선망의 대상이며 언니처럼 예뻐지면 좋겠다. 타고난 애교덩어리. 화목한 가정의 기쁨조 역할이지만 그럴수록 본인도 모르게 언니에게는 적대자가 되어간다.

1. INT. 아파트 주방 토요일, 이른 아침

11월의 새벽. 불이 아직 켜있지 않은 잘 정돈된 거실이 보여 지고 밝은 백열등 불빛이 있는 주방에서는 아침 준비를 위하여 엄마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가스렌지 위에서는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어오르고 있고, 엄마는 찌개에 넣기 위한 과를 종종 썰다가 전자렌지에서 ‘팅’ 소리가 나자 렌지에서 계란찜을 꺼낸다. 힐끗 주방 개수대 위에 있는 디지털시계를 쳐다본다. 시계는 6시 20분을 가리키고 있다. 얼른 행주치마에 손을 닦고 준경이 방이 있는 현관 쪽으로 간다. ‘똑똑’ 현관문을 두드리며 방문을 연다.

엄마(다정한 목소리로) : 준경아, 이제 일어나야지. 응? 어서.

엄마는 준경이 방문을 열어놓고 다시 주방을 간다. 식탁위에 이제 막 꺼낸 계란찜을 올려놓는다. 노란 계란찜이 먹음직스러워 보인다. 김치, 멸치 볶음 등을 식탁위에 차리며 엄마는 다시 준경이 방을 향하여 아까보다는 큰 목소리로 준경이를 부른다. 그래도 일어나지 않는다. 다시 부른다.

엄마(아까보다는 점점 소리가 커진다) : 준경아! 벌써 6시 반이야. 그러다가 또 늦는다. 어서 일어나, 응? 얼른 나와서 밥 먹구 씻어. 얼른.

이제 김치찌개까지 식탁 위에 올려졌다. 준경이 방에서는 여전히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 엄마는 다시 준경이 방으로 간다. 조금 화가 난 듯하다. 준경이는 침대 누워 아직도 꿈 속을 헤매고 있다가 엄마가 이불을 찢히는 바람에 깜짝 놀라 눈을 뜨다가 엄마임을 확인하고 짜증을 부린다.

준경(젓혀진 이불을 다시 끌어당기며 신경질 적으로 내뱉는다) : 아, 뭐야.
엄마(언성이 높아지며 이불을 다시 신경질적으로 힘차게 찢는다.) : 뭐라니! 너 학교 안가? 지금이 몇 시인 줄 아니? 7시가 다 되었단 말이야.

준경(벌떡 일어나 앉으며) : 뭐, 7시? 내가 미쳐 미쳐. 왜 일찍 안 깨워! 아, 정말 또 늦었잖아.

준경이 화가 나서 서있는 엄마를 무시한 채 바로 침대에서 일어나 방문을 힘차게 쿵! 닫고 거실에 있는 욕실로 뛰어나간다. 엄마는 방문을 열고 나간다.

2. INT 작은딸 방 이른 아침

초등학생 방답게 분홍색 곰돌이 벽지에 하늘 색 침대위에서 채경이가 잠자다가 밖의 소란한 소리에 일어나 앉으며 눈을 비빈다. 매일 듣는 소리에 채경이는 어른처럼 긴 한숨을 내쉬며 침대에서 내려온다. 살며시 방문을 열어본다. 언니의 욕실로 뛰어나가는 모습이 보이고 뒤이어 언니의 방에서 엄마가 나온다. 채경이 밝은 모습으로 얼른 방문을 열고 나온다.

3. INT 거실

현관 앞 준경이 방에서 엄마가 나오고 주방 옆, 안방 앞에 있는 채경이 방에서 채경이가 문을 열고 강총 뛰어나오며 밝은 미소를 띠면서 엄마 품에 안긴다.

채경(애교스럽고 어리광이 잔뜩 묻은 소리로) : 엄마, 왜 그러세요? 엄마, 화나셨어요? 으~응. 화내지마. 엄마 화 내지 마세요? 응?

엄마는 채경이를 가슴 깊이 안으며 머리를 쓰다듬는다. 이때 채 2~3분도 걸리지 않아 고양이 세수를 마친 준경이가 욕실에서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나오면서 그 광경을 보고 입모양이 실룩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간다. 언니 나오는 소리를 들으며 채경이는 언니를 따라 쫓르

르 안방으로 들어간다.

4. INT 안방 엄마의 화장대 앞

준경이 엄마의 로션을 바르며 거울을 쳐다보고 있는데 채경이가 뒤따라 들어오며 반갑게 언니를 부르며 뒤에서 안으려고 한다. 이때 준경이 아주 냉정하게 한 손으로 채경이를 밀쳐낸다.

준경(냉랭하고 단호하게) : 저리 비켜!

고등학교 2학년인 덩치 큰 준경이의 손에 밀려난 초등학교 4학년임에도 또래에 비해 아주 작고 연약한 채경이는 쉽게 넘어진다. 너무 놀라고 아파서 울고 싶지만 언니의 무서운 얼굴을 보고 억지로 울음을 삼킨다. 울었다가는 엄마한테 언니가 더 혼날 것 같아 이를 악물고 참고 있다. 준경이는 미안한 기색도 없이 머리를 빗고는 안방에서 나가버린다. 이때 엄마가 들어온다. 넘어져 있는 채경이를 보고 놀란다.

엄마 : 왜 그래? 채경아. 언니가 밀었어? 응?

채경(놀라는 모습이 언니를 덮어주려고 오버하는 듯하다) : 아냐, 아니에요. 엄마. 여기 화장대 의자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히, 근데 좀 아프다.

엄마 : 이그, 조심하지. 얼른 씻고 밥 먹자.

5. INT 거실

안방 문을 나서는 엄마와 교복을 입고 책가방을 든 준경이 서로 마주친다. 엄마는 준경이에게로 다가가 가방을 뺏는다.

엄마(달래는 듯이) : 밥 먹구 가. 지금 6시 50분이야. 시간 충분하잖아. 얼른 먹구 가자. 응? 네가 하도 안 일어나서 엄마가 7시라고 한 거야.

준경 : 싫어. 가방 줘.

엄마(언성이 또 높아졌다) : 애가 오늘따라 왜 이래. 밥 먹구 가. 5분도 안 걸리잖아. 너 언제 이렇게 빨리 나간 적 있어? 응? 왜 쓸데없이 고집을 피워. 얼른 식탁에 앉아.

엄마는 준경이의 팔을 끈다. 이때 말도 없이 준경이는 엄마 손을 휘 뿌리치며 엄마 손에 들려있는 가방을 낚아채듯 뺏고는 현관으로 가서 신발을 신는다. 엄마는 기가 막힌 듯 더 이상 해봤자 소용없는 일이라는 듯이 그런 준경이의 뒷모습만 바라본다. 엄마 뒤에서 채경이 역시 걱정스런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다. 현관문을 닫고 황 나가는 준경이. 속상한 마음으로 엄마는 준경이 방문 옆의 벽에 걸려있는 달력을 본다. 11월 18일 토요일이다. 뒤돌아보며 채경이를 보며 빙긋이 웃는다.

엄마 : 오늘 아빠 오시는 날이네. 얼른 씻자.

엄마는 채경이를 데리고 욕실로 들어간다.

6. EXT 아파트 앞 상가 토요일 오후 4시쯤

아빠가 아파트 상가 앞에 무쏘 쥘차를 주차 시킨다. 상가를 돌아서 지하에 있는 오렌지 마트로 들어간다. 싱싱해 보이는 과일코너 앞에 선다. 채경이가 좋아하는 메론을 집어 들며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다. 큰딸 ‘준경이가 뭘 좋아하더라?’ 하며 입속으로 우물거리며 과일코너 앞을 왔다 갔다 한다. 탐스럽게 보이는 사과가 있는 곳에 선다. 잠시 고민하다가 집어 든다. 상가를 나와 바로 옆에 있는 910동으로 들어선다.

7. INT 아파트 거실 토요일 오후 4시 30분쯤

‘딩동’ 벨이 울린다. 벨 소리에 거실에 모여서 TV를 보던 세 모녀 일제히 인터폰의 화면을 본다. 아빠가 장난스런 표정으로 콧구멍을 화면 가까이 갖다 댔다가 입을 짝 벌리기도 한다. 채경이 벌떡 일어나 손살같이 현관으로 달려 나간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과일 든 검은 봉투를 내려놓고 “아빠” 하고 달려드는 채경이를 안아 올리며 볼 이쪽 저쪽에 보뽀를 해댄다. 마치 몇 년 만에 하는 부녀상봉처럼 보인다. 뒤따라온 엄마는 그런 부녀 모습을 흡족한 듯이 쳐다보고 과일봉투를 들고서는 주방으로 가면서 현관입구의 상황을 돌아본다. 준경이는 현관문 앞에 서서 어찌할지 모르는 행동으로 서있다. 인사를 해야 하는데 인사할 틈이 없다. 조금씩 화가 오르는 준경이는 형식적으로 고개만 까닥하고는 TV 앞에 다시 앉는다. 이런 모습을 주방입구에서 엄마가 안Tm럽게 바라본다. 준경이는 의식적으로 모든 상황을 무시하듯 TV에만 열중하려고 한다. 아빠는 채경이를 안고 들어오다가 소파를 놔두고 TV앞에 바짝 붙어 앉아 있는 준경이를 본다.

아빠(목소리가 채경이의 어리광을 받아줄 때와 다르다. 평상시의 어조로) : 준경아, 왜 소파 놔두고 텔레비전 앞에 바짝 앉아. 어서 일어나, 소파에 앉아서 봐.

등 뒤로 아빠의 목소리를 들으며 준경이는 두 눈에 눈물이 핑 돈다. 그러나 발딱 일어나 바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 아빠는 채경의 수다에 푹 빠져 연신 웃어댄다. 주방에서 엄마가 깨끗이 씻느라 아직 물기가 남아있는 메론과 사과를 쟁반에 담아서 거실로 나온다. 큰 딸이 보이지 않자. 큰 딸을 큰 목소리로, 그러나 다정하게 부른다.

엄마(아주 다정스럽게) : 준경아! 과일 먹자. 아빠가 너 좋아하는 메론 사오셨네? 얼른 나와, 준경아! (사과를 집어 들며) 와, 내가 좋아하는 사과도 있네? 하하하 (둘러댄 것에 민망한 듯이 웃는다)

아빠 그 소리에 깜짝 놀라며 엄마를 쳐다보며 안고 있는 채경이 등 뒤에서 손짓하며 입모양만 버금거리며 묻는다. 엄마는 눈치 챈 듯 눈을 깜짝 거린다.

아빠 : 준경아, 얼른 나와라.

엄마는 아빠에게 눈짓하며 직접 들어가서 데려오라고 한다. 아빠는 어리둥절하며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채경이를 내려놓고 큰 딸 방문을 노크하며 들어간다.

8. INT 준경이 방

햇볕이 잘 들어오는 준경이 방의 왼쪽 벽에는 동방신기의 브로마이드가 걸려있고 그 아래에 침대가 있다. 베란다를 측면으로 오른 쪽 벽에는 책상과 책꽂이가 놓여 있다. 준경이는 침대에 엎드려 있다. 아빠는 침대 옆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간다. 조금 전 채경이를 대할 때와 사뭇 다른 표정이다. 무엇인가 조심스럽고 어색하다. 조금 전 현관 앞의 준경이의 행동처럼.

아빠 : 준경아, 왜 그래. 무슨 화나는 일 있니? 아빠가 준경이 좋아하는 메론 사왔는데. 어서 일어나. 응? 자. 얼른.

아빠는 준경이의 등을 토닥거리다. 준경이는 마지못해 엎드린 채 말한다.

준경 : 네, 먼저 나가세요.

9. INT 거실

엄마는 메론을 깎고 있고, 아빠와 채경이는 장난을 치면서 킁킁거리며

재미있어 한다. TV는 혼자 떠들고 있다. 엄마는 접시에 메론을 먹기 좋게 담아 놓고는 다시 준경이를 부르자 방문이 슬며시 열리며 부스스한 모습으로 준경이가 나온다.

엄마(메론 조각을 입속에 넣으며) : 얼른 와. 준경아, 정말 달고 맛있다. 여보, 당신도 그만 장난하고 얼른 드세요. 채경인 뭐해. 이제 그만해. 땀나. 땀나면 너 감기 걸리잖아. 당신은 아직도 애 체질을 잘 몰라요? 응?

엄마의 잔소리에 부녀는 장난을 그만두고 거실 탁자 주변으로 모인다. 채경이 그제야 메론을 본 듯 얼른 집어 들며 탄성을 지른다.

채경 : 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메론이다.

그 소리에 준경이는 채경이를 바라본다. 그리고 아빠 얼굴, 엄마 얼굴을 본다. 모두들 아무렇지도 않은 듯 웃으며 메론을 먹고는 맛있다고 한다.

아빠 : 어? 정말 달고 맛있네.

엄마 : 응, 이번에 사온 건 정말 달고 맛있네. 어디서 샀어요? 요 앞상가?

아빠는 고개를 끄덕인다. 엄마는 아직도 시무룩한 준경이를 보고는

엄마 : 준경아, 맛있지. 많이 먹어? 응? 이그 우리 채경이도 잘 먹네. 이걸 좀 입맛이 뻥겨?

채경이도 고개만 끄떡이며 열심히 먹는다. 엄마는 신나서 주방에서 하나 더 꺼내온다. 준경이 엄마가 과일 칼을 집어 들자 일어난다.

엄마(깜짝 놀라는 표정으로) : 왜? 아니 우리 대식이 큰 따님이 요거

몇 개 집어먹고 일어나? 놀랄 ‘놀’ 자 네? 호호호. 얼른 앉아. 더 먹어. 응? 아직도 화난거야? 아침 일 뻘에?

아빠 : 응? 무슨 일 있었어? 왜, 무슨 일인데? 채경아 아침에 무슨 일 있었어?

자연스럽게 이야기 하던 엄마가 그제야 아빠를 의식하고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두 딸을 번갈아 가며 본다. 준경이는 아빠가 자신한테 물어오지 않고 채경이한테 묻자 표정이 어두워진다. 엄마는 금방 분위기 수습을 하려고 얼른 장난스런 표정을 짓는다. 준경이는 힘없는 모습으로 이 모든 일을 무시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채경이는 뭐라고 답해야 할지 곤란해 한다. 이때 엄마는 아빠에게 눈짓을 하지만 아빠는 이해하지 못한다.

엄마 : 일은. 무슨 일. 맨 날 같은 일이지. 당신 신경 쓸 일은 아니야. 언니 것 좀 남겨놓자.

엄마는 반쪽 남은 메론을 들고 주방으로 들어간다. 부녀는 적당히 먹었는지 다시 장난을 치기 시작한다. 둘이 연신 깔깔대며 웃는다. 아까 큰 딸에게 대했던 행동하고는 사뭇 다르다.

10. INT 안방 늦은 밤

아빠와 엄마가 침대에 누워 아이들의 이야기를 나눈다.

엄마 : 여보, 당신은 내가 볼 때 준경이랑 채경이를 대하는 것이 너무 달라. 왜 준경이한테는 채경이한테 하는 것처럼 곰살맞게 안 해?

아빠 : ...

엄마(남편 쪽으로 돌아 누으며) : 응? 왜 대답 안 해? 여보. 우리 준경이 사춘기 반항이 너무 심해. 오늘 아침에도 별일 아닌 일로 토라져서 밥도 안 먹구 학교에 갔어. 고집은 어찌나 센지 황소야. 딱 당신이야.

왜 당신 한번 안한다고 하면 나오는 표정 있지? 똑같애. 내가 이미 당신을 꺾어서 그 표정 나오면 나도 더 이상 말 안 해. 아니, 못 하겠더라구. 뻔한데 뭐. 그러니 그럴 땐 도대체 내가 어찌해야 하는지 좀 조언 좀 해줘. 당신은 일주일에 한번 와서 애들이랑, 아니지 채경이랑 놀다 가면 그만이지만 난 일주일 내내 준경이랑 실랑이 벌이느라 힘들어 죽겠어.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문제를 풀 사람은 당신 밖에 없다는거야. 응? 왜 대답을 안 해? 어이구 속 터져.

엄마는 남편을 톡 친다. 아빠는 힐끗 쳐다보고는 다시 말이 없다. 작은 딸 채경이와의 행동이랑 사뭇 다르다. 웃지도 않고 똑바로 누워 천정만 바라보고 있다. 엄마가 다시 남편을 흔들며 말한다.

엄마 : 여보, 내 생각엔 채경이한테 하는 것처럼 준경이한테도 한번 해봐. 왜 같은 딸인데도 전혀 다른 아이들 보듯 해? 내가 입장을 바꿔 생각해 봤는데. 아까도 당신 퇴근해서 들어올 때 채경이랑 물고 빨고 할 때 준경이 봤어? 못 봤지? 그리고 개가 돌아서서 쭈구리고 앉아서 텔레비 볼 때 마음이 아프더라. 그래서 내가 뻔히 당신이 채경이 좋아하는 메론 사온 것 알면서 준경이 좋아하는 것라고 말한거야. 아마 지도 알거야. 아니 모를까? 아, 정말 말 좀 해봐. 답답해 미치겠네. 근데 당신 사과는 왜 사왔어? 그거 준경이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산거지? 내가 그거 보고 정말 준경이 아빠 아니구나 했다. 그러니 준경이가 더 속상했겠지. 어휴. 그럼 그렇다고 말이나 하면 얼마나 좋아. 부녀가 똑같아.

아빠가 엄마 쪽으로 향하여 눕는다. 그리고 아내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다시 똑바로 눕는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떼다.

아빠 : 근데 말야. 준경이는 다 컸잖아. 그리고 채경이는 아직 어린아이고. 그래서 그런지 준경이는 어찌 어려워. 미안한 말이지만 뽀뽀해 주기도 그렇고, 젓가슴도 이제 처녀 같은데 그런 딸을 안아주기도 어색하고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허허. 참. 그렇다고 채경이

랑 안 놀아 줄 수도 없잖아. 짬. 그리고 사과 말인데, 사실 나도 고민을 했거든. 준경이가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는거야. 그런데 막연히 준경이가 사과를 좋아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왔지. 근데 뭘 좋아해?

엄마 : 개도 떼론 좋아해. 예전엔 안 그러더니 요즘 들어 채경이랑 식성이 비슷해지는지. 좋아하는 음식이 같아. 그리고 누가 꼭 안아주고 뽀뽀해주래? 그것보다 관심이라도 가져주면 되잖아. 당신 채경이하고는 전화도 자주하고 문자도 잘 보내잖아. 근데 준경이한테는 해 봤나 구. 응? 안 해봤지? 봐, 아무리 생각해도 준경이가 힘들어하는 것은 당신과의 문제인거야. 왜 그런 줄 알아? 나두 그랬거든. 올 아빠는 당신과 반대로 언제나 언니가 최고였어. 그리고 외아들인 동식이랑. 난 늘 뒷전이었지. 오늘 준경이를 보고 갑자기 나 어릴 때 생각이 난거야. 그전엔 채경이랑 워낙 나이차도 많이 나고 또 채경인 약하자나. 그래서 나두 미쳐 생각을 못 했던거지. 근데, 사람 마음은 다 같잖아. 그치? 애나 어른이나 사소한 것에 더 섭섭해 한다구.

아빠 갑자기 일어나 앉더니 실내복으로 갈아입고서는 담배랑 라이터를 들고 방문을 열고 나간다.

11. INT 거실 늦은 밤

아빠는 안방을 나와 거실 베란다로 나가려다 잠시 멈칫하더니 큰 딸 준경이방을 바라본다.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며 한참을 생각하고는 거실로 들어온다. 다시 준경이 방을 바라보다가 방문 앞으로 간다. 노크를 한다. 안에서 준경이의 대답소리가 들린다. 문을 연다.

12. INT 준경이 방 늦은 밤

아빠(어색한 듯) : 뭐하니? 공부해?

갑작스런 아빠의 방문에 준경이 역시 어색하면서도 반갑다. 그러나 반가운 마음을 감추려고 한다. 잠시 침묵이 흐른다. 아빠는 준경이 침대에 걸터앉는다.

아빠 : 준경아, 잠깐 아빠 옆에 앉아봐.

준경이 약간 겁을 먹으며 조심스럽게 아빠 옆에 앉는다.

아빠 : 준경이 요즘 공부하는 것이 힘들어?

준경(아무 말 없이 고개만 살레 살레 흔들다)

아빠는 준경이 어깨를 감싸 안는다. 아빠 어깨에 준경이의 머리가 밀착되어진다.

아빠 :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아빠한테 기대. 응? 아빤 우리 큰 딸이 언제나 믿음직스럽고 예쁘다. 자, 우리 큰 딸 아빠랑 파이팅 해볼까? 하하.

준경이 눈물이 글썽인다.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다가 아빠의 파이팅 소리에 눈물을 닦으며 살며시 웃는다. 아빠는 준경이 손을 꼭 잡아주고 나간다. 아빠가 나간 뒤 준경이는 방 불을 끄고 침대에 눕는다. 그리고 아빠가 어깨를 감싸준 일을 다시 생각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잠이 든다.

13. INT 거실 월요일 오전

아이들과 남편이 모두 출근한 조용한 아침이다. 부엌에서 일을 마친 엄마는 베란다에서 빨래를 걸어서 소파에 앉는다. 그리고 탁자위에 있던 리모콘으로 TV를 켜다. 아침 토크쇼를 하고 있다. 화면정보를 눌러보니 어린이의 심리에 대한 내용이다. 채널을 고정시키고 빨래를 개고 있는데 화면에서 눈에 익은 유명한 정신과 여의사 얼굴이 클로즈

업이 된다.

[TV정신과 여의사]

…특히 큰 아이들에게 많은 배려를 해야 합니다. 엄마가 둘째 아이를 낳아서 안고서 현관에 들어서는데 순간 큰 아이의 심정이 어떤지 아십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남편이 애첩을 데리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는 본처의 심정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아이가 성장하는데 많은 영향을…

바쁘게 빨래를 개던 엄마의 손이 멈춰진다. 엄마의 눈은 화면으로 고정되지만 화면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14. EXT 마당이 넓은 집 정오 - 엄마의 회상

마당 앞 수돗가에서 혼자서 인형을 목욕시키며 물장난을 치고 있던 6살의 혜중(엄마). 대문이 열리는 소리에 어린 소녀는 “엄마다”를 외치며 뛰어나간다. 대문에 들어서는데 엄마의 품에는 강보에 싸인 아기가 있고 아버지는 아주 조심스럽게 엄마를 감싸 안고 있다. 뒤에는 할머니가 보따리를 들고 들어오는데 얼굴이 싱글벙글하다.

아버지 : 어유유, 이 놈 지지배. 저리 비켜. 엄마 지금 아프니까 조심해야 해.

할머니 : 애, 아범아, 녀름 그러지 마라. 혜중이 저년이 터를 잘 팔아서 이제 네 아버지 볼 면목이 섰는데, 아이구 혜중아. 이리와. 엄마가 드디어 남동생을 봤단다. 고추달린 남동생 말이야. 어이구, 경사 났네. 경사 났어.

갑작스런 할머니 친절에 뒤로 물러서는 혜중이, 쌀쌀맞은 아버지에게 주눅이 들고 아기만 들여다보는 엄마의 태도에 놀라서 울음을 터트린다.

15. INT 거실 월요일 오전

엄마는 과거 속의 자신의 모습을 회상하고는 중얼거린다.

엄마 : 그래, 맞아. 그랬어. 저 여자 말이 맞아. 우리 준경이… 우리 준경이…

16. EXT 학교 앞 오후 5시

준경이 학교 방과 후 학원가는 길에 아파트 가까이 있는 채경이 다니는 초등학교를 지나친다. 아이들 떠드는 소리에 흘깃 바라보니 채경이가 여럿 아이들과 싸우고 있다. 혼자서 3명을 상대로 뺨을 뺨뺨 흘리며 뭐라고 떠들고 있다. 몸집에 비하여 목소리가 우렁차고 당차다. 준경이 놀라서 아이들 있는 쪽으로 뛰어간다.

준경(놀란 표정을 지으며 채경이를 손을 꼭 잡는다) : 무슨 일이야? 너희들 우리 채경이한테 뭐하는 거야? 응? 쪼그만 녀석들이.

채경(으쓱해지며 목소리가 더 힘차진다) : 애들이 날 놀리잖아. 안경 낀 게 할머니 같다구. 그동안 내가 많이 참았는데 오늘은 도저히 못 참겠잖아.

준경 : 그래? 이 녀석들 너희들 한 번 더 우리 채경이 놀리면 이 누나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알았어? 응? 채경이 너두 얼렁 집에 가! 언니 늦었어. 저 녀석들이 너한테 또 뭐라구 하면 당장 언니한테 핸드폰 해라. 알았지? 언니 간다!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은 갑작스런 덩치 큰 누나의 등장 놀라서 말 한마디 못하고 머리를 굽적이며 흠뻑인다. 채경은 학원으로 가는 언니에게 무척이나 자랑스러운지 엄지손가락을 언니를 향하여 치켜세운다.

17. INT 거실 오후4시를 넘었다.

요란한 벨소리. 인터폰을 보니 작은 딸 채경이다. 엄마는 급하게 현관 쪽으로 달려 나간다. 문을 열며 땀을 뻘뻘 흘리는 딸에게 다그친다.

엄마 : 무슨 일이야! 응? 엄마가 너 땀 흘리면 안 된다고 했잖아. 뭐가 급해서 이렇게 호들갑이냐구!

엄마의 야단에도 채경이는 신이 난 듯 눈이 말뚱말뚱 빛이 나며 엄마를 쳐다보며 떠들기 시작한다.

채경 : 엄마, 있잖아요. 조금 아까 언니를 만났거든요. 근데 헉! 헉! 콜록.

말하다가 숨차하며 가벼운 기침을 한다.

엄마 : 언니를? 천천히 말해. 천천히. 괜찮아? 거봐. 땀 흘리지 말라구 했잖아. 금방 감기 오잖아. 아이참, 이를 어찌하면 좋아. 근데 언니가 어쩐대구.

채경 : 응, 괜찮아요. 넘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요, 제가 친구들이랑 싸우고 있는데 언니가 갑자기 슈퍼맨처럼 나타나서 남자애들한테 한마디 하니까 다들 벌벌 떨면서 도망갔어요. 카카카. 어찌나 우습던지. 와. 올 언니가 넘 멋졌어. 언니 최고야! 짜식들, 언니가 한 마디밖에 안했는데 벌벌 떠는거예요. 으하하하 아 잼있다.

엄마는 신나서 떠드는 채경이를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엄마 : 거봐. 혈육이 그래서 좋은 거야. 내 형제 자매의 일에는 물불 안 가리고 나서서 도와주는 것. 이 세상에 아빠나 엄마가 없으면 그다음이 언니야. 너희들이 언제까지나 그렇게 사이좋게 서로 도우며 지냈으면 좋겠다. 근데 언니가 웬일로 너희 학교에 간거야?

18. INT 거실 밤 11시쯤

엄마는 작은 딸 채경이를 재우고 시계를 바라보며 준경이 오기를 기다린다. 거실을 왔다, 갔다하며 뭔지 불안해 보인다. 자꾸 시계를 바라본다. 거실의 시계는 11시 20분을 가르치고 있다. 엄마는 현관문을 열고 나간다.

19. EXT 아파트 정문 앞 밤 11시 30분쯤

아파트 정문 앞에는 학생들을 태운 학원 버스들이 몇 분 단위로 학생들을 내려주고 떠난다. 정문에서 좀 떨어진 곳에 준경이 학원 차가 선다. 엄마는 그 차 앞으로 뛰어간다. 엄마가 도착하자마자 준경이 버스에서 내려선다. 준경이는 깜짝 놀란다.

준경 : 어? 엄마가 웬일이야? 왜 나왔어. 참. 왜 안하던 행동을 하셔? 응? 무슨 일 있어?

평상시 별로 말이 없던 준경이가 갑작스런 엄마의 등장엔 놀랐는지 말이 많아졌다. 그런 준경이를 바라보며 엄마는 책가방과 보조가방을 받아들며 손을 꼭 잡는다.

준경 : 무슨 일이냐니까?

엄마 : 그냥, 갑갑해서 나왔어. 왜, 엄마가 나오니까 싫어?

준경 : 누가 싫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놀라서 그렇지. 무슨 일인데 갑갑해?

엄마 : 아냐. 아무 일 아냐. 그냥 나오고 싶어서 나왔어. 춥다. 얼른 들어가자.

모녀는 종종 걸음을 치며 아파트로 들어선다.

20. INT 주방 밤 11시 50분

주방 식탁에 모녀가 앉아있다. 식탁 위에는 김치랑 라면이 놓여있고 준경이는 젓가락으로 라면을 들어 올려 후르륵 먹는다. 엄마는 준경이가 라면을 다 먹기를 기다리며 안스러운 표정으로 쳐다본다.

엄마 : 힘들지 ...

준경(젓가락에 라면을 들어올린 채 엄마를 바라보며) : 자꾸 왜 이러실까? 뭘데 무슨 말을 하고 싶는데 그래. 어색하니까 얼른 본론부터 이야기해. 소화도 안되겠네.

엄마 : 어머. 미안해 준경아. 안 그렇게. 천천히 먹어. 천천히. 이런 엄마가 주책이었나 보네. 미안해. 천천히 먹어. 물 갖다 줄게.

엄마 주전자에서 따뜻하게 데운 물을 따라 온다. 준경이 물을 한 잔 다 마시고 컵을 내려놓는다.

준경 : 아. 또 널 퐁퐁 붓겠다. 어찌지? 안 먹을 수도 없구. 이제 이야기 해봐. 무슨 일인데.

엄마 : 응응. 아냐, 별 것 아닌데 엄마가 오늘 TV를 봤는데 엄마 어릴 적도 생각나고 또 너의 입장도 생각해보게 되었지. 그러다 보니 오늘따라 우리 준경이가 어찌나 보고 싶던지.

준경 : 닭살. 무슨 내용인데. 아휴 속 터져. 빨랑 본론을 이야기해봐.

엄마 : 오늘 아침 토크 쇼에 너 정진경 정신과의사 알아? 암튼 나도 처음부터 보진 않았는데 그 여자가 그러더구나. 특히, 큰 아이를 배려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엄마가 둘째 아이를 낳아서 안고서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큰 아이의 심정은 남편이 애첩을 데리고 들어는 모습을 보는 본처의 심정과 똑같단다. 어찌 ...

듣고 있던 준경이의 커다란 눈에서 눈물방울이 또르륵 떨어진다. 조금 전의 그 당돌함이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엄마는 준경이의 그토록 슬프고 여린 모습을 처음 보는 듯 했다. 엄마 역시 놀라서 말을 중단하

고 준경이 곁으로 가서 꼭 안아준다.

엄마 :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채경이가 너무 약하다 보니 엄마가 너한테 너무 무심했어. 엄마도 겪었으면서 잊었구나. 그래, 울어. 서러운 마음 다 뱉어내. 엄마 왜 이렇게 너희들한테 미안한 일만 만드니. 채경이는 엄마가 너무 늦은 나이에 낳아서 그런지 몸이 약해 늘 미안스럽고. 또 채경이만 챙기다보니 너의 그런 서러운 심정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준경아 미안해. 그것도 모르고 왜 엄마한테 그렇게 반항을 하나. 사춘기가 너무 심하게 지나가는구나 라고만 생각했어. 그래 오늘은 실컷 울어. 그런데 어찌니 준경아. 널 얼굴이 정말 퉁퉁 붓겠네. 준경이 엄마 품속에서 그동안 쌓여있던 서러움을 모두 토해내듯 큰 소리로 엉엉 운다.

21. EXT. 아파트 근처의 공원 토요일 오후 5시

아빠, 엄마, 준경, 채경이 산책을 한다. 아빠와 채경이 손잡고, 엄마와 준경이 손 잡으며 겨울 산책을 한다. 앞에서 아빠와 채경이는 재미있게 장난을 치고 있다. 준경이 그런 모습을 보고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낸다.

준경(아주 조그만 목소리로) : 엄마, 이번 주 내내 아빠한테 문자 왔어. 이것 봐.

엄마 : (깜짝 놀란 척하며) 어? 정말? 흥, 이제 엄마가 빠져야겠네. 엄마한테는 한 번도 안보내면서. 치사하게 유 씨들끼리 푹푹 뭉쳐서 김 씨만 왕따 시키네? (말은 그렇게 하지만 표정은 밝다)

엄마는 준경이를 바라보며 눈짓으로 너도 아빠 곁으로 가라고 하지만 준경이는 여전히 속스럽기만 하다. 엄마는 답답한 듯 딸 귀에 입을 갖다 대며 말한다.

엄마(속삭이듯) : 네가 슬며서 아빠 옆으로 가서 아빠 손잡아. 괜히 속으로만 부러워하지 말구. 어서.

준경이 쑥스러운 듯 아빠 곁으로 간다. 아빠는 곁에 온 준경이의 손을 덥석 잡는다. 준경이 깜짝 놀라지만 너무 기분이 좋다. 표정이 순간 밝아진다. 세 부녀가 무엇이 재미있는지 깔깔거리며 앞서 간다. 엄마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짓는다.

학생문단 | 평론

이순지

評論

목월의 상상세계와 현실세계

〈청노루와 운사월을 중심으로〉

이순지

I. 서론

우선 박목월의 생애를 알아보려고 한다.

그는 모량리에서 출생하였지만, 선친은 경남 고성에서 목월이 출생하는 시점에 이주한 것이다. 그리고 그의 작품 중 ‘청노루’와 ‘운사월’이라는 작품을 발췌하였다. 이 작품의 서지는 2006년 을유문화사에서 청록집의 발간 60주년을 기념하면서 필자에게 신문광고를 통하여 서지를 구하게 되었다. 그 사실로 인하여 목월에 대한 새로운 감정으로 이 책을 읽어보게 되었으며 청록과 시인도 함께 되새겨 보는 계기가 되어 목월에 대한 논문을 쓰게 된 동기이다.

이미 두 작품은 너무나 잘 알려진 작품이다. 그렇지만 필자는 논문을 통하여 새로운 관점으로 그의 작품을 분석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작품에 대한 특정한 시어를 찾아 노정탐방도 하였다. 그 이유는 이 두 작품에 작가의 상상세계와 현실세계라는 관점을 놓고 목월의 생애가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어떻게 투영되고, 굴절되었으며 현실적 반영이 되었는가를 연구하고자 함이기 때문이다.

연구방법은 작가론에 입각하여 역사주의 비평방법으로 목월의 생애를 우선 알아보고, 형식주의 비평방법에 의거 작품분석을 적용해 연역적 방법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필자가 이 방법으로 역사주의와 형식주의를 동시에 적용한 이유는 두 작품을 논하고자 함에 있어 목월의 생애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여 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서지는 출간된 그의 저서 『청록집』과 현재 전하는 시집 『나그네 한국대표 100인 선집』(미래사, 1991)을 통하여 비교분석하였고, 원전은 1946년 발행된 『청록집』을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구하여 참고하였다.

작가의 출생 시 출생신고에 관한 기록을 알기 위하여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자서전 기록과 대조를 하였다. 그 결과로 본 연구에 중요한 사실을 제공할 것으로 여겨진다.

본론은 작가의 작품분석에 앞서 그의 생애를 먼저 언급하고, 그 생애를 통하여 작품이 쓰여진 장소를 직접 노정 탐방하여 시어와 작가의 상상세계를 역사적 사실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추적하고, 현실 세계와 투영, 굴절된 작가정신을 비교분석하기로 하였다.

II. 본 론

1. 목월의 출생지와 그의 유년

박목월이 출생한 곳은 경주시 건천읍 모량(牟梁)리 571 번지이다. 이 지명은 일본시대 모량(毛良)으로 사용하였으나 본래 삼국사기에 전해진 바로 모량(牟梁)이다. 이곳의 유래는 이러하다. 신라 시대에 김대성이 이곳에서 출생하였고, 원측 법사가 이곳에서 출생하여 역사적으로 당나라에서 이름이 알려진 유명한 승려이다. 원측법사는 중국 흥교사에서 승려 생활을 하다가 생을 마친 당태종이 당나라 오성(五聖) 중의 한사람으로 손꼽을 만한 인물로 인정하였다.

1984년 포항대학교 고 김호길 박사의 친구인 버클리대학 교수 함병

춘 공학박사가 1987년 8월 ‘문화재해설의 밤’에서 불국사 경내에 있는 ‘석가탑과 다보탑의 황금비율’을 강연하였고, 미국의 과학자로서 증명하였다.

장소는 경주시 성동동 서강예식장이었으며, 함박사가 유네스코에 등록할 만한 세계적인 유물이 경주불국사를 위시한 경주 남산이라는 것을 주장하였다. 멀리 미국에까지 알려진 원측법사의 ‘유식론’의 사본이 알려지자 그분의 출생지가 모량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삼국사기에 기록된 모량(牟梁)이라는 글자로 고쳐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 후 십여 년이 지난 1998년 3월 24일 행정구역 동명이 모량(毛良)에서 모량(牟梁)으로 바뀌게 되었다. 지금 경주국립박물관에는 원측법사의 ‘유식론’의 사본이 보관되어 있다. 이러한 곳에 박목월은 시인으로서 탄생한 것이다. 이 고을은 약 이백여 호의 반촌으로 인구는 육칠십년엔 이천 여명이 살았으나, 지금은 팔백 여명만 살고 있다.

모량리 박목월 생가 바로 앞에 청석산이 있다. 청석산을 둘러싼 큰 산맥이 단석산인데, 그곳은 삼국사기에 신선사(神仙寺)라는 절이 있었던 곳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그 절터는 소실되어 없어졌으나 천 구백 팔십 사년 동국대학교 황수영 박사에 의하여 절터를 발견하게 되어 ‘신선사’라는 절이 전설속의 절이 아니고 그 절터는 역사적(단석산과 목월과는 무관하지 않았다) 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곳 마을은 박목월 생가의 위치는 살구정이라 하여 청석산 개울가와 청석산 비탈에 살구나무가 많이 심어진 것을 뒤로 하고 이루어진 자연 부락이다.

그 위치는 경주역을 시점으로 하여 대구방면으로 국도 4호선 12.6km에서 모량초등학교의 후문 시멘트 포장길로 구백미터지점이다.

이 동네는 모량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중앙선 철로가 일리와 이리를 동서로 모량 기차역에서 건천까지는 3.9km에 이른다. 목월이 출생할 당시는 서면 건천리에 건천국민학교가 있었으며 목월은 입학당시 호적상 1915년 1월 6일이 분명한 것 같다.¹⁾

그의 이름은 “朴泳鍾”으로 그의 아버지는 박준필이고, 그의 어머니

1) 박목월, 『박목월 자선집 7권』, 삼중당, 1973. p.368.

나는 박목월의 자서전에 보면 그의 모가 박인재로 되어 있으나, 필자가 제적등본을 확인한 즉 그의 모는 “김석천”으로 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그리고 『박목월 자선집 제7권』 (삼중당, 1973.) p.368.에 의거하면 박목월은 1916년 1월 6일로 되어 있으나 호적상은 1915년 1월 6일로 되어 있어 착오가 발견되었다. 만약, 목월이 1916년에 출생하였다면 1년 뒤나 늦게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일제 때의 보통사람들의 일반적인 일이었다면 목월은 당연히 1914년 전후하여 출생신고를 하여 생각할 수 있을 것이나, 당시 박영종의 아버지가 수리조합의 이사로 근무한 점을 보아 식견이 있고 일제 때 시골에서 권력행사를 할 수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출생신고를 앞당겨 신고하지 않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출생신고를 한 점을 미루어 보아 제적등본에 기록된 1915년 1월 6일임을 알 수 있다.

박목월은 1923년 4월 호적나이 8세에 경주군 서면 건천리에 있는 건천보통학교에 입학한다²⁾. 지금 현재 건천이란 동네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기점 하여 삼백 삼십 킬로 지점 경주터널을 통과하면 건천인터체인지가 나온다. 건천인터체인지에서 오리정도, 도로를 건너면 건천초등학교가 나온다. 경주에서 대구방면 국도로 15.6km지점 우측 편에 위치한 학교이다. 또한 위 학교에서 서편으로 보게 되면 삼 킬로 지점에 좌측 강 건너편 산이 바로 해발 882m의 단석산이다.

이 단석산에는 신선사(神仙寺)가 있는 곳이다. 그 입학 당시 모량리에서 건천까지는 십리 정도를 걸어서 건천초등학교에 다니다가 사학년이 되자 조부의 배려로 부친이 분가하여 천포리 899번지로 이사를 하게 되며 초등학교 때 친구들과 사귀면서 자기가 보지 못했던 바다나 강 그리고 아름다운 산에 대한 얘기나 상상력이 살아 나도록하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되었다. 이것이 목월로 하여금 자연과 더불어 아름다운 세계의 상상력을 끌어내어 주는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라고 여겨진다.³⁾ 이 산이 바로 단석산이다.

2) 박목월, 『박목월자선집7권』, 삼중당, 1973, p.368.

3) 위의 책, p.318.

2. 목월의 문단생활

1930년 4월 박목월은 기독교계의 신앙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목월 자신도 기독교계통의 학교인 대구 계성중학교에서 공부를 하나 성적은 그리 우수하지 아니하였다. 성격은 온순하고 근면성이 있는 학생이라고 하였으나, 이미 재학시절에 학생신분으로 동요시인으로 등단을 하여 1932년 아동잡지 『아이 생활』에 투고하였고 1933년 18세 대구의 계성중학 재학 중 동시 「통딱딱 통딱딱」이 《어린이》에, 「제비 맞이」가 《신가정》에 당선되는 등 아동문학에 소양을 길렀다.⁴⁾

그리하여 학우들 사이에도 시인으로 통하고 박 목월은 이를 계기로 평생문학의 길을 택한 동기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한다. 그의 상상세계는 시로 넘나들고 있었다.

여기에서 그의 작가연보를 살펴보면 그는 1915년생이 분명하다. 그 이유는 1933년이 18세이기 때문이다. 1934년 경주 출신인 선배 김동리를 만나 문학의 친교를 맺고 1935년 1월 김동리의 「화랑의 후예」가 신춘문예에 당선되자 목월은 축하의 술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중학교를 3월에 졸업하고 경주 동부금융조합에 서기로 취직을 해서 한 일 년을 근무하다가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다가 바로 돌아오게 되는데 일설에는 시학을 공부하러 갔다가 시란 것은 이론이 아니다. 라고 깨우치고 유학을 포기한 것으로 전하고 있다.

결혼은 1938년 박목월은 백번도 넘는 선을 보다가 자기 조부가 꿈에 나타나서 유씨라는 성을 가진 자를 배필로 맞으라는 꿈을 꾸고 운명적으로 금융조합의 업무로 진주로 출장을 가던 차에 처녀와 동석을 하면서 인사를 나누고 헤어 졌는데 결국은 그 여자가 당시 18세의 처녀로 유 익순 이라는 여자와 운명의 만남으로 결혼을 하게 된다.

그의 아내 ‘유익순’은 공주 사범학교의 졸업생으로 사치할 줄 모르고 알뜰한 주부로서 경주읍 노동리 현재 법원 쪽에 있는 동네 김동리 집과는 한 삼백미터정도의 거리를 두고 살림을 하였으며 그 이듬해 1939년 정지용의 추천으로 《문장》지에 「길처럼」, 「그것은

4) 『청록집』 「박목월 연보」, 을유문화사, 1946, p.119.

연륜이다.]가 9월호에, 「산그늘」이 12월호에 각각 추천을 받았다. 그해 1939년 1월 16일 첫 사내아이가 태어났는데 그가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교수로 있는 박 동규이다.

목월이 이로서 성인이 되었고 동시에 성인 시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자 1939년 2월에 창간된 문장지의 출현이었다. 그리고 목월은 1939년 9월 이전에는 자기의 이름이 박영종으로 사용하였으나, 목월이 좋아했던 두 시인 수주(樹洲)변영로에게서는 나무 수(樹)자를 나무 목(木)으로 바꾸고, 소월(素月) 김정식에게서는 달 월(月)자를 따서 자기의 이름으로 쓰게 된 것이다⁵⁾. 라고 하였다.

1940년 동아조선일보 폐간, 1941년 4월에 『문장』과 『인문평론』의 폐간 그리고 12월 태평양전쟁의 발발 등으로 목월의 시 발표는 중단된다. 이 암흑기에 일제 강점이 점점심해지고 대동아 전쟁은 깊어지자 문학 역시 암흑기와 같은 것이었다.

1942년 3월에 조지훈이 목월에게 경주에 가고 싶다고 편지를 보내고 박목월은 환영했으며 닳새 동안 함께 지내면서 나라 잃은 울분을 달래며 두시인의 화답으로 주고 받은 작품이 조지훈의 「완화삼」과 「낙화」, 박목월의 「발을 갈아」와 「나그네」이 두 사람의 작품들은 당시의 암흑기에 발표될 문장지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후대에 이 두 시인들의 마음을 더욱 더 빛나게 했다는 것도 이 당시에 발표된 이들의 시이다.

1944년 청신한 시풍으로 「월야」 등을 발표하여 시단의 신예로 주목을 받았다.

윤년에는 양력 2월은 29일이고 음력에는 윤달이 드는데 한 달을 더 둔다. 그해가 윤사월이 들었으므로 본고에서는 박목월의 ‘윤사월’의 시가 이 해에 쓴 것으로 확신한다.⁶⁾

3. 해방이후, 그의 활동

1945년 그는 『박영종 동시집』을 발간하고 8. 15해방을 맞이하게

5) 정지용, 「선후기」 『문장』, 1939. p.47.

6) 오상도 편저 『대영백세력』, 역리원. 1998, p.50.

되었는데 감격도 잠시 우리나라는 좌익과 우익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하여 사상적 갈등이 혼란한 상태에 목월은 김동리의 권유로 청년문학가의 협의회에 가입한다. 이로서 을유문화사에 근무하던 침묵과의 시인인 한 사람인 박두진이 급히 서울로 상경하라는 전보를 받고 조지훈과 함께 46년 6월 6일 「청노루」에 기초하여 「침묵집」이라는 제목을 단 3인 시집이 발간되고 동시집 「초록별」상재 아동잡지 《아동》을 편집 발간했다. 한국문필가협회결성에 참여하고 상임위원을 맡은 것이 1947년이며 이해 2월에는 금융조합 부이사로 승진한지 한 달 만에 사표를 제출하고 대구의 계성중학교사로 부임한 후 한국문필가협회의 짚은 회의로 서울에 출장을 가다보니 이화여고의 교사직을 제안 받아 이화여고에 잠시 제직하고 서울대 음대, 연세대학, 흥익대학 등에서 강사를 역임하다가 1949년 봄에 서울로 이사를 한다. 그 후 지훈 두진 등과 함께 1950년 6월 「시문학」 편집발행 하지만 한국전쟁 발발로 창간호로 그치고 만다.

6.25를 전후하여 문총상임위원, 청년문학가협회 중앙위원, 한국문인협회 사무국장, 문총구국대 총무 등을 맡고 문학운동에 참가한다. 1953년까지 서울로 돌아오기 3년간 대구로 피난을 가서 공군 종군문인단의 일원으로 복무 한다⁷⁾. 이쯤 1953년 봄 서울로 돌아오기 전 박목월은 한 여성의 문제로 혹독한 시련을 겪게 된다. 그 여성은 H양인데 H양의 자매가 목월을 사모하다가 결국은 H양은 혼기가 되어 시집을 가게 되고 그 여동생이 목월을 좋아하여 제주도로 잠적한 일이 있었다. 제주도로 가서 동거생활을 시작하다가 4개월 만에 유익순여사가 동거 생활하는 장소에 가서 피폐한 생활을 짐작하고 생활비와 유익순여사의 애절한 감정으로 손수 만든 한복을 방에 들여 놓고 말없이 돌아오자 H 양과 목월은 고개를 떨 굴 수밖에 없었고 목월과 H양은 서울로 돌아온다. 그 때 쓴 시가 〈이별〉이라는 시다. 목월은 가정에 충실한 남자로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 바로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효자동 부근에서 하숙을 두 달 동안 하면서 마음을 가다듬은 후 더욱 충실한 가장이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목월은 40대를 앞두고, “한국적인 정서의 바탕위에서 청춘의 애달

7) 박목월, 『보라빛 소묘』, 신홍출판사, 1958, p.5.

품”을 노래하던 것에서 “충실한 삶으로”으로의 시적전환을 꾀하려고 『청록집』에 수록된 작품과 같은 작품들을 모아 그의 나이39세에 1954년 시집 『산도화』를 상재하면서 1955년 제3회 아시아 자유문학상을 수상했다.

박목월의 초기시의 특징은 『청록집』에서 『산도화』에 이르기까지 살펴보면 〈운사월〉을 보면 ‘눈 먼 처녀’, ‘나그네’, ‘두루마기’ 같은 것은 보이지 아니한 작가의 한을 깊이 감추어 둔 시적 내면성을 보여 준다.⁸⁾ 그것은 인간과 자연의 거리에서 오는 상실감과 언젠가는 회복이 될 것이라는 달관의 경지를 알 수 있다.

1956년 목월은 인생에 있어서 환경에 관한 시련을 겪는다. 먼저 60대의 아버지가 노환으로 별세를 하고 그리고 「하관」이라는 작품이 쓰여진 것은 그의 사촌 동생인 영호가 폐결핵을 앓다가 죽었는데 목월의 한 핏줄이 문학지망을 한 것으로 시련과 아픔을 가져다 준 목월 자신에 있어서 두 번째의 불행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이때 목월은 직장도 없었고, 서라벌 예술대와 홍익대학에 강사로 나가고 있었지만 별 수입이 없었고, 그저 출판사에 기획이나 수필을 쓰면서 생활비를 벌었다.

이때 발표한 『구름의 서정』(1956), 『토요일의 밤하늘』(1958), 『여인의 서(書)』(1959)의 수필집과 그리고 『보랏빛 소묘』(1958), 『문학 강좌』(1959)는 자작시 해설집으로 펴내고 다른 창작도 활발히 했으며 인생의 두 번째 시련과 더불어 두 번째 개인시집을 『란. 기타』(1959)를 간행하였다.⁹⁾

1962년 47세 되던 해에 박목월은 한양대학교 국문과 교수로 임용되어 교수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했고 자기 시론을 논리적으로 체계화하였다. 이듬해 당시 영부인인 육영수여사의 요청으로 개인교수가 되어 문학세계를 이해시키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제의를 수락하고 5.16으로 해산되었던 한국시인 협회가 부활했고, 1964년 시집 『청담』과 수필집 『행복의 얼굴』을 간행했다.

1968년 2월에 한국시인 협회회장을 취임하고 『청담』으로 대한

8) 김윤식, 「박목월론」 『심상』 1977.6호.

9) 『청록집』(울류 문학사), (1946.)p.120.

민국문예상 본상을 수상했다. 그 해 시집『경상도의 가랑잎』과 수필집 『밤에 쓴 인생론』 『구름에 달 가듯이』 등을 간행했다. 그럼으로써 목월은 영부인의 회장취임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가난한 후배시인들을 소개하고 후원해달라는 조건 없는 부탁을 하자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흔쾌히 수락했으며 1969년 서울시 문화상 수상 수필집 『불 꺼진 창에도』, 1970년 『사랑의 발견』, 『뜨거운 접하나』를 간행하고 1970년 5월부터 71년 4월까지 발표된 『사력질』은 “생활감정에 밀착되면서 시를 통해 인간의 지혜를 탐구”¹⁰⁾하는 것으로 전환한 것을 보여주었다. 초기의 시는 박 목월의 개인에서 현실 생활로 농도 짙게 반영하되 자연세계의 달관이라는 면모를 보여 준 것이다.

자연세계의 달관경지를 추구하다보니 인간이 신의 경지에 갈 때는 주술이나 깨끗한 영혼의 지도자를 만난다는 의지로 쓰여진 시가 책 『경상도의 가랑잎』에 실려진 「만술 아베의 축문」에서 경상도의 구수한 사투리이지만 아베라는 말은 아베 마리아의 준말이 아닌가? 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상징이 아닌가, 또는 주여! 주여! 하는 외침의 소리와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이유인 즉 경상도의 사투리는 “아부지”라고 하지 아베라고는 하지 아니한다.

4. 목월의 화려한 문학인생과 마감

1972년 국민훈장모란장을 수상하였다. 1973년 58세 시와 산문을 총 정리한 『박 목월 자선집』(전10권)(삼중당)을 간행하였고, 월간 시지 《심상》을 편집발행하게 되는데, 자기의 사재를 털어 만든 것이 심상이라고 보면 되고, 여기에는 박남수, 김종길에게 협조를 구하여서 창간하게 되었다. 1973년 10월이다. 편집기획위원으로는 목월, 박남수, 김종길, 이형기, 김광림 이였고, 실무위원으로는 김종해, 이건청이 맡았으며 1인 편집 체제에서 여러 사람의 편집기획 위원체제를 도입하였다는 사실은 종전의 시지에서 볼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수필집을 동시에 실었고 원고 엄선주의를 채택한 점이 특징이었다. 당시의 시인

10) 김광림, 「박목월의 시세계」, 『101편의 시』, 삼중당, 1975. p.141.

들은 밤낮으로 무보수로 일을 했고 한국시지 역사상 최고의 수준이라고 말하였다.

창간호의 수준은 기대 이상이었지만 1974년 한국시인 협회회장에 선임되었으나, 불행하게도 8. 15날 영부인의 암살로 인하여 영부인의 전기집필을 맡았는데 정치적으로 전혀 무관한 것이었으며 다만 평소 아끼지 않았던 고인의 후원의 인간적 정으로서 집필을 하게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고, 그 집필로 1년 뒤에 완성을 보게 되었지만 항간에는 정치적 압력이나 개입설도 있기도 하였다.

1975년 그런 바쁜 와중에도 선(選)시집 『101편의 시』(삼중당) 간행하였으며, 한양대학교에 문과 대학장을 맡았고 학장이 된 것은 수위에게도 먼저 인사를 할 정도로 겸손한 교육자였으며 그는 교육자라기보다 시인을 더욱더 명예롭게 생각한 시인이었다. 그리고 1976년 61세에 환갑을 기념으로 마치 공자의 이순(耳順)의 뜻과 같은 『무순(無順)』을 발간한 것은 아마 그의 동양적 관조의 세계를 달관한 문학관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아진다. 이때에 그는 고혈압으로 2주정도 입원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자신이 죽음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라도 한 듯 죽음과 관련된 시를 많이 썼다.

「용인행」, 「빈껍」 등의 시어에 보면 “양지 바른 터전” “인간은 빈 것이 있을 수 없다.” 에서 보면 죽으면 명당을 찾아 육신이 묻힌다는 것과 인간이 지닌 모든 탐욕과 허물을 버리고 빈 그릇 같은 ‘서늘한 체념’ 에 도달할 때 비로소 차원 높은 구원의 세계인 신앙의 샘물로 채운다. 라는 시어에서 첫 번째는 돈독한 신앙을 확인 할 수 있고 다음에는 본질적으로 사십 여년을 오로지 시만을 위해 살아 온 외길 삶에서 이 시가 쓰여 졌음을 알 수 있다.

시는…… 나의 경우 구속되고 패쇄 된 젊음을 의식할 때 그것에의 해방, 탈출을 희구하는 갈증이요, 혹은 불완전한 인간과 인간 사이에 벌어지는 틈바구니 속에서의 몸부림이요, 죽음의 그 모습을 보일 때 하얀 목마름이었다.¹¹⁾

1978년 3월 24일 그의 나이 63세 지병이었던 고혈압으로 잠이 들어 용인 모란 공원에 안장되고 그 이듬해 1979년 1월, 미망인 유익순

11) 박목월 『박목월 자선집 1권』 삼중당.1973. pp.329-330.

여사에 의해 신앙 시들만을 모아 유 시집 『크고 부드러운 손』이 나왔다. 이로서 그의 생애에 대한 것을 알아보았고 그의 초기 작품 <청노루>와 <윤사월>에 관한 시를 보고 작품분석 해보자 한다.

5. 두 작품 분석

이 작품의 서지는 이 두 작품이 실린 『청록집』 1946년 6월에 실린 전문을 이용한 것이다. 초간문 원문을 을유문화사에서 2006년 6월 26일 간행된 영인본을 가지고 참고하였다.

(1) 청노루의 작품 분석

청노루

박목월

먼 산 청운사(靑雲寺)
낮은 기와집

산은 자하산(紫霞山)
봄눈 녹으면

느릅나무
속잎 피어가는 열두굽이를

청노루
맑은 눈에

도는
구름

1) 필자는 화자의 상상세계 ‘청노루’는 현실세계에 존재하는가?

분석하고자 한다.

‘청노루’란 푸른 노루를 말하는데, 노루에다 우리의 푸를 청자를 형용사 접두어로 사용할 때 화자는 상상의 세계로 독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현실세계는 ‘청노루’ 즉 푸른 색깔을 띤 노루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당연히 목월은 상상세계를 독자에게 맡기고 있다. 여기에서 목월의 생애를 다시 한 번 더듬어 볼 수밖에 없다.

목월의 유가가문의 전통적 가정에서 교육을 받고 자랐다. 이런 사실로 보아 목월의 상상 속에는 유가적 사상이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유가적 사상이란 유교적 전통사상이 동양사상이다. 동양사상을 이해하고, 동양사상을 사고의 틀로 현대적 실존철학적 개념에 접근하여 동양사상의 사고원리를 ‘음양조화 전개적 사고’라고 규정한 자는 스위스 바젤대학에서 헤겔철학, 칸트철학, 루돌프볼트만의 제자인 김광식이 그렇게 전개하였다.¹²⁾

필자도 해석학적 입장에서 동양적 사고를 가지고 목월의 상상 세계로 들어가 볼 수밖에 없었다. 먼저 동양사상에서는 음양오행 분석적으로 전개하는 논리가 있다. 우주만물을 우선 음과 양으로 나누고 다시 음 또는 양을 각각 나무, 불, 흙, 금속, 물의 원소로 분류한다. 이렇게 분류한 것들을 체계화하고, 논리화 한 것이 음양오행의 배속이다. 가령, 나무에 해당되는 모든 원소들을 크게 나눈다면, 우선 나무는 그 색깔이 푸르고, 식물성이라는 것을 쉽게 표현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해가 뜨는 쪽은 동쪽이라 하고 해가 동쪽에 있을 때는 지구의 시간성은 아침을 말한다. 이것을 좀 더 다이나믹한 표현을 한다면 동쪽은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동쪽지점에 있을 때의 구심도 방향이 계절로 말하자면 ‘봄’에 해당되는 것이다.

화자의 상상세계에서 ‘청’이라는 접두어를 사용한 것은 우주만물의 오대 원소 중 ‘나무’에 해당되는 것이며, 우리의 시간적 개념은 ‘아침’에 해당되고, 계절적 표현은 ‘봄’에 해당되며 공간적 개념은 바로 ‘동쪽’이라는 방향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화자가 상상세계로 독자를 끌어들이는 ‘청노루’는 현실세계에서

12) 김광식 저 『토착화와 해석학』, 대한기독교 출판사, 1985.p.176.

찾아 볼 수 없는 ‘푸른 노루’가 되지만, 현실세계에서 화자의 동양적 사고로 그의 상상세계를 탐구해 본 결과 ‘청노루’는 바로 ‘봄 노루’ 되고 만다. ‘봄 노루’라는 시어를 현실세계에서 독자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현존하는 객관적 상관물임을 이해하게 된다. 이에 필자는 한걸음 더 나아가 화자가 상상한 ‘청노루’를 ‘봄 동산에 뛰어노는 노루’라고 화자의 함의성을 전개시켜 보았다.

필자는 원전을 일천구백사십육 년 유월 육일 발간 된 박목월, 조지훈, 박두진과 함께 지음으로 을유문화사에서 저자대표가 박두진으로 발간된 것을 영인본으로 구입하였다. 이 원전을 구입하게 된 동기는 신문광고를 보고 필자가 다행스럽게도 육십년 만에 다시 찾아온 청록집의 감동을 받은 초간본이었기 때문이다.

위 시는 해방 전 화자가 쓴 것으로 대구 계성학교를 졸업하고, 경주 금융조합에 회계를 보는 조합직원으로 있을 때였다. 그 연대가 일천구백삼십년대 말 그의 처 유익순과 결혼을 한 후 경주시 노동리 법원 쪽에 있는 곳에서 신혼살림을 하였다. 그때 당시 그의 문우인 동리는 서울 경성고보를 그만 두고 『화랑의 후예』로 신춘문예에 당선된 뒤 경주시 성건동에 거주할 무렵이었다. 이때 동리는 날이면 날마다 목월이 근무하는 불국사 금융조합에 갔으며 문우가 되어 불국사를 거의 매일 같이 올라갔다고 전한다.¹³⁾

이런 사실들로 미루어보아 화자는 ‘청노루’의 작품을 신라고찰 불국사에서 시상을 떠올린 후 상상의 세계로 몰입했을 것으로 필자는 생각하였다. 그 이유를 말해주는 것이 화자의 시어 일연 ‘먼 산 청운사’이기 때문이다. ‘먼 산’이 화자의 상상의 세계라면 어린 시절 자기가 자랐던 고향인 모량리의 청석산이나 단석산일 것이다. 불국사는 태백산 줄기인 소백산을 등으로 삼고, 있는 신라시대의 고찰이다.

2) 청운교에서 나온 청운사의 상상세계

제 일행 ‘먼 산 청운사(靑雲寺)’에서 ‘먼 산’은 화자에 있어서 어떤 세계의 산이었을까? 필자는 신라 시대의 열왕들과 이름난 영웅들이 살았던 단석산이나 아니면 불국사가 있는 소백산이거나 옛 조선

13) 김운식, 『김동리와 그의 시대』, 민음사, 1995, p.41.

의 탄생지인 백두산, 태백산등이었을 것이다. 이 사실을 더욱더 현실적으로 관찰하기 위하여 필자는 ‘청운사’에 대하여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 경주 일원에 ‘청운사’라는 절은 아무리 찾아보아도 찾아 볼 수가 없었다. 필자는 화자의 노정 탐방을 위하여 여러 번 불국사를 드나들면서 목월의 상상세계로 몰입해 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화자가 ‘청운사’를 찾기 위하여 청운교와 ‘백운교’를 수없이 오르내리다가 ‘청운교’ 끝자락의 일주문을 바라보고 있는 순간 ‘청운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상상을 떠올렸다. 다시 말하면, 목월은 청운교 백운교 위에 있는 절 이름을 ‘청운사’라 할까? ‘백운사’라 할까? 수없이 고민을 하였다고 본다. 그 이유는 청운교와 백운교가 좌우측으로 나란히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화자가 ‘백운사’라 하지 아니하고 ‘청운사’라 하였을까? 화자의 상상세계에는 동양적 사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음양조화의 전개적 사고’가 그의 상상의 세계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동양사상에서는 좌측을 ‘청용’이, 우측을 ‘백호’가 자리하고 있다 한다. 이것은 동양사상에서 ‘음양지리설’, ‘도참설’이라고도 한다. 즉 청용은 동방을 지키는 상징적 동물이요, 백호는 서방을 지키는 상징적 동물이기 때문에 화자는 ‘백운사’를 거부하고 ‘청운사’를 선택하면서 독자의 현실적 선택을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청운사’는 ‘청운교’ 위에 있는 절이 현실세계에서는 바로 ‘불국사’를 가리키는 것임을 필자는 확인하였다.

제 이행 ‘냘은 기와집’의 의미는 불국사 절의 기와로 이어졌고, 신라시대 김대성이 창건한 절이다.¹⁴⁾ 화자는 시점을 신라시대 불국사의 경내를 상상했고, 또한 ‘청운사’의 ‘냘은 기와집’이 현실적 실체이자 불국사는 신라문화가 번창했던 때의 대표적인 절이기도 하다. 이에 화자는 신라시대의 절보다 불국사 절을 있게 한 우리의 고대국가 신라를 상상했을 것으로 본다.

‘냘은 기와집’은 시적 다의성에 의하여 불국사의 오래된 대웅전의 기와일 수도 있고, 신라의 멸망으로 인하여 왕궁이 사라지고 없는 기와를 불국사 대웅전의 ‘냘은 기와’를 보고, 화자는 이 시어를 그

14) 강구진의 『원색 세계동아대백과사전 15』, 동아출판사, 1982, p.170.

냥 기와집이라 하지 않고, ‘낮은 기와집’이라 하였다. 또한 화자는 상상속의 신라시대의 궁궐을 떠올리면서 궁궐을 불국사 절에서 찾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화자는 형용사에 의미된 낮은 신라시대의 왕궁을 의미하고, 당시 그 자취는 찾아볼 수 없고, 불국사에서 바라본 반월성은 그저 빈터만 남아있고, 기와장 하나 전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이 작품 속에 묘사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화자가 자신의 상상세계에만 머물러 있다면 ‘청운사의 기와집’이라고만 해야 옳을 것이다. ‘낮은’이란 오래된 것이며 시간상 과거분사를 의미한다. 과거는 현실에 있어서 과거이며 과거의 시점에서 현재가 되기도 한다. 화자는 ‘낮은’을 붙임으로 현실의 상상이 과거로 이어지고 과거의 상상을 현실세계의 ‘기와 집’과 연결시킴으로써 상상과 현실이 교차되기도 하고, 화자의 확고한 조국의 역사성을 독자에게 강조한 것이다.

3) 신선이 산다는 ‘자하산’

제 삼행 ‘산은 자하산’에서 제 일행의 ‘먼 산’과 같은 ‘산’으로 화자는 설명을 덧붙여두고 있다. 일행의 ‘먼 산’은 공간의 시점으로 멀다는 표현을 하였고, 이것은 공간을 사용하여 상상의 세계를 먼저 독자들에게 제시한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삼행의 산은 그저 평범한 산이고, 일반적인 산이다. 화자는 독자에게 상상을 먼저 던져주고, 현실의 세계에 있다는 것을 평범한 일반적인 산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연이어 화자는 ‘자하산’이란 시어로 현실적 언어이지만, 현실에서 찾아볼 수 없는 시어를 제시함으로써 다시 독자들을 상상의 세계로 끌어들이고 만다.

‘자하’란 무엇일까? ‘자하’란 신선의 이름이다. 이 말은 한국의 전통종교인 대종교, 단군교, 신불교 등 나오는 『신교총화』라는 책에 등장하는 신선으로서 백두산 불함산¹⁵⁾, 태백산, 한발산 등에 사는 신선이다. 이 신선은 기록에 의하면 고려조 말 임자년 당시 오백마흔세 살로 팔공산에 사는 진인과 대화한 신선으로서 이 책에 전한

15) 육당 최남선 저, 『아씨 조선』, 동양서원 발행, 1926, p.29.

다.¹⁶⁾

화자가 동양적 사상에 심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중에 이 시어를 선택하였다고 본다. 그 이유는 그가 ‘자하산’이란 이름을 붙였기 때문이다.

‘자하산’이란? 한 마디로 자하 신선이 살고 있는 산이다. 그 산이 역사적으로 말하자면 백두산이다. 더 나아가 자하선인은 백두산 구화동 구월산에 기거하는 자로 성씨는 ‘이씨’이며, 그 호가 ‘자하’로 알려진다고 전한다.¹⁷⁾

그런데 필자가 노정탐방을 해본 결과 불국사의 청운교, 백운교 끝계단을 올라갔더니 그 일주문의 현판이 ‘자하문’으로 되어 있었다. 이것이 바로 화자가 발견한 ‘자하’라는 시어였을 것이고, ‘자하’라는 말을 불국사 절에 있는 노승이나 조실에게 자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으로 상상해본다.

불국사에 있었던 노승이나 조실 등을 어떻게 만났을까? 김동리의 자서전에 보면, 화자는 경주 금용조합에 다니고 있을 무렵 계성학교 두해 선배인 동리와 날마다 불국사 절에 걸어서 올라갔다고 전한다. 이때 목월은 금용조합의 서기로 취직하여 서른 가까이까지 경주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¹⁸⁾

일설에 의하면, 김동리와 목월은 계성학교 선후배지간이며 동리의 형 김범부에게 많은 지도를 받은 것이다. 김동리는 자기의 형 김범부가 아버지이며 문학의 스승이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초기에 박목월의 호까지도 지었으나 후일 목월은 수주 변영로가 북쪽에는 소월, 남쪽에는 목월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어서 그 후로 계속 목월로 필명을 하였다는 사실도 위의 책에서 전한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목월도 동리의 형 범부에게 많은 지도를 받거나 문학의 길로 들어서서도 계속 연관이 있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 증거로 『청록 집』에 목월의 시조 풍에 대해서 세간 사람들은 ‘화조풍월의 시’ 또는 ‘현실도피성의 시’라고 비평을 할 때 그의 문우이자 친구인 동리는 ‘동양적 우주적 달관의 사상’이라고 높이

16) 김찬호, 「김동리 소설의 사상적 배경연구」, 고려대학교 출판사, 2006, p.43.

17) 최동환, 『천부경 예언론1』, 도서출판 삼일, 1993, p.27.

18) 김윤식, 『김동리와 그의 시대』, 민음사, 1995, p.42.

평가한 사람이 바로 화자의 선배이자 친구인 김동리이기도 하다. 이 말을 증명하여 주듯 ‘청노루’의 시에서 화자의 ‘자하산’은 신선 이 사는 산이란 것을 알고 썼음을 독자는 이해하여야 한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김동리의 형 김범부가 민족사상가요, 독립운동가요, 동양사상가로써 당시 김범부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으니 그로부터 신선사상이나 동양사상을 충분히 담화가 오고갔을 것으로 사료되고 뿐만 아니라 불국사를 날마다 오르내렸으니 이러한 사실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필자로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도 남는다.¹⁹⁾ 화자는 독자에게 제 삼연에서 현실세계에서 상상의 세계로 시어를 전개하고 독자들에게 상상의 세계에서 현실의 세계로 전개한 사실도 제 삼행에서 보여준다.

필자가 노정탐방을 한 결과 목월의 상상의 세계는 시상 속에 있었으나 필자는 화자의 상상이 불국사라는 현실세계에서 상상의 세계로 옮겨놓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제 사행 ‘봄 눈 녹으면’은 화자는 이 행에서 ‘봄’과 ‘눈’ 그리고 동사 ‘녹다’의 시제 가정법을 가지고 현실적 고통에서 미래의 희망을 제시하고자 했다. 먼저 ‘봄’은 희망이요, 잠에서 깨어남이요,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햇살이 올라오는 환경으로 전환되는 시어를 먼저 제시하고 있다. ‘봄’은 추운 겨울 다음에 오는 계절로 만물이 소생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뿐만 아니라, 화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양적 사상이 이 시에서 있다고도 언급하였다. 그 예로 푸르다는 의미로 쓴 시의 제목에서 ‘청노루’는 ‘봄 동산의 노루’라고 필자가 분석하였듯이 여기에서도 한걸음 더 나아가 봄은 동쪽이기도 하고 우리의 조국이기도 하다. 그런데 화자는 ‘봄눈’이라고 하였으니 봄에 눈이 있다는 뜻을 의미한다. 눈은 겨울을 상징하기도 하고, 소한 대한 때 내린 눈은 이십사절후 중 첫 절후인 입춘이 지나서도 녹지 아니하고, 봄 동산 그늘에는 잔설이 남아 있음을 화자는 얘기하고 있다. 잔설은 봄기운이 완연하면 분명히 녹는다는 사실을 화자는 언급하고 있다.

19) 김범부 『풍류정신』, 민음사, 1986, p.6. (김동리 글 백씨를 말함.)

4) 조국의 광복을 상상의 세계에 호소한 목월

‘눈’이란 누굴 상징하는 것일까? 화자의 상상세계는 시의 세계에서 나와 화자 그리고 타자인 인칭을 구분해 놓고 볼 때 그는 분명 일본 제국주의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을 것이다. 이 시가 역사적으로 볼 때 해방 전에 창작된 시이고, 출간은 1946년에 되었다 하더라도 일제가 패망하는 시점에서 화자가 시를 읊긴 것이라고 필자는 주장한다. 이런 점을 보아 ‘화조풍월’이니, ‘현실도피’이니 라는 말을 박목월에 대해서 하고 있다면 다시 한 번 재고해봐야 할 것이다.

‘녹으면’의 시제가 결합되면 ‘일제가 물러가다’의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화자는

일제당시 억압받고 고통 받는 민족적 현실을 직시하고 이 시를 창작했음을 알 수 있다. 분명 화자는 가정법을 쓴 시제의 내용에서도 가정이란 화자의 상상세계의 시간성을 독자에게 제시해주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 시간성을 더욱 더 현실 세계로 나타내어주는 객관적 상관물이 바로 오행의 ‘느릅나무’에 해당된다.²⁰⁾

제 오행 ‘느릅나무’는 어떤 나무인가? 불국사 경내에 가면 신라시대 나무인지는 모르지만 ‘느릅나무’가 오래도록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최하 육칠백년 이상은 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나무는 고려 말 또는 이조 초기에 심어진 나무라고 가정해 보자, 신라의 나무가 그때까지 존재하지는 않았다. 그 나무는 조선시대에 심어진 나무이거나 길게 잡아 고려시대의 말기에 심어진 나무일 것이다. 화자는 이 나무를 오래된 나무라고 객관적으로 판단한 것은 틀림없다. 화자는 독자에게 이 나무를 오래된 나무로 상상토록 하고, 가까이서 조선조 고려조로 끌어들이면서 더욱 더 깊은 상상의 세계로 인도하면서 신라시대까지 왕조를 안내하고 있다.

뒤이어 이 나무는 ‘느릅나무’이므로 활엽수라는 것을 ‘느릅나무’에서 알 수 있다.

앞은 왕조사에 있어서 흥망을 가리키는 것으로 겨울이면 속잎이 나올 것을 준비하고, 봄이 되면 느릅나무의 잎은 다시 나오게 된다. 이 ‘느릅나무’가 ‘자하산’에는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화자의 현실

20) 강구진의 『동아원색세계대백과사전8』, 동아출판사 1982. p.57.(건축재, 가구재, 선박재, 세공, 딸감으로 한국 전국에서 자라며, 활엽고목으로 20m 키로 자라며, 치습, 소중, 소목, 이노 등의 약재로 쓰기도 함.)

세계는 불국사 뜰을 위시하여 토함산의 앞뒤 산 그리고 토함산에서 감포 방면으로 이어지는 산 계곡에까지 지금도 ‘느릅나무’가 짙 들어차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당시만 해도 느릅나무의 수종으로 일제가 철길역사 주변에 철조망 대신에 ‘느릅나무’를 심어 놓았다. 지금도 경주 주변의 오래된 역사들은 느릅나무를 철조망 대신에 사용하고 있다.

제 육행 ‘속잎 피어가는 열두굽이를’에서 ‘열두 구비의 속잎’ 속잎은 ‘속’에 있는 잎이다. ‘속’이라는 것은 화자의 내면성을 의미하는 상상이요 잎은 현실적 외면을 의미하는 것이다. ‘속’이라는 것을 의미해보자, 보이지 아니하는 무형의 세계, 영혼의 세계, 상상의 세계, 무의식의 세계, 이미 사라지고 없는 세계, 죽음의 세계로 해석할 수 있다. 화자가 얘기하는 열두 구비의 심어진 느릅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왕조사를 의미할 것이다. 인간의 문화와 역사를 화자는 특히 우리 민족의 문화와 역사를 느릅나무로 보았던 것이다. 인간의 문화 역사를 나무로 본 화자의 상상세계는 그의 생애 있어서 가능한 것일까? 필자는 긍정적으로 해석하였다.

화자는 14세 때 건천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미션계통인 학교인 대구 계성학교에 진학하였다. 계성학교는 기독교이므로 화자는 성경에 대한 상징과 비유적인 지식을 그곳에서 쌓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성경에는 에덴동산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는데, 한 나무는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요, 한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가 있었다. 전자는 인간의 조상 남자인 아담을 말하고, 후자는 일류의 조상 여자인 해와를 상징한다고 오늘날 성서학자들은 해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화자는 생명나무나 선악나무를 대신하여 우리나라에 흔히 자생하며 수명이 길고, 오래도록 생존하는 나무가 바로 ‘느릅나무’라는 것을 현실화 시킨 것이다.²¹⁾

이 나무의 속잎은 이미 사라지고 없는 우리의 옛 조선인 근본을 상징하는 것이며, 그 왕조들의 바뀔이 열두 번 정도 있었다는 것을 화자는 육행을 통해 독자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호소하고 있기도 하다.

제 칠행 ‘청노루’는 ‘자하산’에서 느릅나무 잎을 뜯어먹고 살

21) 개혁개정판, 『한영스터디 성경』, 생명말씀사, 2005. p.2 (창세기 2장 9절)

며 봄 동산을 기다리는 주인공을 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왜 하필이면 칠 행에 ‘청노루’ 를 넣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 노루는 팔행 이후 멈추어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다. 멈추어 있다는 것은 정형이요, 안식이요, 고정이요, 정지된 상태이어야만 ‘눈동자에 도는 구름’ 을 알 수 있다.

일곱 번째 행은 숫자적으로 칠(七)에 해당됨으로 동양적 사상에 의하면 다시 출발한다. 한자의 자전에는 ‘잘라진 싹이 다시 올라오다.’ 라는 의미가 있다. 한자의 자전에는 또 ‘일어나다’ 는 개념이 있다. 성서적 해석은 일곱째 되는 날은 우주만물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고요히 쉬는 날이라고 하여 안식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재출발하거나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멈추어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화자는 조국의 일제 탄압으로 국권을 상실하고, 민족정신마저 말살되어 가는 이때에 잠시 멈추어 있음을 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의 기간을 더욱더 세밀하게 말해주듯 봄 동산에 뛰는 노루가 잠시도 움직이지 않으나 그 순간은 눈동자에 있는 구름이 도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다시 말하여 화자는 우리 왕조사가 만여년에 걸쳐 역사문화를 펼쳐 왔다면 삼십여 년 간의 일제의 압박과 고충은 ‘청노루’ 의 눈에 도는 구름에 지나지 않는 짧은 시간이라는 것을 독자에게 환기시켜주며 상상으로 호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에서 김동리는 비평가들의 편견을 무릅쓰고 동양적 사상으로 관조적 세계가 정치주의 적 편협한 문학의 눈으로 화자의 시를 이해할 수 없다고 옹호해준 사실이 청록집에서 말해주고 있다.²²⁾

(2) 윤사월 작품 분석

송화(松花)가루 날리는
외딴 봉우리

윤사월 해 길다.

22) 박목월, 조지훈, 박두진, 『청록집』, 을유문화사 1946, p.105.

피꼬리 울면

산직이 외딴 집
눈 먼 처녀사

문설주에 귀 대이고
엿듣고 있다.

1) 자연의 순환원리로 찾아오는 윤사월

일행 ‘송화 가루 날리는’의 일행의 시간적 시점은 화자의 입장에서 현재의 진행으로 제시해 놓았다.

‘송화 가루’는 시간적으로 양력 오월 정도이므로 음력 첫 여름에 해당된다. 여기에서 화자는 계절적 시간관념을 객관적 상관물 소나무의 꽃가루를 가지고 시상을 펼친 것이다.

소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것은 동양적 사상에 의하여 십장생에 해당되고, 공간적 배경을 생명력 있게 차지하는 것이다. 화자가 염원하는 것은 장생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화자의 염원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모든 사람들이 내면적 원형에 장수라는 의미도 들어 있다. 화자는 시간에서 공간으로 실물로 형상화 하였으며 상상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시중의 화방이나 고서점에는 십장생도가 종종 걸려 있음을 알 수 있고, 요즘 들어 TV연속극중 사극에 나오는 임금이 앉아 있는 의자 뒤편 벽화에 항상 십장생도가 걸려 있거나 왕후가 거하는 처소인 병풍 그림에 소나무가 걸려 있다. 소나무가 가장 왕성한 계절이 늦은 봄인데, 초여름을 맞아 이미 꽃은 피고, 그 가루가 정반이 작용을 위해 산바람을 타고 온 산천을 날라 다니는 것이 현실세계의 송화 가루이다.

우리 민족은 복보다는 먼저 수명을 원했다. 그 이유는 수복강령고명종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고, 얼마나 우리 민족이 수복을 원했으면 수저나 밥그릇, 베개, 이불 무늬, 방석 무늬 등 항상 목숨 수자와 복복자가 새겨져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다.²³⁾ 이와 같이 화자는 우리 민

23) 김동리 『꽃과 소녀와 달과』, 도서출판 제삼기획, 1994. p.125.

족의 상징인 역사와 문화의 객관적 상관물로 소나무로 상상하였고, 이 소나무에 달린 꽃가루가 번식을 위하여 여러 곳으로 휘날려 가고 있음을 현상적으로 노래한 것이다.

나무의 본체에서 잎, 송화들은 바로 나무의 가지나 줄기에서 파생된 것으로서 우리 민족 개개인을 의미한 것으로 필자는 분석하였다. 위의 시제는 화자가 진행형을 썼으므로 아직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불안한 확실하지 못한 미완성된 어떤 것들을 화자의 내면세계에 시어가 연결된 것으로 필자는 분석하였다.

제 2연의 ‘외딴 봉우리’는 ‘외딴’과 ‘봉우리’의 연결어로 필자는 우선 ‘외로운 땅에 있는’을 외딴으로 풀이하였고, ‘봉우리’는 아직 미완성된 피지 아니한 꽃 봉우리의 객관적 상관물을 산봉우리로 옮겨놓은 것으로 현실세계의 내면적 상상세계로 옮겨놓은 것으로 풀이해 봤다.

‘외로운 땅’이란? 홀로 라는 의미와 조국, 모국, 당시 우리나라의 현실을 말하며,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의 홀로서기 즉 독립을 인정해주거나, 도와주는 국가는 아무도 없었음을 상상할 수 있다. 산봉우리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대상이요, 표상이다.

잃어버린 조국 또는 과거의 찬란했던 우뚝 섰던 조국을 말하기도 한다.

‘윤사월’에 대한 언급은 윤사월 목월의 상상세계에는 윤사월이 있었다. 윤사월이란? 우주적 시간상을 말하는데, 음력 4월이라는 달이 한 번 더 드는 해가 있다. 그 해 중에 윤달을 윤 사월이라 하고 윤 사월 이전에 사월을 본 달이라고 말하고 있다. 목월은 박준필의 아들로 유학을 공부한 자이다.

목월의 나이 29세 때 1944년이 도래한다.²⁴⁾ 그 해에 윤사월이 있었다. 그 당시 목월은 건천초등학교 다니던 때였고, 모량리에서 건천 초등학교까지는 십 여리가 되는 거리다. 일제 때 초등학교를 다니긴 하지만, 그에 아버지로부터 천자문, 동몽선습, 소학언해 등을 수학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일제 때라 하나, 구한말의 문물제도가 그대로 답습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린 목월로서는 초등학교 시절 이

24) 오상도, 『대명만세력』, 역리원, 1999,p.50.

전에 당시의 관습으로 누구나 글을 깨우치기 위하여서는 천자문을 읽고 쓰고 외우고 난 다음 동몽선습이나 기타 한문서적들을 대하는 것이 매일반이었다. 목월의 어린 시절에 윤달이라는 개념을 이미 알았을 것으로 미루어 볼 수 있다. 천자문에 보면 ‘윤여성세’ 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이다. 음력은 360일을 기준하여 6일이 모자라고, 양력은 365일로 360일을 기준하면 5일이 남는다. 그러므로 양력과 음력의 차이는 일 년 마다 11하루가 모자람으로 음력은 양력에 비해 3년이 지나고 나면 삼십삼 일이 모자란다. 그러므로 음력은 삼년마다 윤달을 한 달씩 두어 양력과 음력간의 시간적 평행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음양의 이치이다. 즉 이 말을 정리해보면 일 년은 356. 2422……일인데 이것을 시간계산을 하여보면 삼백예순다섯 날, 다섯 시간 사십팔 분 사십육 초로 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이십사 시간을 자전주기로 하여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궤도상의 시간이다.

반면 음력은 354. 8282……로 354일, 열아홉 시간, 사십구 분 사십구 초……로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고,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이십구 점 오일이다.²⁵⁾

즉 음력과 양력의 차이는 여기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양력은 다섯 시간 사십팔 분 사십육 초 때문에 사년이 되게 되면 하루가 더 많아 지므로 이월 달에 28일에서 하루를 더 삽입하는 것이 윤년이 되게 된다. 즉 천자문에 ‘윤여성세’ 라고 하는 것은 양력은 사년마다 윤년을 두게 되고, 음력은 삼년마다 윤달을 둔다는 뜻을 목월은 그의 조부 박준필로부터 누누이 얘기를 들었을 것이다. 그의 상상의 세계는 바로 이러한 윤년시절에 형성되었을 것으로 필자는 확신한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월이 왜 하필이면 윤사월인가? 그 윤사월은 목월에게 있어서도 남다른 일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2) 보릿고개를 윤사월에서 유래한다.

필자는 이 사실을 작가론의 입장에서 그의 연보와 출생지를 탐방한 바 윤사월은 보릿고개와도 관계가 있었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25) 김민호, 『나무목만 알아도 명운이 보인다.』, 가람출판사, 2003. p.3.

경주 지방의 보릿고개는 언제부턴지 그 유래가 있다. 서민들은 보리밥을 먹었다. 보리의 원산지는 서장(西藏)이다. 지금 티벳 지방이다.

우리나라 언제 서역(西域)과 교역이 있었는가? 물론 오랜 세월부터 교류가 있었다고 보아지나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진 시대는 삼국시대, 특히 신라가 교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신라승려 해초는 왕오천축국을 육로로 통해 다녀온 사실이 있다. 서역을 통해 오늘 날 인도(印度)인 천축국을 다녀온 것이다.

보리는 서역에서 생산이 많이 되고 있다. 지금도 서역의 고원지대는 보리가 주식이고 생산을 많이 하고 있다.

필자가 서역을 설명하는 것은 보리라는 글자가 한자어로는 ‘맥(麥)’이다. 이 글자는 ‘래(來)’와 ‘석(夕)’의 합성어로 ‘석(夕)에 오다’는 말인데 뜻이 통하지 않았다. 그런데 ‘석(夕)’은 ‘서(西)’와 ‘추(秋)’와 동일한 부류(部類)의 글자로 음양 오행적 조화 전개적 사유 방식으로 이미 동양사상에는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다. 즉 ‘서(西)’라는 글자도 바꾸어 놓으면 ‘서(西)에서 오다’, ‘서역(西域), 서장(西藏)에서 왔다’는 말이 됨을 알았다. 보리 원산지가 서역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²⁶⁾

우리나라에는 특히 경주신라 지방에 보리농사를 유달리 많이 하였다. 지금은 산업화와 자유무역협정에 밀려 보리농사를 많이 하는 편이 아니다. 하지만, 이삼년 전만해도 이 모작이라 하여 겨울철 보리 싹이 음력 4월에 주린 배를 채워주는 중요한 식량이 되었다.

햇곡식이 바로 보리였다. 이 보리가 생산되기 이전에 굶주림이 아주 심했다. 그러므로 서민들은 초근목피로 연명을 하였고, 기근으로 생명을 버린 자가 해마다 한 돌이 아니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지만 윤달이 들게 되면, 특히 윤삼월이나 윤사월이 들면, 기근이 더욱 심하였다. 그 이유는 음력 사월에 보리를 수확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즉 그 만큼 수확이 늦어진다는 뜻이 된다. 그러면 굶주림의 기간이 길어짐을 말한다.

이것이 보릿고개이다. ‘보릿고개’는 보리가 외국으로부터 들여온 때부터 시작된 말이다. ‘윤사월과 보릿고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피꼬리 울면’은 화자의 가정법의 상상을 말해주고 있다. ‘피꼬리

26) 위의 책, p.118.

가 울다.’ 는 서술이지만, 피꼬리가 울게 된다면 하는 희망의 소식이 있음을 먼저 독자에게 암시를 전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진행에서도 해가 길어지면 피꼬리는 울게 되어 있다는 메시지도 전해주고 있다.

우리 민족의 신화적 전설에 의하면 윤사월은 해가 길다는 전설로 그 해는 무척 보릿고개가 길다. 라는 의미도 화자는 알고 있었다.

육십년마다 윤사월이 한 번씩 돌아온다고 가정할 때 일제에 화자가 살았던 당시에 육십년 전이라면 1944년에서 60을 감하면 1884년에 해당된다.²⁷⁾ 역사적으로 19세기의 말에 서양세계는 근대가 시작되어 공장제 수공업에서 산업화로 전환되어지고 있는 순간에 우리는 쇠국 정책의 봉건적 사회에서 외국문물을 받아들이느냐 봉쇄하느냐의 내부적 흥역을 치루고 있었던 시대이다. 그 뒤 십년 만에 결국 갑오경장을 맞이하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십년동안 침략준비를 하고 마침내 1905년 일본관군이 우리 조선의 왕궁을 점령하고, 오년 뒤에 결국 조선을 자기 나라로 만들었던 역사적인 사실이 화자는 충분히 알고 있었다.

화자는 분명히 1944년에 1884년 갑신정변 때와 같은 역사적 전환 또는 변혁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피꼬리’ 는 어떤 짐승인가? 우리나라의 야생 조류로 이른 봄부터 시작하여 초여름까지 야산에 서식하는 새이다. 그 목소리가 아름답고, 꼬리가 몸집에 비하여 긴 편에 속한다.

화자는 아름다운 소리를 가진 피꼬리를 시상에 등장시킴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그 메시지는 화자의 상상으로 조국의 광복, 조국의 해방을 말해주는 것도 하고, 일본의 패망, 세계 제 2차 대전의 종말이라는 것도 함께 상상의 세계로부터 독자에게 현실적 세계로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핵심 어이기도 하다.²⁸⁾

필자는 이 시어에서도 화자의 상상이 조국의 광복메시지가 현실적으로 다가올 것으로 확신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현실성을 찾아볼 수 있는 이유는 제 1행의 ‘송화 가루 날리는’ 에서 ‘피꼬리’ 와 연결되어지기 때문이다. 피꼬리는 산에서 울고, 산

27) 유홍열 감수, 『한국사 대사전』, 고려출판사, 1992. p.1789. 개화당 박영효, 김육균, 우정국, 낙성식 정변을 일으켜 민비 살해함.

28) 오세영, 『한국현대시 분석적 읽기』,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4, p.432.

바닥에서 우는 것이 아니라 소나무 숲속 가지에 숨어서 우는 새이나, 그 목소리는 온 산천을 온 동네를 다 들도록 울기 때문이다. 화자는 왜? 현대시를 쓰면서 ‘피꼬리’가 ‘노래하다’로 하지 아니하고, ‘울다.’라고 했을까? 이것은 동양적 사고라고 할 것이다. 서양에선 새가 ‘노래하다.’ 또는 ‘피꼬리가 노래하다’로 표현하지 ‘운다.’라는 표현은 하지 아니한다.

화자는 동양적 사고뿐만 아니라 여기에 민족적 애환과 인내심의 한계 그리고 기쁨이 모든 것이 함의된 표현을 ‘운다.’라고 했을 것으로 본다.

화자의 상상은 조국의 광복과 우리 민족의 애환이 서려있고, 역사 문화적 상상도 들어 있으며 일제 억압의 종결로 기쁨, 환희 등이 범벅되면 ‘울음’으로 변한다는 가정법의 상상력을 독자에게 호소하고 있다.

3) 산지기와 처녀의 대립적 핵심어

‘산지기 외딴 집’은 ‘산지기’의 핵심어와 ‘외딴 집’이라는 공간이 먼저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산지기’는 산을 지키는 사람으로 산을 관리하거나 무단으로 침입하는 자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자이다. 산의 주인과는 별개의 사람임을 알 수 있다. 즉 산 주인의 명령을 받거나 산 주인의 지시에 의하여 산에 나타난 사람임을 화자는 언급하고 있다. 전행에 나온 산과 산지기는 무관하지 아니하다. 화자는 이 산에 다시 외딴 집이 한 채 있음을 상상세계에서 그리고 있다. 산과 집은 별개의 객관적 상관물로 산은 집보다 먼저 생긴 것을 의미하고, 집은 산이 있고 난 다음 수년, 수백 년이 아닌 수천 년, 수만 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 사람이 그곳에 기거함으로써 생긴 집이다. 화자는 산은 원래 있던 것이고, 집은 인위적인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산은 우리의 조국이요, 외딴 집은 조국의 기반위에 설정된 집을 화자의 상상 속으로 탐험해 보면 집은 일시적으로 살거나 언제부터인가 살게 된 집이므로 산과는 별개의 주거 공간임을 알 수 있다. 물론 동물이나 식물 그리고 자연에 가장 가까운 사물은 산을 본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집은 산이 본향이라고만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외딴 집은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아니면 외부의 침입자에 의하여 새로 짓게 된

집으로 보아야 하겠다.

이러한 화자의 내면세계를 탐구해 봤을 때, 화자의 상상은 현실적으로 ‘외딴 집’은 누가 살든지 간에 외부 사람의 손길이 닿은 집임을 알 수 있다.

필자는 이것을 ‘일제’라고 보았다. 위 사실로 미루어 화자는 일제 현실을 조국과 조국의 상태를 산과 집인 외딴 집과 산지기라는 상상으로 시어를 대신하고 있다. 연이어 6행에 ‘눈먼 처녀’가 나온다. ‘눈이 멀다’ 함은 장님을 말하는 것이요, 장님은 낮이나 밤이나 캄캄한 시계에 생활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화자는 ‘외딴 집에 사는 처녀’가 휴양을 하러 이곳에 왔다면 ‘산지기’는 산을 지키면서 이 처녀의 거동을 보살피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볼 때 화자는 조국의 앞날을 캄캄한 밤을 상상하였고, ‘처녀’는 역시 신생국가인 조국의 상징을 화자는 상상하였던 것이다.

이 시구에서 ‘산지기’와 ‘처녀’는 일제와 조국으로 당시의 현실세계를 대변해주고 있음을 화자는 독자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문설주에 귀대이고’는 문과 기둥 그리고 ‘귀’라는 단어로 먼저 분리 시켜 나열할 수 있다.

‘외딴 집’의 문은 개폐형식으로 밖에서 문고리를 잡고 몸으로 당기면 문이 열린다. 방안에서는 문고리를 잡든 손바닥으로 밀든 하면 문이 열리게 되고, 방안에서 닫을 때는 문고리나 벽에 걸린 끈을 당김으로서 닫히게 된다. 필자가 목월이 상상했던 ‘외딴집’을 문학탐방을 통해 가보았다. 그 집은 미닫이문이 있었다. 그러므로 미닫이는 옆으로 밀었다 닫았다 하지만 일반적인 문은 끌어당기고 밀고 한다. 문설주에 귀낼 수 있는 문은 미닫이문이 아니다. 그 ‘외딴 집’ 사랑채에 조그만 골방에 뒷문이 밀고 닫는 문이 있었다. ‘외딴 집 눈 먼 처녀’는 아마 어둡고, 조용하고, 한적한 방에 있었을 것으로 필자는 상상해 보았다.

이 공간에서 ‘눈먼 처녀’는 자기의 의식적 감각을 귀로 보내고, 그 귀를 문설주에다가 대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문의 종류는 여러 가지의 문이 있다. 방문, 창문, 쪽문, 부엌문, 대

문 등으로 우리의 생활공간에는 여러 가지 문중에 사람들이 들락거리는 통로와 공간은 거의 다 문이 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이 드나드는 큰 문은 반드시 소문이 있을 것이다. 신문도 있을 것이다. 눈먼 처녀는 보이지 아니하는 눈을 통해 보지 않고, 귀로 듣고 있음을 화자는 상상하고 독자에게 안타까움을 간절히 호소하면서 동정까지 구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도 조국의 현실은 마치 시집못 가고 산속에 버려진 채로 휴양의 명목으로 남몰래 갇혀 있는 ‘눈먼 처녀’는 지식인들의 눈인 신문도 없고, 라디오도 들을 수 없고, 소문을 들을 수 없도록 감옥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멀리 조국을 떠나도록 강요하거나 유배시켰던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화자는 제 8연에서 비록 눈이 멀어 보지 못하나 처녀가 귀를 문설주에 대이고 자연적으로 들려오는 피꼬리 소리를 들으면서 긴 여름날을 하루하루를 넘기고 있다.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조국 광복의 희망을 버리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실을 현실세계의 있어 독자들에게 애뜻한 심정으로 호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Ⅲ. 결 론

박목월은 자연과 고향 어머니의 기호로 대변되는 목월의 시를 시간의 가속화와 선상에 놓인 문명인의 위상을 진단하는 의미와 다름없다. 노정탐방과 그의 제적등본을 보고 출생년도의 착오와 기록이 발견된 것은 작가론의 입장에서 좋은 일이기도 하다

그의 자서전예까지 이러한 사실을 알면 그리 큰 영향은 없겠으나 이 기회를 통하여 박목월에 관한 나의 관심과 문학의 선배로서의 여러 가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의 시에 대한 시어를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에 대해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가 남긴 시 <청노루>와 <운사월> 전문을 통하여 우주자연의 질서가 시간과 공간의 개념으로 전개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 우주질서는 상상에서 현실로 전개되어 실제 하는 토함산에 있는 불국사를 통하여 청운사로 상상하여 화자는 전개하였다. 화자는 시어

에서 자하문(紫霞門)을 통하여 ‘자하산’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화자는 이것을 마음의 지도인 공간적 상상세계에 들어갔다가 현실 세계로 독자들에게 다시금 전개한 것이다.

시간의 반복성은 하루는 아침, 낮, 저녁, 밤으로 나누어져 반복하며 이것이 아침은 거듭 반복되면 봄이라는 계절을 만들고 낮이라는 것은 여름을 만들며 저녁이라는 것은 가을을 만들고 밤이라는 것은 겨울을 만든다. 이것이 우주의 신성(神聖)성, 혹은 신화적 시간을 박 목월은 자연의 상징을 통해서 복원 시킨 것이라고 보았다.

『청록집』과도 깊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봄노루’를 한 자어로 바꿈으로 현실세계의 상관물이 상상세계로 초월한 것을 말한다. 푸를 청(靑)자에다 사슴 록(鹿)을 합하여 『청록집』이라고 이름 짓지 않았나, 라고 생각되어진다. 청, 동, 봄, 나무, 생명을 동양적사고 오행 배속상 동일 부류에 속하는 단어이다.

〈청노루〉가 가공적 노루일지라도 투명한 원형세계를 지향하는 시인의 소망의식이 내재된 것이 분명하다. 지금은 토함산에 청노루 즉 젊고 씩씩한 노루들이 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청노루의 맑은 눈에 도는 구름’ 하늘을 우러러 보고 상상력의 시선과 ‘머언 산’을 바라보는 노루와의 연결은 우주가 창조된 거룩한 시간²⁹⁾으로 회기를 꿈꾸는 의식의 통로가 분명하다.

〈윤사월〉은 위의 관찰에서 보았듯이 조국의 비참한 현실 속에서 그의 상상세계를 전개하였고, 다시 그는 희망적 메시지를 피꼬리와 눈먼 처녀의 행위적 상황설정에서 볼 수 있다.

필자가 이 논문을 연구함에 있어 미흡한 점이 많았으나, 몇 가지의 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첫째, 이 논문을 통하여 목월의 현실 도피성 또는 화조풍월의 성격을 배제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연구되어야 한다는 점

둘째, 조국의 안타까운 현실과 광복이라는 희망적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그의 노정탐방을 통하여 새롭게 탐구하여 보았다.

셋째,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깊이 연구되지 안하고 있다는 점과 우리의 머릿속에 목월의 이러한 시상을 잊혀져가고 있지 않을까?

29) 멀치아 엘리아데, 『성과속』, 학민사, 1983, p.72.

하는 의구심은 지을 수가 없었다.

앞으로 우리의 국문학사에서 목월의 시를 새로운 관점에서 더욱 더 연구관찰하고 그의 내면적 상상세계와 현실세계를 재조명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기본 자료

- 『청록집』, 을유 문화사, 1946.
『청록집』 「박목월 연보」 을유문화사, 1946
박목월, 『보라빛 소묘』 신희출판사, 1958.
박목월 『박목월 자선집 1권』 삼중당, 1973.
박목월, 『박목월 자선집 7권』, 삼중당, 1973

- 국내 논저

- 오상도 편저 『대영백세력』 역리원, 1998.
김윤식, 「박목월론」 『심상』, 1977.6.
김광림, 「박목월의 시세계」, 『101편의 시』, 삼중당, 1975.
김광식 저 『토착화와 해석학』, 대한기독교 출판사, 1985
김윤식, 『김동리와 그의 시대』, 민음사, 1995,
강구진의 『원색 세계동아대백과사전 15』, 동아출판사, 1982,
다니엘 베르제 외, 민혜숙 옮김, 『문학비평 방법론』, 동문선, 1997.
레온 예델, 지음, 김윤식 옮김 『작가론의 방법』, 삼영사, 2002.
육당 최남선 저, 『아씨 조선』, 동양서원 발행, 1926
김찬호, 「김동리 소설의 사상적 배경연구」, 고려대학교 출판사, 2006
최동환, 『천부경 예언론1』, 도서출판 삼일, 1993
김윤식, 『김동리와 그의 시대』, 민음사, 1995,
김범부 『풍류정신』, 민음사, 1986
김재홍 편저 『한국현대시 시어 사전』,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7.
개혁개정판, 『한영스터디 성경』, 생명말씀사, 2005
엄경희 저, 『현대시 발견과 성찰』 보고사, 2005.
오세영, 『한국현대시 분석적 읽기』,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4,
이상섭 『문학비평용어사전』, 민음사, 2002.
유종호 『시란 무엇인가』, 민음사, 2005.
이지엽 『현대시 창작 강의』, 고요아침, 2007.
이윤기 『그리스 로마신화』 웅진닷컴, 2001.
이상섭 『문학 연구의 방법』, 탐구당, 2002.
안호상 『겨레역사 6천년』, 배영출판사, 1989.
이남호 『문학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현대문학, 2004.

사이버문학상

제1회 사이버문학상

최란주

정상조

예심심사평

본심심사평

당선소감

제 1 회 사이버 문학상

6,000여 편이 응모한 서울디지털대학교 제 1 회 사이버문학상이 막을 내렸다. 심사위원인 고은 시인, 이재무 시인, 유성호 문학평론가, 오봉옥 시인, 손택수 시인, 길상호 시인 등은 당선작으로 최란주의 ‘즐장미 붉은 손바닥’ 외 4편을, 가작으로 정상조의 ‘등 푸른 추억’ 외 5편을 선정했다.

2007년 서울디지털대학교 제 1 회 사이버문학상은 응모자가 848명, 응모작품은 6,000여 편에 달했다. 이는 서울권 일간지 신문의 신춘문예를 상회한 수치이다. 뜨거운 관심에 감사드린다. 당선작은 500만원의 상금과 함께 계간 <시작>에 작품게재, 등단 시인으로 인정되며, 가작은 200만원의 상금과 상패가 수여된다. 시상식은 2월 22일(목) 오후 6시 서울디지털대학교 2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 당선작 - 최란주 ‘즐장미 붉은 손바닥’ 외 4편

■ 가 작 - 정상조 ‘등 푸른 추억’ 외 5편

< 예심 심사위원 >

오봉옥(시인,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 손택수(시인), 길상호(시인)

< 본심 심사위원 >

고은(시인, 심사위원장), 이재무(시인, 「시작」 주간), 유성호(문학평론가, 한국교원대 교수)

줄장미 붉은 손바닥 外 4편

최란주

초여름 아침 등촌동 자동차공업사 옆 담벼락을 지나는데 줄장미 붉은 가시가 흠집의 옷깃을 잡아끌었다. 출근길 발걸음이 함부로 뺨친 가시에 걸려 잠시 허둥거렸다. 제 毒手에 찢린 줄장미 꽃모가지들이 바닥으로 푹푹 떨어지고 있었다. 옷깃을 움켜 쥔 줄장미 독 오른 손바닥들이 옛 애인을 붙잡고 늘어지던 내 넝쿨손 같아 도망치듯 전철역까지 줄행랑을 쳤다. 가슴을 쓸어내리는 손바닥이 십년 전처럼 까칠했다. 젠장, 외로움에 굶히고 그리움에 굶히는 게 사랑이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니는 사람들은 조금씩 굶힌 손바닥을 갖고 있다. 사람들은 쉽사리 상처를 보여주지 않는다. 악수가 따듯한 건 상처가 상처를 어루만져주기 때문이다. 가슴을 쓸어내리던 손바닥을 펴면 아직도 털어지지 않는 붉은 가시들, 종일 손바닥이 가까웠다. 태양의 모가지가 뭉툭뭉툭 지고 있었다.

카페 라 캄파넬라

큐빅이 박힌 하이힐을 신고 표범무늬 미니스커트에 엉덩이를 걸친 女子 살갓이 슬쩍 보이는 반라의 시스루를 두르고 알 듯 모를 듯 미소를 흘리며 서 있는 女子 얇고 가느다란 시선만 던져도 울퉁불퉁 심장이 뜨거운 사내들이 침 삼키며 눈독을 들이는 女子 뒤로 다가가 허리를 덤석 안아 버릴까 얇은 시스루를 확 벗겨 버릴까 이런, 그 女子의 입술에서 따듯한 영혼이 싹뚝처럼 퍼져 나가게 돌려 버릴까 젠장, 숨 막히게 맑은 투명한 에스라인 허리를 손가락 끝으로 간질여볼까 혀끝으로 꼭지가 짓무르도록 핥아 볼까 아아, 女子의 입 속으로 바람을 불어넣는다면 배가 부풀어 오를까 아니면 스커트가 벌렁거릴까 사내들이 동공이 커진 눈동자를 번뜩이며 다가온다 이런, 스커트 밑으로 밀고 들어오는 이 부드러움은 무엇인가 이봐, 눈 큰 겁쟁이, 축제 준비는 다 됐니? 자, 그럼 실컷 만져 봐, 뇌쇄적인 女子의 몸매, 이런 와인 잔은 아마 처음일 걸?

늦겨울

느그들은 나 죽기 전에 시집들 안 갈래 요새 아그들은 참말로 애인들도 잘 사귀드만 느그들은 여태 뵈었냐 저 시랭이 마을 사는 끝자는 아들을 셋이나 낳고도 그 머이메와 끝내뿔고 딴 서방을 꺾차고서 딸 하나를 낳아서 알콩달콩 잘도 키우고 살드그만 느그들은 여태 뵈었냐 녀들은 시방 손주를 장개보낸다고 청첩장을 뿌리고 난린디 나는 딸 셋 중 하나도 못 치워서 복장이 터져뿔것다 참말로, 근디 시방 어디여, 여죽 사무실이라고, 그놈에 사무실은 매미맹키로 붙어서 끄룩끄룩 일만 해싸면 무슨 똑바라진 사내자식 하나 엮어준다디 인제 그만 일을 끝내뿔고 싸게싸게 나와서 술 한 잔 먹어제끼고 맘에 든 사내가 있거던 거그서 그냥 모른척 자빠져쁘러 지도 사람인디 나 몰라라 하것냐 뽀뽀는 안 허더라도 업어다 이불에는 눕히지 않겠냐 그렇게 갈켜줘싸도 그노메 좋은 머리는 어따가 쓰느겨 초등학교도 안 땡긴 명옥이도 남재 만나서 잘만 살더그만 대학까정 나온 느그들은 여태 뵈었냐 잔소리라 생각허들 말고 퍼득 정신차려 시간이 없당께 고놈이 고놈잉게 인제 고만 고르고 화딱 소매를 끝던지 바지가랑이를 잡아댕기든지 하랑께 술 몽팡 묵고 자빠져쁘러 고것이 최고여 그라고 나중지가 안 그러고 고놈의 술땀시 그렇게 되야부렀서야 하면 그만이랑께

땡별 법정

나는 당신의 마음을 흘린 죄로 땡별 법정에 불려나와 재판을 받게 되었으니 그리움을 방사한 죄가 크다. 이에 법정구속을 명한다. 청포도 푸른 그늘 아래 남아있는 키스자국에 대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당신을 향한 나의 마음이 다른 이에게 도주할 우려가 있기에 오늘 이 시간부터 나를 추억 속에 감금하니 내가 가야할 장소는 후박나무가 내려다보이는 당신의 창문이다. 넓은 앞사귀 갈피마다 채워진 당신이란 책장을 넘기며 나는, 사랑이란 누구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 사랑하는 이를 위해 미소를 머금은 것임을 알 때까지 나는, 당신이란 글자의 행간 사이로 쏟아져 들어오는 땡별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네모난 겨울

- 법원 사무실에서 바라본 풍경 -

육법전서 너머로 보이는 거리에는 실어증에 걸린 사람들로 북적인다. 한 장 남은 달력 위로 다급하게 달려드는 발자국 밑으로 마른 햇볕이 끼어든다. 오후 네 시의 아찔한 구멍 속으로 비둘기들이 들락거린다. 법원입구 플라스틱 화분에 담긴 튤드라꽃배추가 미색의 소환장을 던진다. 덜컹 내려앉는 사람들의 놀란 가슴을 짓누르는 판결문 낭독소리. 판결문은 양자 누구에게도 위로가 되지 못한다. 돌아서는 고소인의 뒷모습과 구속된 피고인의 뒷모습은 동전의 양면처럼 닮아 있다. 완벽한 증거들로 가득 찬 네모난 형사공판조서 속에서 각진 얼굴들이 빠져나오려고 아우성이다. 법원사무실에서 바라본 풍경 속에서 태극기는 여전히 높이높이 바람에 펄럭인다.

등 푸른 추억 外 5편

정상조

여기가 어딘지 몰라, 눈만 휘둥그레져 있는 고등어. 쭈그리고 앉아 있는 어머니의 뱃살처럼 쫄쫄이 쌓인 고등어는 시장바닥에 피어오르는 한기와 사람들의 흥정 소리에 대가리 없이도 그 사이를 헤엄쳐 나갔다. 대야에 남은 고등어는 그래도 대가리는 갖은 채, 밥상 위에서 지 몸 타는 줄 모르고 백열등만 응시했다. ‘또 고등어야’ 등 푸른 연기에 침묵은 소금처럼 스며들었다. 침묵의 수평선이 눈을 뜨자, 고등어는 아이의 입을 헤엄쳐 갔다. 목구멍에 잔가시가 걸려 아파하는 울음소리에 어머니는 맨밥을 밀어 넣으셨다. 고등어는 그 많은 가시를 삼키고도 아프지 않았을까. 아이가 남기고 간 상처들의 잔해를 어머니는 도둑고양이처럼 맨밥과 함께 목구멍으로 넘기셨다. 밤마다 파도치는 어머니의 뱃속에 고등어는 커가고 있었다. 다음 해, 간인지 쓸개인지 알 수 없을 커다란 어항이 어머니 몸속에서 나왔다. 그 곳에 고등어는 없었다. 다만 대형 고등어가 살았다는 붉은 흔적뿐. 퇴원 후에도 어머니는 뱃속에 고등어를 키우신다. 가끔, 내뿜는 담배연기 사이로 헤엄치는 등 푸른 추억이 떠오르곤 한다

마녀

4층 금강극장에 한 마녀가 살았다
그녀의 이름은 순자
마법에 빠진 동네 총각들은
TV에서 볼 수 있는 영화들을 극장에서 봤다
사내들이 계단을 오를 때마다 받쳤던
순정 한 방울, 주머니 속 먼지 두 스푼에 속눈썹 말아 올라간
그녀는 빗자루를 타고 증황무진 날아다니며
사내들의 마음을 쓸어 담았다
마녀가 황금 빗자루를 쫓아
스크린 속으로 바람과 함께 사라지자
탈색된 머리카락을 엮던 영식이 형은
몇 가닥 남지 않은 머리털을 부여잡고 울었다
장대비가 쏟아지던 날
꼬여버린 빗질 따라 마녀사냥꾼들이 동네로 들어왔다
붉은 부적딱지에 집이 불타오르자
마녀의 어머니는 불을 끄기 위해 애를 썼지만
도착한 것은 구급차였다

이듬 해 병실에 마귀할멈이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에는 수면제 4알, 한숨 세 스푼이 만들어낸
층층 계단이 놓여 있었다 금강극장 계단보다 높았다
그녀의 손에는 회한(悔恨)에 젖은 대걸레가 쥐여져 있었다
스크린의 턱을 넘다가 남자 발에 걸려
빗자루는 걸레가 되었다고 했다
부적 딱지를 많이 삼켜
굽어진 그림자 얼룩으로 가득 찬 병실.
그녀는 오늘도 잘 닦기지 않는 얼룩을 어루만지고 있다
젖은 걸레가 마르는 날,
나는 순자에게 소박한 빗자루를 선물하고 싶다

단단한 붕어빵

좁아터진 붕어빵틀 속에
밀가루 반죽처럼 길게 늘인 콧물 단
꼬마 하나 이리저리 뛰어 다녔죠
코가 막혀 숨을 몰아쉬니
한숨쉬면 복달아난다는 말에 꼬마는 숨을 참으며 살았죠
넘실거리는 소주에 그날 번 일당 띄우고
큰소리로 항해하신 아빠 이름은 마도로스 김
밤마다 암고양이 울음소리가 꼬마 귓등을 간지럽 태우면
어김없이 다음날에는 얼어버린 붕어빵 몇 개 놓였지요
아가미까지 말라버린 붕어빵을 꼬마는 먹지 않았어요
쿵쿵거리는 소리에 소주 뚜껑으로
꼬마 주머니는 아빠 술배처럼 불룩해졌죠
꼬마는 붉은 해가 뜨는 밤보다
잠들 무렵에
암고양이 울음소리가 안 들릴까 걱정했죠
울음소리 들리지 않으면 아침이 오지 않았을라나,

더 이상 탈 배가 없어 대낮부터 들어온 아빠가
엄마 가슴에 술 붓자, 푸른곰팡이 짙히는 소리 들리네요
꼬마는 답답해 아궁이 뒤에서 몰래 한숨을 내쉬자
푸른곰팡이 집 전체에 퍼져, 꼬마 몸까지 피워 오르네요
꼬마는 101마리 달마시안 그린다고 수많은 푸른 점에
개 그림 그리는데 한마리가 부족하네요
집나간 개새끼, ‘멍멍’ 동네방네 짚어대는 소리가 정겹네요
그 날 밤 암고양이 울음소리 사라져 꼬마는 무서웠어요
한숨 소리에 암고양이 제 새끼 놔두고 달아난 줄 안
꼬마는 한숨을 감추기 위해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어요
마을 어귀에서 담배를 피우며 꼬마는 붕어빵을 굽네요
암고양이가 먹어본 건 단단한 붕어빵이라
후후 불어가면서요

최후의 만찬

맨주먹으로 세상을 주무르겠다고 하던 시절
공장 앞 부동산 화투판에서 공갈빵을 맛 본 아버지는
도너츠 구멍으로 보이는 세상이 작아보였다
도너츠에 이스트를 넣으신 아버지
부풀다 부풀다 터져버린 그 날,
도너츠는 설탕 옷 대신
붉은 차압딱지로 포장되어 나왔다
그 해 공장은 붉은 시럽에 빠져 익사했다
아버지는 직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기 위해
도너츠 구멍처럼 작아져 버린 방에
직원들은 서로 부둥켜안은 채 둥글게 앉았다
반죽은 여자가슴 주무르듯 해야 한다는 김씨 아저씨
세상 모든 것은 구멍 없이는 살수 없다고 소리치던 최씨 아저씨
모두들 채울 수 없는 목구멍에 술잔을 부었다
술에 불어버린 방에서는 한숨만이 여기저기서 피어올랐다
아버지는 도너츠가 불던 휘파람소리가 듣고 싶어 했지만
더 이상 만들 손이 없어 입으로 도너츠를 만들었다

집안 가득 흰 도너츠는 우주선처럼 날아오르며
매캐한 설탕 가루를 집안 가득 뿌렸다
긴 한숨을 타고 우주선이 내 머리 위로 착륙하려 하자,
아버지는 우주선을 향해 재떨이를 날리셨다
횡 횡 날아오르다 내 이마밖에 닿지 못한 무능함에
더욱 커진 우주선이
시럽처럼 붉어져가는 방을 졸라매자,
사람들은 울음 섞인 휘파람을 내쉬었다

면도

무딘 주름살 꺼내놓은 채
이젠 날도 서지 않은 면도기로
사내는 면도를 해본다
칼날 사이에 켜켜이 쌓인
사내의 모진 인생을 면도기는 안고 살았다
탁탁 털어내지만,
사내의 매끄러운 인생에 잘려나간
아버지의 두개의 손가락만이 세면대 위에 떨어진다
턱 주위에 거품을 바르자, 거울에 아버지 얼굴 보인다
제 숨 다 췌 거품들
‘지 애비 닳아가네’ 소리에 사라지고
욕실에 던져진 구멍 난 양말에서
아버지 배꼽 얼굴을 내민다
무딘 면도날에 베인 상처 틈으로 흐르는
시간은 푹 푹 끊어진다
상처를 막자, 사내의 그림자에서 걸어 나오는 아버지
무딘 칼날로 그림자를 깎으려는 사내는

깎기지 않자 면도기를 버린다
혼자 면도를 할 수 있는 사내에게
아버지는 일회용이었다
팽팽한 면도기로 난도질을 해봐도 떨어지지 않는 그림자
불을 끄자
사내가 없고 아버지도 없다
섞이지 못한 채 고여 있는 침묵뿐.

숨바꼭질

달빛 속으로 적막마저 숨은 밤
달동네에서 숨바꼭질이 시작된다
도둑고양이가 품고 있던 바람은
술래의 주먹 속에서 비명을 지른다
술래는 무너진 담벼락 따라 숨은 사람을 찾아 나선다

처음으로 잡혀 나온 사람은 ‘늘봄상회’ 할아버지
달동네에 뿌리내린 수염을 술래는 송두리째 뽑아간다
폐지를 덮고 자던 박스아줌마는
식어버린 아궁이에 숨어있다, 연탄집게에 영켜 나온다
일찌감치 몇 푼의 보상금을 받고
숨바꼭질을 끝내는 사람들이 더러 나타난다
달빛 파편이 시퍼렇게 빛난 집에는
아버지가 버리고 간 소주병에 갇힌 채
숨어있는 남매 하나 깨져 나온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빗물이 수목화를 그렸던 집에
아무개 할아버지가 주검이 된 채 실려 나온다

모두 발견됐지만 끝끝내 한 소녀가 발견되지 않았다
숨바꼭질의 주도권은 술래에게 있으리라.
술래는 단단한 이빨을 드러내며 한 입 한 입 달을 집어 삼킨다
계걸스럽게 씹어대던 빛나는 잇몸에 흘러내린 핏줄기는
도둑고양이일까
이빨 틈에서 떨어져나간 이름표가
신문 하단 미아 찾기에 얼굴 없이 내려앉는다

달빛 찢어
마디마디에 붙인 대숲에서는
못 찾겠다, 피꼬리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

예심 심사평

문학의 위기 그 중에서도 시의 위기가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 깊이 있는 사유를 요구하는 시의 언어보다는 즉흥적이고 유희적인 유행어에 더 환호하는 세대, 또한 그들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 자기검증도 없이 말초감각의 시어를 만들어가고 있는 시인들, 어느 때보다도 이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반면 가속화되고 있는 시대와 문화 환경 변화 속도를 어떻게 받아들여 새로운 감각의 시 역사를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이어지고 있는 시대이다. 이번 문학상 심사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불안감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주었다.

우선 제 1회의 문학상 공모임에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848명이나 되었고,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예상의 수치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많은 노력들이 선행되었겠지만 일차적으로 문학에 관한 관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 중에는 캐나다 교포로부터 조선족, 법조인, 교도소 재소자에 이르기까지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도 많았다. 또한 그들이 시로서 형상화한 세계는 매우 개성적이어서 신선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타국을 통해 전해진 詩心과 뜻밖의 장소에서 발견한 詩作의 모습은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는 현대사회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시의 생명력을 증명하고 있었다.

작품들 속에는 인원수만큼 다양한 내용과 형식이 녹아들어 있었다. 산문과 운문의 중간 지점에서 새로운 시의 형식을 찾는 모습도 보였고, 현실과 환상세계를 오가며 시적 상상력을 확대해가는 목소리도 있었다. 자신의 시 문법을 만들어가는 응모자들의 작품들을 통해 먼 훗날의 한국 시의 모습을 상상해볼 수 있었다. 반면 많은 응모자의 작품에서 습작기의 반복되는 문제점이 보이기도 했다. 기존 시인의 문법을 답습하고 있는 시, 감상에 젖어 주제를 잃어버린 시, 상상력과 사고의 깊이가 한정되어 있는 시 등등. 세계에 대한 주도면밀한 탐색과 자신만의 새로운 인식체계가 맞물릴 때 이런 문제점들은 보완되리라.

심사위원들은 깊이 있는 내용과 또 그것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엿보이는 작품들을 본심 대상작으로 선정하였다. 본심에 올라간 작품들은 저마다의 개성을 통해 발전해갈 가능성을 담고 있다고 본다. 모두 그 가능성을 찾아내는 시인이 되기를, 또 앞으로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문학상이 그 촉진제 역할을 계속해가기를 바라며 심사평을 마무리한다.

본심사평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과와 계간 「시작」에서 주관하는 제1회 서울디지털대학교 사이버문학상에는 실로 많은 예비 시인들이 응모해주었다. 오랜 시간의 고심과 노력이 녹아 있는佳作들 덕분에, 심사위원들은 매우 즐겁고도 보람있는 시 읽기를 경험했음을 고백한다. 이러한 현상은 ‘서울디지털대학교 사이버문학상’이 이제 첫발을 내딛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문단에서 각별한 주목을 받고 있다는 유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아직도 시를 향한 열망이 우리 시대에도 마르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실물적 사례라고 생각된다. 또한 이는 경제적 효율성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는 우리 사회의 풍토에 대한 반성적 거점을 여러 모로 보여준 긍정적 결과라고 할 것이다.

응모자들의 시편은, 담론적 집중성을 보이는 어떤 경향이나 세태에 편승하기보다는, 각자의 경험적 구체성을 바탕으로 언어 미학의 완성을 꾀하려는 의욕을 두루 보여주었다. 편차가 심하기는 했으나, 읽을 만한 시편들이 많았음을 기록하고 싶다. 이 모든 것이 개성과 완결성의 황금분할을 통해 우리 시의 미래를 개척해가려는 젊은 언어들의 긍정적 면모라고 생각된다.

예심을 통해 올라온 분들 가운데 심사위원들은 김재현, 김혜영, 이점순, 정상조, 조정숙, 최란주 씨(가나다 순) 등 여섯 분의 작품에 특별히 주목하였다. 이분들의 시편은 안정감과 폐기, 익숙함과 낯섦, 산문 지향과 운문 지향, 서정의 구심과 원심 등 우리 시의 다양한 미학

적 충동과 방향을 여러 방향에서 보여주어, 심사위원들로서는 어느 분이 당선자로 뽑히더라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만큼 작품적 성취가 균질적이고, 충분한 습작 시간을 담고 있었다. 그 가운데 심사위원들은 안정된 언어 구사나 주제의 진중함보다는, 시적 언어의 활력과 앞으로의 가능성을 풍부하게 내장하고 있는 언어를 높이 사서, 최란주 씨의 작품을 전원 합의하여 당선작으로 뽑기로 하였다.

최란주 씨의 작품들은, 비록 줄글 형식의 시편들이라 운율적 고려에 서는 다소 취약하였으나, 활자의 안쪽에 만만찮은 시적 공간을 만들어 그 안에서 삶의 만화경(萬華鏡)을 두루 보여주는 활달한 역량을 보여주었다. 또한 일상의 활력 속에서 가장 근원적인 생의 상처며, 부드러움이며, 사랑을 노래하는 품과 격이 매우 미더워 보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험적 구체성 속에 심미적 감각을 살려 재생하고 배열하는 언어적 힘이 밀도 있게 관찰되었다. 신뢰와 축하를 얻어 당선작으로 결정하였다.

심사위원들로서는, 앞으로 더욱 젊고 패기에 찬 젊은 언어들이 우리 서울디지털대학교 사이버문학상에 관심을 가지고 도전해오기를 바란다. 이번에 당선되지 않은 분들도 더욱 정진하기를 바라고, 거듭 당선자에게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당선감

■ 당선 - 최란주

밤새 꿈을 꾸었다. 즐장미 붉은 손바닥들이 나를 붙들고 늘어졌다. 떠나보낸 지 십년이 넘는 사랑이 새삼스럽게 가슴을 후벼 파기 시작했다. 이젠 잊었다고 생각했던 기억들이 일시에 떠올랐다. 독한 가시에 찔리면서도 시를 떠나보내지 못했던 건 별빛에 어깨를 기대며 시를 읽어주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붉게 꿈틀거렸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짝사랑만 하던 내게 비로소 따듯한 악수가 전해졌다. 정말 다행이다. 이젠 내 붉은 손바닥에도 새순이 돌아날 것이다. 새순에서 푸른 미소가 번지고, 뭉툭뭉툭 지던 태양의 모가지도 하늘로 떠올라 빛나는 여름 속에서 자라날 것이다. 꿈틀거리고 요동치며 오래도록 선연한 기운을 풀어낼 것이다. 가느다란 넝쿨로도 세상의 담벼락을 온통 휘감는 즐장미가 될 것이다.

영국의 낭만파 시인 셸리에 의하면 ‘시는 영원한 진실 속에 표현된 삶의 이미지’ 라고 한다. 앞으로 나는 시적 진실이 표현된 삶의 이미지를 묘사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부족한 작품을 뽑아주신 서울디지털대학교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날로 중요성을 더해가는 지식정보사회에서 서울디지털대학교의 위상이 더욱 더 빛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 가작 - 정상조

며칠 전,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가 커피 생각에 잠시 책을 덮었다. 자판기 앞에서 커피를 뽑으려고 하는데 이미 자판기에는 500원이 들어 있었다. 머릿속 나는 동전의 양면처럼 가질 것인가 말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었다. 주변은 고요했지만, 내 머릿속은 짹짹 동전소리로 시끄러웠다. 가져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 갈등 틈으로 거무튀튀한 손 하나 비집고 들어와 동전을 꺼내갔다. 안전모를 쓰고 계신 아저씨였다. ‘아직까지도 아무도 안 가져갔네. 세상 오래 살고 불일이야.’ 미소 지으시며 아저씨는 걸어온 길을 되돌아가셨다. 나는 나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 500원. 아저씨에게는 삭막한 세상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해준 계기가 된 것이었다.

지금 내가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의문스럽다. 미숙한 나의 시를 보고 당선을 고민하시던 심사위원 선생님들 또한 이런 고민을 하지 않으셨을까한다. 시를 내 삶에 품고 품어, 훗날 그 분들 앞에서 오늘 고민하신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묵묵히 지켜봐주시던 부모님, 시를 처음 접하게 해주신 이사라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나를 항상 이끌어 주던 동생 병일이, 서울산업대 시모임 ‘끌림’ 동인들과 이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글을 뽑아주신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SDU 디지털 문학 · 제2호 · 2008

발행인 오봉옥

편집장 박경

편집위원 조익진, 문현영, 유원희
현혜숙, 문선미, 조양비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634-10
TEL. (02)2128-3000
<http://writing.sdu.ac.kr>

인쇄 2008년 2월

발행 2008년 2월

편집 삼호인쇄

주소 서울 서초 양재 275-1

전화 02-589-0072

